



2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2호

(루게 436)



◆◆◆◆◆◆◆◆ 차 례 ◆◆◆◆◆◆◆◆

2월의 찬가	4
김정일동지는 당의 향도자.....	5
반세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6
2월에 핀 봄꽃	9
온 세상 사람들 당신을 우러르네	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축하를	10
초점	11
2월에 사는 꽃	21
어머니당앞에	21
농촌테제의 찬란한 빛발이여!(외 1 편).....	22
풍년농사계절은... ..	23
아, 신갈파!(외 1 편)	24
층계를 오르며	24

혈육.....	25
공산주의인간학의 새 력사.....	26
전환의 해	32
고임돌.....	49
청춘과 사랑과 대동강	64
일편단심 당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치리	64
박토산우에서	65
단편소설에서 사회적문제성을 더 예리하게 제기하자	74
첫 사람.....	78
강토가 갈라지는곳에서	80

2월의 찬가

홍현양

산에 들에 부는 바람
눈속에서 꽃순을 틔우는가
조선의 미래를 안고
천지의 푸른 물결우에
향도의 별이 솟아오른 2월입니다

맑은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새벽노을빛
어디선가 들려오는 눈석이 소리는
천리 밀림의 고요를 깨뜨리며
만병초 꽃바람을 실어옵니다

장설우에 한자욱 또 한자욱
조선의 웃음으로 피어난 봄
혈전만리 폭풍속에 또 한자욱
혁명의 미래로 나래친 2월이여
따사로운 그 봄빛이 있어
조선의 심장은 이렇듯 높이 뻗니다

2월의 하늘에 찬란한
향도의 별을 우러르면
친근하고 다정한 그 영상 어려오고
서리꽃 하얀 밀림의 바다
백두밀영의 귀틀집 창가에
사향가 소리 못견디게 가슴을 칩니다

폭풍만리 눈보라만리
위대한 수령님 헤쳐 오신 길우에
4월의 해빛을 이은
향도의 별이 솟아
조선은 2월이 봄으로 만발한 땅

가슴헤쳐 노래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는
이 땅 이 하늘의 눈부신 환희가
천만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무리로 비껴흐릅니다

공장을 찾으면
자동차의 수억만 불빛들이
은혜로운 그 사랑을
꽃보라도 피워 올리고
먼바다 천리 어장의 배고동소리도
축원의 노래를 안고
조국의 기슭으로 달려와 옵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삶의 순간순간은
2월의 봄빛아래 뿌리를 내린 그 웃음
외진 섬마을 한줄기 등대불도
그 사랑에 목메이는
조국의 뜨거운 눈빛

아, 이 세상 가고가도 끝없는것은
2월의 꽃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걷고 또 걸으신 사랑의 천만리
쇠물앞에 땀을 모르고
천길막장에 어둠을 모르는
인민의 기쁨이 수놓아집니다

천만년 세월로도
가닿지 못할 먼먼 미래가
순간에 전설로 창조되는 그 길우에
조선은 자주시대의 리정표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립니다

아, 2월의 봄빛아래
2월의 푸른 하늘아래
끝없이 울려가는 충성의 노래

끝없이 울려가는 흙모의 노래

향도의 별빛따라
한생을 빛내 가는 천만의 심장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한 마음을 담아
송이송이 천만송이 꽃을 엮어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가사

김정일동지는 당의 향도자

윤두근

찬란하여라 백두에 빛나오른 별
위대하여라 영원한 향도의 해발
걸으신 자욱은 당의 새 력사
가시는 그 길은 당의 행군로

아,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동지
만대를 이어 길이 모실 당의 향도자

성스러워라 누리에 떨치는 위업
은혜로워라 인민 위해 바치는 사랑
쌓으신 그 업적 하늘에 닿고

베푸신 그 사랑 땅에 넘치네
아,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동지
만대를 이어 길이 따를 당의 향도자

영명하여라 시대를 이끄는 기수
슬기로워라 세기를 밝히는 예지
주체의 뜻으로 새세상 펼쳐
인류의 새 봄을 꽃피우시네

아,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동지
만대를 이어 길이 받들 당의 향도자

반제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 전두환괴뢰도당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는 정신을 키워주는 반제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으로 교양하여 그들모두가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을 똑똑히 알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계급교양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화해나가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새우고 온갖 계급적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할수 있다.

이것은 간고한 반제투쟁의 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이 이룩한 승리가 잘 말해주고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인 전두환괴뢰도당의 책동이 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제와 그 괴뢰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적각오를 가짐으로써만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것은 또한 혁명대오안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우리 혁명의 과녁은 의연히 변하지 않았는데 혁명대오에서는 계급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고 있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철저한 반제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그들이 언제나 계급적근본을 잊지 않고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으며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은 우리 혁명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며 철저한 로동계급적관점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계급적본성과 전투적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더없이 중요한 계급적임무이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의 반제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더 많이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은 무엇인가.

반제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반제계급교양주체의 작품들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과 사명에 맞게 훌륭히 창작하는것이다.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계급적 성격과 임무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복무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반제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수령관과 그를 핵으로 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구현하는것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위업이며 혁명적수령관이 로동계급의 혁명적계급의식의 최고표현으로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투철한 계급의식

을 가지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성격적기초에는 언제나 혁명적 수령관이 놓여있으며 그 수령관의 바탕에는 노동계급의 계급적자각이 놓여있는것이다. 노동계급의 계급적자각 과정은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며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과정은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 과정과 통일되어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반제자주의식, 혁명적계급의식의 형성과정으로 그리며 특히 그 핵심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으로 깊이 있게 그리는것은 우리 문학의 계급적성격과 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요구로 되며 가장 중요한 형상과제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은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고전적본보기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따라배워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을 빛나게 창작해 냄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에게 노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반제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묘사와 형상에서 계급적립장과 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다. 우리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미일침략자들이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과 민족의 피맺힌 원한을 결코 잊을수 없다.

그러므로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우리 인민의 가장스러운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로, 혁명의 주되는 적으로 날카롭게 단죄하고 놈들의 침략적본성을 력사적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심각하고 예리하게 폭로하여야 한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묘사하는데서 주되는 문제는 놈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폭로하는데 있다. 따라서 놈들의 교활성과 모악성, 야만성과 비인간성, 모든 리행과 만행도 바로 그 침략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으

로 철저히 락인하여야 한다. 특히 력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묘사하는것은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로서의 놈들의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똑바로 그릴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고 반제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높이고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에 대한 형상에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자면 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계급적원수들의 만행과 악랄성을 그리는데서 전형화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기록주의와 자연주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만행과 악랄성을 그리는데서는 소재 그자체에 매여달리거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라렬할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묘사가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느껴지도록 예리화되고 전형화되어야 한다.

계급적원수들의 형상에서 예술적전형화의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놈들의 침략적 및 착취적 본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과 증오, 적개심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의 반제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잘 그리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조국의 통성변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건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애국주의는 반제자주의식, 혁명적계급의식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반제자주의식과 혁명적계급의식은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열렬히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 자기의 피땀이 깃든 사회주의 조국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적속성이며 그것을 발현시키는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모든 작품들은 결국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로부터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모든 작품들에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이 꼭 들어차야 한다. 그래

야 우리 문학이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행복을 누리고있는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할수 있으며 우리의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목숨으로 지켜나가도록 그들을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작품창작에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계급교양의 견지에서 똑바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계급적근본에서 살고 계급적근본을 지켜싸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애국주의정신을 옳바로 펼쳐보여줄수 있으며 극성도 풍부하게 구현할수 있다.

우리 시대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숨은 영웅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한 사상정신적요인을 형상하는데서 반제계급의식이 노는 역할을 잘 밝히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민족적 계급적 원수들로부터 압박받고 착취 받던 우리 근로자들의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오늘의 생활과 적절하게 결합시켜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작품창작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원수와의 갈등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도 극성을 강화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대비교양의 수법을 활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인하며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의 계기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를 세우는것이다. 이것은 대비교양에서 중심을 옳게 설정하고 과거생활과 남반부 생활을 오늘의 생활과 인간을 그리는데 철저히 복종되게 그려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는 다양한 형식과 수법으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기도를 심각히 폭로하고 전두환 피뢰도당의 반공, 반공화국소동의 음흉한 목적을 낱알이 발가눔으로써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계급적근본을 자각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주제작품창작에서 절박하게 나서는것은 특히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형식의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며 그 전투성과 호소성을 높이는것이다.

원수들의 만행과 죄행을 단죄하며 놈들의 면상을 치는 총칼과 같이 예리한 정론시와 풍자시를 제때에 내놓으며 계급적원수들의 흠혈귀적본성과 추악한 반동성을 발가눔으며 멸망의 불가피성을 선고하는 단편소설들과 단막극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을 기동성있게 창작하며 그 전투성과 호소성을 높은 형상성으로 안받침되게 해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제때에 창작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우선 작품의 종자부터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똑똑히 쥐고 풀어야 한다.

반제계급교양과 관련하여 우리 당이 강조하는 문제를 생활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이 바로 우리 작가들의 작가적 자세로, 창작태도로 되여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에 이바지하자면 항일혁명투쟁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주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주제의 작품창작에 주목을 돌려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당의 의도를 민감하고 적중하게 구현할수 있는 반제계급교양의 문제를 탐구하고 형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당의 의도를 받드는 태도가 아니다. 작품이 쉽게 될수 있는 소재만 찾다니고 별로 요긴하지도 않은 작품을 창작하는 재래식, 직업주의적 창작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려야 한다.

원수와 맞서 붓을 든 작가-병사는 응당 명중탄을 쏘아야 하며 빗나가게 쏘아서는 안될것이다.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실속있게 구현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제때에 창작하는 혁명적기풍이 당중앙의 초병으로서의 우리 작가들이 갖추어야 할 혁명적인 창작자세이다.

반제계급교양에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종자가 똑똑하고 형상적 질이 높은 혁명적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가자.

2월에 핀 봄꽃

싸나 아브 알 하싼

겨울은 일찌기 가고
2월에 봄이 왔네
봄정기 눈속에서 서러오르니
나무잎은 고운 옷 떨쳐입으리
장미꽃도 기쁨에 방실 봉오리 열리
논밭에선 밭갈이노래 울려퍼지리

2월 16일

오늘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안으시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2월의 봄날에 탄생하시었다네

이른 봄빛
들판에 넘치네
이 봄빛 받아안고
공장과 농촌에 웃음소리 랑랑하고
기쁨은 집집의 대문을 두드리네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그이의 주체사상 화불마냥 추켜드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승리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네
눈서리 서서히 사라지고
2월의 봄은 질어가네
봄별은 들판에 풍년을 기약하고
꽃들엔 고운 색 물들여주리
로동자 농민의 가슴엔 로동의 기쁨 안겨
주고
혁명가들의 신념 돋구어주네

바람에 나뭇기는 기치인양
2월의 빛발 남북 겨레에겐
통일의 밝은 전망 안겨주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여주네

겨울의 눈서리 어디로 갔나
2월의 봄은 즐거워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빛나는 향도의 별
그 별빛 밝게 빛나니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 담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영광의 송가 높이 부르네

(필자 **김일성** 주의연구 레바논 녀성소조 성원)

온 세상 사람들 당신을 우러르네

조고 데니

김정일 동지
조선로동당의 친애하는 지도자
당신은 인민의 친근하신 아버지
당신은
주체사상을 체현하신 혁명의 현명한 령도자
온 세상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당신을 우러르네

김정일 동지

당신은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참다운
후계자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조선과 온 세계를 밝게 비쳐주시는 향도의 별
당신은 천재적 실천가이시여라

김정일 동지

당신의 이름은 승리와 영광과 행복의 상징
당신의 이름은 자주화된 세계의 상징
당신은 세계의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창조의
거장이지여라

김정일 동지

당신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완전무결한 화신
1945년으로부터 1982년
해마다 맞는 10월 10일
당신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시련과 영광의 나날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들은 당신께서
더욱 용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하노라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영생불멸하라 조선로동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필자는 베닌 아오종기름공장 지배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축하를

윌리드 하싼 아쓰이드

내 머리 들어
저 멀리 지평선에 솟아오른
찬란한 태양과 향도의 별을 봅니다
내 저 멀리 창공에 나뭇기는
기치를 봅니다

그 기치는 조선 **김일성**

그 기치는 조선 **김정일**

주체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 조선

내 거기서 메아리쳐올려오는
조선의 웨침 조선의 웃음소리
조선의 노래를 듣습니다
내 저 멀리에서 올려오는
승리의 함성 기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멀리 동방에는
찬란한 태양과 향도의 별 솟아
전세계를 밝게 비치고
인민들은 그 빛발아래
제국주의와 온갖 원썬을 무찔렀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고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분들은 세계를 비치는 조선의 태양 향도의
별이지라고

나는 말합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인민 동방에 있거니

그는 다름아닌 조선인민이라고

동방에 나뭇기는 조선의 기치
그것은 행복과 영광을 주는
자랑찬 주체의 기치라고

김일성, 김정일

그분들 계시여 자유와 승리가 있고
그분들 모시여 영웅조선인민의 영광 끝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김일성 주의의 기치높이

주체위업 빛내여 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긍지 끝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위업 불멸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백전백승하시리니
조선인민의 행복 끝없습니다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여
초소에 선 우리 수리아 용사들은

김일성, 김정일 그분들을 모시여 복받은

조선의 논밭을 가꾸는 농민들과

웅장한 공장의 역센 노동자들

조선의 자랑찬 대학생들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에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필자 수리아 《알 사까파》 잡지사

편집국장)

조 점

안용근

1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공간이 희뵘히 밝아오더니 어느덧 형체만 알리던 물체들이 하나둘 자기 모양새를 드러내놓았다. 밤새 전조등불빛의 도움으로 내쳐 달려오던 승용차의 형태와 색깔도 인제는 뚜렷이 구별되었다.

까만색의 보통승용차였다. 달리는 준마에 땀발이 내배듯 승용차에는 이슬이 번들거린다.

승용차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앉아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영천지구를 거쳐 청진시를 비롯한 함북도일대의 유색금속생산기지들에 대한 현지 지도를 마치시고 돌아서신 길이었다. 특별렬차를 타고 안전하게 가셔야겠다는 일군들의 의견에 그이께서는 승용차를 타고가면 기차보다 빨리 갈수 있다시며 굳이 승용차에 오르시였던것이다.

웁푼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차가 몹시 들추었다.

우둘투둘한 길우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평양까지 갈 일을 생각하니 부관 차용석의 마음은 한줄만해졌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현지지도의 길에서 몹시 피로한 나날을 보내신 그이시였다.

원래 현지지도 일정에는 어제 벌써 평양에 들어서기로 되어있었다. 래일아침에 있게 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그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유색금속고지점령을 위한 북부지구 유색금속생산부문에서는 걸린 문제가 많아 일군들은 저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하였다.

예상외로 영천과 청진에서 하루씩의 시간을 더 소비하신 그이께서는 부득이 오늘 새벽녘에야 평양을 향해 떠나시였다.

용석은 영천지구가 가까와질수록 그곳 제련소일군들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였다.

그곳 일군들만이라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의 길을 지체시키지 않았어도 그이께서 이처럼 바쁘신 길을 달리시고있지 않을것이었다.

무슨 로측조수치가 어떻다느니 내화벽돌이 딸린다느니 정광이 모자라 자기네는 늘 계획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느니 하는 그러루한 실태를 보고드리느니 바람에 그이께서는 그날 종시 그곳에 머무르게 되시였다. 그리하여 제련소에서는 걸리고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시에 다 풀리게 되었으나 대신 그이께서는 이처럼 바쁘셔야만 하셨다.

용석은 제련소일군들을 나무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따라 전국이 유색금속 고지점령을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다는 부푼 생각이 들어부지중 새 기운이 우쥌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다녀온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광산들에서 받은 한결같은 느낌이기도 하였다.

어데서나 쇠돌, 정광이 입에 오르고있었다. 광산은 광산대로 쇠돌을 찾고 공장은 공장대로 정광을 요구하고있었다.

유색금속 고지를 우선적으로 점령하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자면 광산과 제련소들이 뚫어야 했다. 그래야 다른 모든 부문들도 뚫게 할수 있었다.

용석은 이 거창한 사업을 진두에서 몸소 조직지휘하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뛰어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고매한 성품들을 이번 현지지도의 길에서만도 가슴벅차도록 새롭게 느껴왔었다. 그럴수록 그이의 사업과 건강을 더 잘 보좌 해드려야겠는데 그이께서는 차례지는 토막휴식마저도 매번 뒤로 미루어오시니 부관으로서 안타까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승용차는 해안을 바루 끼고 달리였다.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동해의 검푸른 물결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흰갈기를 날리며 고개 숙여 연연 파도쳐오는 바다 한끝에 뻗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태양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마치 태양이 녹아 대륙과 온 우주에 흩어지는듯 바다도 불타고 산천도 불타고 하늘도 불타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쥐신채 해빛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약동하는 조국의 아침을 환희롭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는 그이의 모습은 붉디붉은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선명히 안겨왔다.

《해돋이는 언제 봐도 장쾌합니다.》

조용히 뇌이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밤새워 일을 보냈건만 피로한 기색이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다.

차창가에는 어느덧 바다가 사라지고 탁 트인 벌이 나타났다. 푸른 전야가 끝간데 없이 펼쳐진 한 가운데로 군청색비단필을 늘어 놓은것 같은 큰 강이 유유히 바다로 흘러가고있었다.

강좌우로 버들방천이 늘어서고 푸른 잔디가 제방쪽너머까지 펼쳐진것이 마치 푸른 주단우에 버들숲을 수놓은듯싶었다.

승용차는 버들가지를 실실이 늘어뜨린 방천을 지

나 쿵크리트다리로 달리었다. 차가 다리를 거의 지나가는데 그이께서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이르시었다. 차는 속력을 늦추며 서서히 멈춰섰다.

그이께서는 다리우에 내려서시었다.

용석은 차를 멈추게 하신 의도를 알수 없어 그이를 따라 황급히 내렸다.

강대안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시원한 해풍, 마주치는 강바람... 버들가지는 끝없이 뒤설레이고 이름모를 풀벌레들은 때를 만난듯 기세 좋게 청을 돋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란간에 의지하시여 다리아래를 유심히 내려다보시었다. 용석의 눈길도 자연히 강물에 쏠리었다.

강물은 부영게 흐르있었다.

《이게 거울천이지요?》

그이께서 여전히 시선을 강물우에 던지신채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그이의 안광에 일순 놀라움 비슷한 표정이 실리시었다가 사라졌다.

란간에서 물러나신 그이께서는 강가에 내려 가보자고 하시었다.

이마를 스치는 버들가지를 제치시며 둔덕을 내리신 그이께서는 물가녘까지 바투 다가서시었다.

철썩, 철썩... 물결은 그이께 그 무슨 사연을 아뢰이기라도 하는듯 잔갈기를 기슭으로 몰아왔다. 그이의 신발이 어느새 축축히 젖어드시었다. 그래도 그것을 못 느끼시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래동안 강물만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천천히 허리를 굽히시여 한 움큼 강물을 뜨시었다.

뿌연 강물이 그이의 손에 담겨졌다.

물은 그이의 손에서 서서히 줄어들더니 나중엔 미세한 돌가루들만 그이의 손바닥에서 반짝거렸다. 그이께서는 손씻을 념을 하시지 않고 다시금 강물우에 눈길을 던지시었다.

《은골광산동무들이 지금 또 다른 선광장을 건설하고있지?》

《그렇습니다.》

은골광산이란 거울천상류에 자리잡고있는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지였다.

다시금 강물쪽으로 시선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또한번 강물을 떠드시었다.

《용석동무, 엮어진김에 쉬여 간다고 예까지 왔던 김에 은골에 들렀다 가지 않겠소? 그러잖아도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 은골로 가시잔말씀입니까?》

분초를 다투는 귀로에서 광물이 아무리 중하다 해

도 그곳에 들렀다 간다는것은 참으로 뜻밖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래일아침 회의가 있습니다.》

《알고있소. 어쨌든 래일새벽중으로 가면 될거 아니요. 정 늦어지면 비행기라도 부릅시다.》

《!》

용석은 대범히 울리는 그이의 말쑼속에 확고한 결심이 어려있음을 알았다.

그 순간 《늘 코끼리 비스켓 먹는격으로 배가 고프다》고 제련소일꾼들이 용석에게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정광을 더 달라는 뜻이였다.

그러니 그이께서 은골로 가실만도 하시었다. 그러나 너무도 급한 걸음이고 또 그곳까지의 길이 험하다 보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참 명섭동무랑 잘 있는지 모르겠소.》

그이께서는 승용차 있는곳으로 오시면서 외우시었다.

《...?》

《생각나오? 은골광산에 우리가 왔을 때 저 강물에 서 산천어잡이를 하던 제대군인말이요.》

그이께서 이렇게 텅겨주시여서야 용석은 몇년전에 만났던 제대군인 최명섭이가 생각났다.

《예, 생각납니다. 충수염수술을 한...》

《웁소. 바로 그 동무요. 만난지도 벌써 몇해 잘 되누만.》

그이께서는 그때 일을 추억하시는듯 회심의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혹시 그를 만나보시려는것인가?)

용석의 눈앞에는 어느덧 그때의 일들이 방불히 떠올라 가슴이 훈훈히 달아올랐다.

2

.....

해빛이 무덤게 내리쬘던 7월의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은골광산에서 좋은 노다지광구를 새로 발굴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로동자지구의 주택과 병원들을 지어주시려 은골을 찾으시었다.

천험의 산밭로 빙 둘러막힌 광산일대에서 집터를 얻는다는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이 비탈, 저 계곡을 지나서도 적합한 장소는 없었다. 그이의 웃은 벌써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수원들은 거리가 좀 멀어도 십여리 떨어진 아래쪽 분지에 집과 병원을 지을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출퇴근길이 멀면 가뜩이나 힘든 일을 하는 로동자들이 더 큰 수고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로력과 화약이 좀 들어도 산락을 따내여 터를 닦자고 말씀하시었다.

터자리가 락착되었을 때는 정오의 해빛이 머리우에서 재글거리는 점심때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을로 가면 로동자 동무들에게 폐를 끼칠수 있으니 점심은 가져온것으로 강가에서 하자고 하시였다.

일행은 개울로 향했다.

숨막힐듯한 무더운 날씨인데도 강기슭은 시원했다.

맞춤한 너럭바위가 있었다. 그우에 점심을 막 퍼려 할 때 굽이진 강아래쪽에서 왁작하니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모두 그쪽에 시선을 보냈다.

살펴보니 7~8명의 청년들이 고기를 잡고있었다.

모닥불연기가 가물거리는데서 녀성들이 서성거리는것으로 보아 필경 어죽을 쑤는것 같았다.

흥취가 도는 일이었다.

《저런, 고기를 잡는게 아니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겨운 시선으로 고기잡는 청년들을 바라보시였다.

결국 점심상을 차리다 말고 모두 고기잡이하는데로 가게 되였다.

정신이 고기에만 팔려있는 청년들은 옆에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물에서 고기를 털어내며 웃고 떠들며 벽적이고 있었다. 더러는 작살로 찌르고 후다닥 던치기도 하는것으로 보아 큰 고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하긴 알을 끌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도 있을 법했다.

《그렇게 마구 던치지 말고 머리를 써야지. 살그니 않으면서 던치시오. 살그니...》

어느 사이 청년들에게로 가까이 가신 그이께서 흥이 나시여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설 차비를 서두르시며 한마디 하셨다.

그런데 그만 일이 망그러지고말았다.

정청한 그이의 목소리가 울리자 어리둥절하여 시선을 이쪽으로 보내던 청년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알아보았던것이다.

고기잡이도구들이 손에서 떨어졌다. 불시에 긴장된 흥분이 청년들의 몸으로 전류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청년들이 강둑으로 마구 달려나오기 시작했다.

물목이 터진듯싶었다.

《아니 동무들, 천천히 나오오. 원 저런, 옷이 다 젖소...》

그러나 그이의 목소리는 청년들의 흥분된 목소리에 어울려지고 말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청년들이 그이를 빙 둘러싸며 걱정을 터뜨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옵게 된 영광으로 하여 청년들은 터질듯한 환희에 휩싸여 어쩔줄 몰라했다.

《그래, 고기는 얼마나 잡았소?》

《얼마 잡지 못했습니다.》

《어디 좀 구경할가.》

그이께서는 고기다래끼를 찾으시였다.

《고기말입니까?》

그들은 일시에 한 청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던 그들의 시선은 강복판에로 쏠렸다. 웬 청년이 유독 혼자 말뚝처럼 서있었다. 아마 그가 다래끼를 책임진 모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몸을 한옆으로 돌린채 어깨만 들먹이고있지 않는가!

청년들은 그의 행동에 의아함을 금치 못해했다.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한것은 그의 손에 있어야 할 다래끼가 없는것이였다. 방금전에 헤엄비다가 물속에 떨어졌 같았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그 청년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청년의 어깨는 더욱 세차게 오르내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청년에게로 다가가시려고 물에 한 발을 잠그시였다.

그러자 청년들이 다급히 그이의 앞을 막아나서며 그 청년을 찾았다.

《왜 그러오? 갑자기.》

《... ...》

《말을 해야 알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이시였다. 그제야 그 청년은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했다.

그이께서는 처음 보시는 얼굴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그 청년은 어푸러질듯 그이를 향해 마구 달려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제가 중사 최명섭입니다.》

《뭘, 동무가 최명섭이라구?! 그럼 동무가 충수염 수술을 받은 그 명섭이란말이요?》

그이께서는 몹시 놀라시며 명섭이를 훑어보시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명섭입니다!》

명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걱정을 쏟고는 맥을 풀며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동무였구만. 한번 만나본다는것이... 여기서 만날 줄은... 반갑소. 건강해졌구만 응!》

그이께서는 대견하시여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그의 어깨를 만져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명섭을 처음으로 보시였다. 하지만 그이의 기억속에 최명섭의 이름은 너무도 생생하시였다.

.....

한해전 여름이였다.

그때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년래의 대강

마로 하여 일시 길이 파괴되고 교통이 마비되어 생산에 약한 지장을 받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 가고계시었다.

들리시는곳마다 만부하, 만가동이었다. 그러다 나니 어디서나 똑같이 전력사정이 긴장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교차생산을 빈틈없이 짜고 들도록 하게 하시는 한편 건설중의 발전소들을 최단 기간내에 조업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었다.

런 사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지방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나가시던 그이께서는 어느날 수력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시다 한 인민군군의소에 들리시었다.

갑자기 그이께서 군의소를 찾으시는데는 그곳 군의소장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것이라고 용석은 생각하였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지방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기 앞서 그이께서는 인민군지휘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어 전연고지 군인들에게 사철 생신한 남새를 보장하기 위한 분수식남새농장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토의한 일이 있었다.

협의회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회의를 필하시기전에 군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청취하시었다.

그이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어서 제기하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선뜻 의견을 내놓는 지휘관은 없었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전국이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도 전연고지 군인들에게 사철 생신한 남새를 보장 해주시려는데 무슨 근심이 있고 부족한것이 있겠는가. 남새를 먹지 못해서도 아니요, 수송이, 팔려서도 아니었다.

먼 후방에서 날라오는 사이 남새가 시들어 제맛을 잃는 그것이 가슴아프시어 소집하신 회의였으니 그들의 가슴속엔 그저 감사와 경모의 정만이 끓어넘치고있었다.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맨 뒤구석에 앉아있던 한 지휘관이 불쑥 일어났다.

《친애하든 지도자동지, 전연지대엔 모기가 많습시다. 그래서 모기약을 공급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좀 납니다.》

순간 회의장안의 모든 시선이 그 일군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들은 《동무도 참 온전한 정신인지 모르겠소. 아, 모기약도 약인데 왜 조금도 냄새가 안나겠소. 그런걸 다 제기하다니. 동무 꽤나 답답하구만.》라고 내쫓는것만 같았다.

회의가 끝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기

약제조에 참가했던 일군들을 모두 부르시어 모기약의 냄새를 맡끔히 없앨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일군들은 분발하여 전투를 벌렸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향료였다. 화장용 크림에 들어가는 량보다 향료가 곱절이나 들었던것이다. 다른 방도를 모색했으나 방도가 트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전사들을 위한 일에 향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걸 가지고 뭘 그러는가, 빨리 생산에 넘겨 공급하도록 하라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친히 세워 주시었다.

지금 찾아가시는 군의소장이 바로 그 향료 문제를 상정시킨 사람이었던것이다.

《그래 전사들이 새로 만든 모기약을 좋다고 합니까?》

《예, 꼭 화장품크림 같은데 모기가 한마리도 달라붙지 않는게 막 신기하합니다.》

《그렇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얼굴에는 더없이 만족한 미소가 어리시었다.

군의소장에게 환자들의 구성상태와 의약품보장상태를 상세히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수력발전소건설장으로 가셔야 했다. 인민경제계획수행에 결정적영향을 미치게 될 이 발전소의 조업은 분초를 다투고있었다. 단 몇분만 당겨 전력을 생산해도 수십, 수백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피를 수혈받은 심장처럼 원기왕성하여 계획과제수행으로 육박해들어갈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소장방을 나서려 하는데 갑자기 방안이 컴컴해졌다.

환히 비치던 전기불이 꺼진것이다.

소장이 얼른 스위치를 다시 켜보았으나 불은 오지 않았다. 급기야 소장은 황황히 전등이며 소켓트를 살펴보았다.

잘못된데가 없었다. 정전인 모양이었다.

소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전등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이께서는 소장의 헤덤비는 행동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음을 감촉하시었다.

《혹시 수술하는 환자가 있는게 아닙니까?》

《네, 최명섭이라구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사동문데 급성충수염으로...》

《그럼 빨리 정전원인을 알아보시오.》

그이께서는 떠나시기를 단념하고 소장에게 재촉하시었다.

소장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로 변전소를 찾았다.

《변전소요? 여보시오. 여긴 군의손데 정전이 돼서

… 지금 급한 환자를 수술… 뭐? 뭐 뭐요?》

번대머리 소장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물살에 밀려… 함지곶전주대가 넘어갔답니다. 총력량이 선로보수에 나서긴 했지만 워낙 물살이 세서… 한시간은 있어야겠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놓는 소장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직 한시간이나 있어야 한다니… 그러면 환자의 운명은…

군의가 수술하다 말고 비지땀을 흘리며 당황해 하는 모양이 눈앞에 보이는듯했다.

그야말로 자연은 무심하다. 그놈의 물때문에 한 생명이 희롱당한다고 생각하니 여간만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대낮에도 밝은 불빛의 도움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수술을 무슨 수로 비내리는 어슬넉에 해내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으기 흥분되신듯 아무 말씀없이 한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비 내리는 창밖을 묵묵히 내다보시었다. 그러시는 그이의 안색은 몹시 흐리시었다.

저기압에 파악 놀리운 방안은 한껏 고요가 깃들었다.

쭈르륵 쭈르륵…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흔들었다. 누구도 그 소리를 의식하지 못한 듯싶었다.

그이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신채 움직이지 않으시었다. 환자의 운명을 구원할 그 어떤 방도를 찾지 않고서는 도무지 움직일상실지 않으시었다.

쭈르륵 쭈르륵… 그 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이럴 때 그이께서 방안의 정적을 깨치시며 소장을 급히 찾으시었다.

《소장동무, 저기 보이는 저 전선대들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앞쪽에 비발에 가리워 알릴 듯말듯 어슴푸레 보이는 전선대들이 가리마처럼 산을 끝추 타고 뻗어있었다.

《3월방직공장으로 갑니다》

소장은 영문을 몰라 얼떨름해졌다.

《저기서 전기를 따옵시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수화기를 드시더니 변전소를 찾으시었다.

《변전소입니까? 저는 **김정일**입니다. 방직공장으로 가는 전기선이 살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수화기를 놓지 말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손에 수화기를 그냥 드신채 소장에게 지시를 주시었다.

《빨리 가까운 통신구분대에 알려 여기서부터 피복선을 늘어 가도록 하시오. 변전소 전공들이 불어난 강물을 건너 여기까지 오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비오는 날 작업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이제 곧 정전을 시키겠습니다.》

《정전을 시키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소장은 그제야 모든것을 알아차리고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그러나 오금이 말을 듣지 않는지 선풍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판인데 왜 그렇게 서있기만 합니까.》

그이의 재촉을 받고서야 정신이 펴쩍 들었는지 소장은 문을 벌컥 열며 뛰어나갔다.

그 순간 번개불이 병긋 하늘을 갈랐다.

찰나에 진회색코트를 펼치시고 한손을 앞섶에 깊이 찌르신채 수화기를 드신 그이의 모습이 근엄하게 안겨왔다.

쨍~짜르릉!

천둥소리조차 목메여 흐느낌을 터뜨리는듯 여느 때없이 크고 둔중하게 들려왔다.

후두둑… 비바람은 마당에 서있는 정자나무를 무섭게 뒤흔들며 창문을 때렸다.

찬바람이 후옥 방안으로 쓸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달대로 단 용석의 가슴을 식히기에 는 너무도 모자랐다.…”

이렇게 되어 그때 최명섭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한 명섭이었으니 그가 어찌 감격의 눈물없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울수 있겠는가.

용석은 명섭의 뜻밖의 행동이 심분 리해되었다.

명섭은 오열을 터뜨리며 몸을 떨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입귀를 실룩거리는 명섭이를 어루쓸어주시며 진정시켜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고맙…》

《됐소, 됐어. 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제도가 좋기때문이지.》

그래, 어떻게 여기에 와있소?》

명섭의 걱정이 좀 누그러지자 그이께서는 다정히 물으시었다.

《제대되어 다른 동무들과 함께 이곳 광산에 배치받았습니다.》

《음, 그래 무슨 일을 하오?》

《마광기를 다룹니다.》

《선광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수술한곳이 도지지 않소?》

《일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라구. 짧은 혈기라고 너무 무리 하지 말고.》

그이께서는 친자식 타이르듯 하시며 그를 너럭바 위위로 데리고 오시였다.

거기에 간소한 점심상이 준비되어있었다.

다른 청년들도 모두 오라 하시여 식사인원은 예상외로 늘어났다.

굳이 사양하던 청년들은 무엇인가 저들끼리 눈짓으로 소통을 하더니 한 처녀가 고기잡던곳으로 잉그르르 달려갔다.

조금 있더니 그 처녀는 김이 문문 나는 남비를 들고 뛰어왔다.

《아니 그게 뭐요?》

그이께서 의아히 물으시였다.

《산천어국입니다.》

처녀의 얼굴은 능금알같이 빨개졌다.

《그래?!》

그이께서 남비뚜껑을 여시였다. 단김이 물씬 솟구쳐올랐다.

구수한 생선국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이 빠진 남비안에는 맛춤하게 익은 산천어 토막들이 장물에 소복이 잠겨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이것 보지. 고추, 파까지 두고… 제법 할줄 아누만 응!》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처녀를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급살하게 생긴 처녀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잠시 망설이더니 남비를 그이께서 앉으신 앞에 정히 놓고는 명섭의 잔등뒤에 재빨리 얼굴을 묻어버렸다.

그이께서는 사양치 않으시고 크고 먹음직한 고기를 골라 청년들에게 나누어주신 다음 자신께서도 맛보시였다.

《어엿, 뜨겁군. 산천어 굵은 냄새에 나갔던 머느리도 되돌아온다는데 별맛은 별맛이요.》

화기에 넘친 분위기였다. 온 가족이 어버이를 모시고 들놀이를 나온 그런 기분이었다....

《운전수동무, 속도 잘 내야겠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승용차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재촉하시였을 때에야 용석은 생각에서 깨어나 뒤미처 차에 올랐다.

갈림길이 앞에 나타났다.

원대에서 뻗어간 나무아지처럼 갑자기 좁아진 3등도로가 엇가락처럼 구불구불 휘어져기도 하고 급한 곡선을 이루기도 하면서 마침내 가파로운 산기슭 자락으로 사라진것이 용석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용석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해져서 파들파들 떠는 속도계바늘끝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은골광산에 도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짓는 선광장부터 찾으시였다.

본궤 맞은 쪽에 있는 이 선광장으로 가려면 산굽이 하나를 에돌아 가야 했다.

그이께서는 지름길을 택하시였다. 산협의 오솔길은 무더웠다. 이깎나무숲이 우거진곳을 지날 때에는 그래도 좀 나았다.

얼마간 걸으시던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앞에 웬 너인이 빨래함지를 인채 대여섯살나는 사내녀석의 손목을 잡아끌며 지청구를 하는것이 보였기때문이었다.

《앤 그저 매탁질이로구나. 너 그 물에 들어가서 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들어갔어. 쪼꼬만게 벌써부터 엄마 속태워?》

《씨- 그래도 물속에 있으면 씨원해... 엄마 왜 자꾸 욕만 하니?》

《아유 이것아, 정 더우면 엄마 빨래하는데 와서 놀것이지 여기가 어데다고... 이담부턴 물이 맑은 저웃쪽에 가서 놀아라 응?》

《거긴 멀어, 다리아파.》

《그럼 엄마가 업어다주지. 야 우리 정철이 용타!》

이쯤 되어서야 어린것이 타박타박 걸음을 옮겼다. 갓 빨아입힌듯한 나이론웃옷이 온통 흙탕물에 얼룩덜룩했다. 걷어 올리다 만 바지가랭이는 후줄근히 젖었는데 걸음을 탈썩탈썩 옮길 때마다 물방울이 푹 푹 떨어졌다.

너인의 빨래함지에서도 물방울은 떨어져 귀밑머리에 흘러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마주 걸어가시였다.

어린것의 손목을 잡고 걸음을 옮기던 너인이 무춤 멈춰섰다.

걸음걸음 그이께서 다가올수록 너인의 가슴은 터질듯 활랑거리고 단김을 쏘인들 얼굴이 뽀뽀 달아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인은 황망히 빨래함지를 내려놓으려고 서둘렀다.

《아, 난 누군가 했더니... 산천어국을 끓여준 잊지 못할 동무로구만!》

그이께서는 몹시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며 무릅없이 너인의 함지를 받들어 내려주시였다.

《그런데 어데 갔다 오는길입니까?》

《저...오늘 대휴여서 빨래를 좀 하고 오는길입니다.》

《집이 어텐데요?》

《저기 보이는 저 마을에 있습니다.》
 녀인이 가리키는 마을은 여기서도 한참 내려가야 했다.
 《아니 저렇게 먼데서... 빨래터는 어딥니까?》
 《저기 선광장 옷쪽에 있습니다.》
 《매번 거기서 합니까? 부엌에도 수도가 있겠는데...》
 《예, 부엌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이 좋아 큰 빨래를 할 때만 가고 여느때는 집에서 합니다.》
 《예-》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애는 몇살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눈이 말뚱말뚱해서 바라보는 사내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물으시었다.
 《다섯살입니다.》
 《다섯살... 푹푹하게 생겼는걸... 가만 낮이 익다?》
 그이께서는 녀인을 유심히 쳐다보시었다.
 녀인은 황황히 눈길을 떨구었다. 녀인의 흰목이 빨강게 물들었다.
 《최명섭이라고...》
 《오 최명섭! 글쎄 어쩐지...아들애가 명섭동무하고 신통하구만.》
 그이께서는 더욱 만족한 웃음을 담으시고 기뻐하시었다.
 《그래 명섭동무 잘 있소?》
 《네.》
 《지금도 마광기를 다루고있소?》
 《아닙니다. 광산대학을 나온 다음부터 작업반장을 하다가 지금은 새로 생긴 선광직장 직장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벌써?! 하긴 군대에서도 단련됐겠다, 공부도 했겠다 문제없지.》
 그이께서는 명섭이를 눈앞에 보시듯 대견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러시다가 생각나시여 물으시었다.
 《참, 새로 짓는 선광장전설은 어떻게 됐소?》
 《내부설비조립을 다그치고있습니다. 며칠이내로 조업하게 됩니다.》
 《며칠이내로?!》
 명섭의 안해를 보내신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걸음을 옮기시었다. 무엇인가 골몰히 사색하고계시었다.
 좀더 올라가니 선광장이 보이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과 선광장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지는 합수목이 나타났다.
 다리를 건드시던 그이께서 무춤 걸음을 멈추시고

다리밑으로 빠지는 강물에 눈을 주시었다.
 걸쭉한 돌물이 흘러들어가면서 강물은 온통 우유빛으로 변해버리고있었다. 기슭에 돌가루가 침전되면서 생긴 가루버럭들이 농마처럼 허영계 앙금으로 앉았는데 초겨울 얼음버개를 런상시켰다.
 그이께서는 사품쳐흐르는 강물을 따라 아래켄쪽에 눈길을 주시었다.
 강을 끼고 수백수천의 살림집들이 늘어섰는데 강턱에는 미역을 감는 아이들도, 빨래하는 녀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고기잡이하는 사람도, 산보하는 젊은이도 없었다.
 하긴 어지러워진 강물에 동할것이 무엇이라.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그이의 시선이 옷쪽에 있는 녀인들의 빨래터에 와서 멎었다.
 둥글넙적한 빨래돌들이 주련이 놓여있는 빨래터는 그이의 시선을 오래도록 끌었다.
 해빛에 반들거리는 강좌우의 돌들은 마치도 빨래하는 녀인들의 모습처럼 안겨왔다.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다.
 《보시오. 이 강과 저 빨래돌들을.
 이렇게 하고도 우리는 생산생산 했단말입니다. 아이들은 미역을 감을데가 없어 투정질하고 녀인들은 빨래할곳이 없어 이 먼데로 오는데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우리가... 이런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저 선광장까지 조업하고나면 이 빨래터도, 한줄기의 맑은 물도 다 없어지겠는데 그땐 녀인들이 빨래는 어데 가서 하며 아이들은 또 어데 가서 미역을 감겠습니까.
 인젠 고기잡던 일도 옛말로 되였습니다.》
 누구도 말없이 흐린 물만 덤덤히 내려다보았다.
 (그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흐린 물이 걱정되시여 로정에도 없는 이곳으로, 그래서 오셨구나!)

용석의 이런 느낌은 숨엄한 생각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이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어쩔수 없는, 풀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나 선광은 강물을 흐리면서 하는것이 기정사실이다.
 광물이 중했기때문이었다. 그것만 얼을수 있다면 강물이 먹물이 된다 해도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왔었다.
 그리하여 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선광이라는 말만 들어도 흐린 강물부터 생각했던것이다.
 무슨 방도든지 찾아 그이의 심중을 가볍게 하여드리고싶었다.
 그러나 도무지 방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생산을 하려면 어차피 물을 흐려야 했고 물을 맑게 하려면

생산을 죽여야 했다.

하지만 물을 맑게 하겠다고 생산이야 어떻게 죽이겠는가.

이래저래 용석의 마음은 무거워만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선광장은 들끓었다. 조업식을 앞둔 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그이께서 테프를 끊어주셨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그이께서 그 일때문에 오셨다는 소문도 돌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선광장 시설을 보여드리는데 최명섭의 기쁨은 누구보다도 컸다.

어떻게 하나 그이의 남다른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자 있는 힘껏 일하느라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이 늘 마음씨오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유색금속고지점령을 위한 당의 대단한 발기에 의하여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못 건설한다는 현대적인 대선광장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동자들과 함께 다그쳐 끝내고 오늘은 조업을 눈앞에 보게 된 것이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건설장에서 무쇠기둥을 박으면서도, 골조를 세우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그이께서 조업테프를 끊어주실 그날에 가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만것이다. 그이께서 오셨던 김에 조업테프를 끊어주시리라는 것을 명섭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설비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다가 《아마 동양에서는 그중 크겠소?》라고 하실 때 명섭의 입은 합지만해졌고 두 눈은 가늘게 찌프려들었다.

그이께서 만족을 표시하신 것이다!

생산공정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었다.

유색금속고지 점령으로 부르는 커다란 구호가 정문맞은쪽 산비탈에 청청한 수림을 배경으로 윤표나게 안겨왔다.

그이께서는 대단히 만족하시었다. 현대적인 설비로 웅장하게 꾸려진 선광장도 나무랄데 없거니와 당과 함께 숨쉴줄 아는 노동계급의 충성심이 더욱 대견하시었다.

구호관을 일별하시고 강가으로 눈길을 주시던 그이의 안색이 금시 흐려지시었다.

용석은 대뜸 그이께서 아까 보신 흐린물과 빨래터가 생각되시어 그러신다고 느껴졌다.

《명섭동무, 이 선광장의 폐수는 어디로 빠집니까?》

《폐수말입니까. 저앞으로 빠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있는 명섭의 대답은 창창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물이 흐려지겠소?!》

《... ..》

명섭은 그이의 안색을 우려했고서야 물이 흐려지는 일때문에 근심하고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명섭동무, 동무는 안해가 어디서 빨래를 하는지 알고있소?... 아들 청철이가 어디서 미역을 감으며 노는지도 모르지?...》

《...?》

《동무도 그렇고 이곳 노동자들도 그렇고 다 생산 생산 하기만 했지 물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명섭동무가 직장장으로 임명됐다가에 생각을 좀 달리 할줄 알았는데... 일군이 되자면 사람이 중한것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선광장의 조업으로 막대한 정공은 얻을수 있으나 대신 물은 영 쓸모없이 될것입니다.

물이 흐려지는것이 무슨 큰 대수냐 하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오늘은 흐려진 강물이 고기를 내쫓지만 래일은 이 일대의 농사를 망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이겠습니까.》

잔잔한 내물처럼 울리던 그이의 말씨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대하로 되여 광광 홍벽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이께서는 여기서 말씨를 끊으셨다가 머리를 떨구고있는 명섭을 바라보시며 다시 이으시었다.

《선광장조업을- 미루자는겁니다.》

《!》

명섭의 숙였던 머리가 번쩍 들리었다. 놀란것은 명섭이만이 아니었다. 모두들 놀라운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물론 선광장조업도 급합니다. 그러나 물을 맑게 할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선광장 조업식을 합시다.》

그이의 말씨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져있었다. 모두가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명섭의 얼굴은 별결게 되다못해 거뭇게 질려있었다.

4

광산기술일군협의회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명섭이네가 제기한 침전못에 의한 돌물처리안은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선광장에 들리셨다가 광산지휘부로 가시기 앞서 노동자동무들도 지혜를 모아 물을 맑게 할 방도를 생각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고무된 그들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내놓은 방안이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조업식때문이 아니라 흐린 물을 맑게 하시려고 광산을 찾으셨다는 소식은 곧에 쏘 퍼져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은 물론 가정부인들과 아이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나름의 방안을 들

고나왔다.

그중 타당하고 현실적인것이 바로 명섭이네가 제기한 방안이었던것이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좁은 외골안에 침전못을 어디다 만들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말이 없었다.

그이의 시선이 명섭의 얼굴에서 벗었다. 순간 명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가지 제기할수 있습니까?》

《제기하시오.》

《우리 광산마을을 웃쪽을 언제처럼 막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처럼 막겠단?》

《예, 그러면 큰 침전못이 생기는데 얼마든지 물을 맑게 할수 있다고봅니다.》

명섭은 그이께서 자기 말을 심각히 듣고계신다는 것을 알고 신이 나서 설명했다.

용석에게도 그것은 심분리해가 되는 문제였다.

방안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가만, 내 하나 묻겠소》

그이께서는 도로 앉으려는 명섭이를 바라보시였다.

《그래 그것을 침전못으로 얼마나 쓸것 같소?》

명섭이는 멍청히 서서 한동안 속구구를 해보 있다.

《1년은 나마 쓸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그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말하던 명섭이는 아래쪽으로 마을들이 있다는것이 생각나자 중등무이 하고말았다. 그이상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그였다.

《그다음엔 또 아래쪽을 막겠단말이지. 그렇게 한 3년 지나면 온 광산마을이 버력에 파묻히겠는데 어떻게 작정이요? 이 좁은 골안에 버력가루를 뽕개칠데도 없지 않소.》

그이께서는 난처해하신 표정으로 웃으시였다.

명섭은 열적게 웃으며 주저앉고말았다.

그이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깨우쳐주시였다.

《동무들, 우리는 하나를 건설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데로 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땅위에 창조되는 모든 재부는 인민을 위한것이고 후대들을 위한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억만재부도 인민의 리익에 저축될 때에는 하늘로 날려보내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로 인민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녕부터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거울천기슭에는 굽이마다 마을이 있고 우리 인민들이 살고있는데 그들에게 물고생에 그런 부담까지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앞으로 물에 의한 선풍방법만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선풍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진

적인 선풍방법을 연구하여 조국의 모든 강물을 맑게 할 생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좀더 생각해봅시다.

이자 영섭동무가 언제를 막고 침전못을 리용하자는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미흡합니다. 좀더 통이크게 생각해봅시다.

나는 이런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이께서는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시였다.

그러시다가 지도를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자연지도가 그이께서 앉으신 책상우에 놓였다.

모두는 폭풍전야의 고요를 의식하듯 숨을 죽이고 그이를 우려했다.

그이께서는 확대경을 드시고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하시였다.

은산과 벼락봉을 끼고 흘러간 거울천상류의 지형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러나 보이는것은 진토색으로 표시된 험산뿐이였다. 우를 보아도 산, 아래를 보아도 산, 옆을 보아도 산이였다.

용석이도,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실망했다. 혹시나 하고 찾았으나 개활지대나 깊은 골짜기가 주위에 없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도의 한점을 확대경으로 오래도록 응시하고계시였다.

그곳은 새 선풍장이 자리잡은 벼락봉이였다. 렌즈의 초점은 그 산의 정력을 밝히고있었다.

《나는 이 산중턱에 맞굴을 뚫어 선풍장에서 나오는 흐린물을 벼락봉너머로 넘기자는것입니다. 모든 선풍장에서 나오는 흐린 물을 몽땅말입니다.》

산이 커서 굴뚝기가 어렵겠지만 그대신 방대한 침전못을 얻을수 있습니다.

보시오. 이 일대의 이 많은 골짜기들이다 침전 못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백년은 쓸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무들 생각엔?》

모두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화등잔처럼 커진 눈들을 흘렸다. 굴을 뚫는다는 그이의 말씀에 넋을 떴을 사람들 같았다. 고작해야 1년밖에 쓸수 없는 불합리한 침전못으로부터 순간에 수백년이상 쓸수 있는 리상적인 침전못으로 전환된 놀라운 기적앞에 그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이윽해서야 회의참가자들은 주먹으로 손바닥을 내리치며 그이의 제안에 환성을 올렸다.

녀성로동자들은 손뼉을 치며 어린애들처럼 좋아어쩔줄 몰라했다.

회의장이 터질듯 열광적인 박수가 터졌다.

환희와 흥분은 끝날줄 몰랐다.

그러나 그 다음순간 그 일이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생각이 맑은 날 구름끼듯하여 점차 장내가 조용해졌다.

큰 산을 관통하여 물길을 낸다는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것이 누구에게나 알려졌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고 당장은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것 같았다.

큰 전광장을 세워둬서 보게 되는 손해, 굴을 뚫는 데 들일 로력과 자재... 그 량은 막대한것이였다.

갑자기 몇년전 일이 떠올라 용석은 눈을 꼭 감아 버렸다. 새로 만든 모기약을 전사들이 좋아 하는지 알아보려 군의소에 들리셨다가 뜻밖의 정황으로 죽음에 처했던 명섭이를 구원하여주신 일이 화면처럼 나타났다. 그때의 그 일은 얼마나 가슴쓰겁게 하여 주었던가. 그런데 유색금속고지점령을 위한 전원회의 직후인 오늘에 와서는 또 어떤 격동적인 일이 벌어지고있는것인가.

생산에서 기적을 일으키자는것이 아니라 생산을 중지하자는 문제가 토의되고있는것이다.

용석은 자신이 지금 주체못할 흥분에 휩싸여있음을 알았다. 인민을 위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바닥도 없고 끝도 없는 뜨거운 마음이 온몸을 불태우며 그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대고 말하고싶고 웨치고싶게 하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딱히 짚어 말할수 없었다.

실버를 휘날려진 시원한 강변에서 한웅큼 떠드신 물에 나의 행복, 내 자식의 래일, 우리 인민모두의 미래가 약속되어있을것이나 아닐가.

어죽을 쑤느라 물물 피여울릴 한줄기 파르스름한 연기도, 흰 빨래 행구어내는 녀인들의 미소지을 모습도, 남녀청춘들이 랑만적인 생활도 그 물과 잇닿아있었다.

그 물은 퇴성이 울부짖던 그날, 꺼져가는 생을 두고 오래도록, 점도록 비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품이기도 하였다.

그 품이 바로 내가 안겨있는 품이고 우리 인민 모두가 안겨사는 품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는 인간사랑의 결정체 이시다.

그이는 인민을 위한 일에 돈을 생각지 않으시며 지어 그 가치도 무시하신다.

때로는 대포로 참새를 잡는격의 약차한 손실을 보기도 하셨고 때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천만재부를 밀어놓으시기도 하셨다.

언제나 그이의 사색의 중심에는 사람이 놓여있었기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인간이 창조한 억만재부와 사회, 자연과 세계를 보시는 그이의 초점은 언제나 한곳-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

원래 초점이란 한점이 아니겠는가!

그 점을 벗어난 어떠한 점도 그것은 벌써 흐린 초점인것이다.

세상에 흐린 초점을 가지고 세상만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

이런 느닷없는 생각으로 용석의 심장은 세차게 맥박치였다.

어찌하여 이 순간에 갑자기 초점생각이 떠올랐는지 몰랐다. 그저 그이를 모시고 오래 지내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굳혀진것이 피땀 뇌리를 친것 같았다.

용석은 강렬한 느낌과 숭엄한 생각을 안고 오래도록 그이를 경건히 우러렸다.

회의가 끝나자 용석은 곧 평양으로의 출발준비를 다그치기 시작하였다. 떠날 시간이 너무도 지체된것이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고있었다. 이제 떠난다 해도 평양까지 가려면 래일새벽에 들어설지말지 하였다. 밖으로 나온 회의참가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바래드리려고 모두 한곳에 몰려서있었다.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모두 얼굴들이 벌겋게 상기되어있었다.

노루꼬리만하던 해가 벼락불너머로 기울자 커다란 그림자가 은골지구를 덮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벼락봉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결심을 내리신듯 회의참가자들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아무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왔던 곁에 굴뚝을 장소를 보고 갑시다. 해도 기우는데 제격 갔다옵시다.》

그이께서는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는 용석에게 랑해의 미소를 보내시며 성큼 걸음을 옮기시였다.

용석은 한동안 그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그이께서는 휴식도, 주무심도 잊고 고스란히 인민을 위한 사업에 바쳐오고계신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였다. 그이를 모셔온 허구많은 나날 보아온것은 인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지혜와 정력과 의지였다.

어쩌면 그리도 자신을 잊으시는지... 국사의 다난 다사한 일 얼마나 많으랴만 인민을 위하는 일에서는 언제나 타협을 모르시였다.

용석은 뜨거워오는 생각을 안고 그이를 따라 벼락봉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저쯤 앞에서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명섭동무, 이다음에 우리가 오면 또 산천어국을 끓여보자구. 그땐 내가 어죽을 쑤어주지. 어때?... 하하...》

그이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골안에 들쭉했다.

모두 그이를 따라 즐겁게 웃었다. 그러나 눈에서는 이슬기가 맺혀 번쩍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관목을 헤치시며 앞장서서 산으로 오르시였다.

한걸음한걸음 오를수록 확대경의 렌즈에 비쳐진 그 점이 가까와졌다.

오를수록 산은 낮아지고 광산지구는 아득히 내려다보였다.

무한대한 푸른 창공이 머리위에 펼쳐졌다.

2월에 사는 꽃

로응렬

세상에 뿌리내릴 수많은 땅을 두고
천만꽃 피어나는 봄계절 두고
무슨 자연 소중하여
만병초야,
너는 백두산의 눈속에 피었느냐

백두산의 2월을 빛내고저
정갈한 송이송이에
넘치도록 사랑담고 향기실고
신비로운 꽃바다 펼치었구나
조선의 화창한 봄이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노라
눈보라 이겨내며
누리에 한가득 향기 풍기는
변함없는 그 모습 미더웁구나

아, 만병초야
너처럼 깨끗하고 굳세게
너처럼 아름답고 변함없이
나도 2월을 빛내는
조선의 만병초되리!

어머니당앞에

김 선

모진 세월
내 너무도 일찌기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살뜰한 부모의 사랑 모르고 자랐더라
어머니의 다심하고 살뜰한 사랑
아버지의 엄하고도 속깊은 사랑 안다면
그것은 내 자라면서 글에서 읽은것
그래서 책을 덮고 명상에 잠겼더라
-어머니의 살뜰한 사랑이란 그런것이였구나
-아버지의 속깊은 사랑이란 그런것이였구나

학원의 요람속에 잠들 때
모포깃 여머주는 과외생활교원을 두고
누나의 정성을 생각했고
생일상 차려주는 식당어머니를 두고
다심하고 살뜰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렸어라
장난하다 벗어진 무릎의 상처마저 치료해주는
간호원누나를 두고
나는 느꼈어라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의 따뜻한 사랑의 뜻을...

그러나 그 사랑
아무리 살뜰하였어도
갓난애기 시절부터
젖을 물고 익혀온 어머니의 그 얼굴은 아니였어라

내 철들어
명절날이나 휴식일

학원의 창가에 서서
아들딸 손잡고 떠들썩 웃으며 걸어가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두고
그처럼 나를 사랑해줄
세상떠난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했더라

허나 내 총권 전사의 생활을 거쳐
로동당원이 되어서야
부모의 사랑도 대신할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정답고 뜨거운 사랑
가슴뜨거이 깨달았어라

당의 품은 진정 참된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
애무적인 어머니의 육친적사랑과도
엄격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도 비길수 없는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
그 품이 육체적생명만이 아닌
인간의 참된 정치적생명 안겨주었어라

정처없이 떠다니던 고아들을
학원의 요람속에 안아키우신 품
아버이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들이 되라고
분계선 최전선의 전호가에 세워
계급의 예리한 눈을 띄워주신 품

우리들의 생명 영원히 빛내주시려고
로동당원의 정치적생명 안겨주시고

꿈같은 대학의 대리석층계를 열어주신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그 길에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있고
혁명가의 고귀한 생이 빛나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이 세상 끝까지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회적인간의 가치를 지니였어라
아, 당의 사랑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 더 많고
친어머니도 주지 못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 다시금 안겨준
사랑
아버지의 엄격성으로 대신할수 없는
정치적생명의 영원한 보호자의 사랑

그 사랑의 품은
피를 나눈 부모의 사랑도 대신할수 없는 뜨거운 품

갓난애기 시절 젖을 물고 익혀온
어머니의 그 얼굴도 대신할수 없는
자애롭고 인자하신 영상

아, 부모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수 있어도
당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진리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슴깊이 새겨지노라
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그 사랑 저버릴 때
그것은 벌써 의리마저 저버린
내 버림받은 인간이거니
언제나 당의 참된 아들이 되리라
어머니당앞에
언제나 부끄러움 없는 아들이 되리라

일찍 부모 여의고 다하지 못한
효성의 그 마음까지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 있다면 그것도 다 바쳐
어머니당을 받들어가리라
살아있는 때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이 세상 떠난대도 대를 이어 영원히 영원히

농촌테제의 찬란한 빛발이여! 외 1 편

서진명

흰눈 소복히 들쓰고
땅도 단꿈을 꾸는
2월의 이 아침
들길로 트랙포르 물고 달리며
나는 더 뜨겁게 느끼여라

해빛에 실려
해빛보다 찬란히
서기어린 별 가득
이 가슴 가득히
비쳐드는 농촌테제의 빛발을

구수한 거름냄새 머금은
별바람 아직 차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농촌테제의 빛발을
앞길 밝혀주는 이정표로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으로 가슴설레고
그날의 환희로 심장 뛴뛰여라

아, 영광의 그날로부터 20년
길지 않은 세월이 흘렀어도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얼마나 놀라운 전변이
이 땅에 펼쳐졌던가!

벌이여, 너도 못잊으리라
기계로 모를 내는것이 꿈만 같아
눈물을 머금던 그날의 일을
김매기도, 가을도 기계로 하라고
갖가지 기계들을 덤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고마워
종합적기계화의 노래속에
땅도 사람도 들먹이던 그 나날을

못잊으리라, 축복받은 마을이여
별무리처럼 유아등 깜빡이는 들길
떠들썩 웃으며
과학지식보급실로 가던 그 저녁길과
문화회관 불빛은 창가에서
밤깊도록 울려나던 처녀들의 노래소리를

아, 바뀌우는 농사절기를 벌에서 다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화확화의 단비
공업화의 노래속에

쌀을 내는 공장처럼 전변한
풍년벌이여!

낮이면 도시의 문명을 싣고
빠스가 달려오고
밤이면 텔레비존으로
도시의 문명이 흘러드는
문화주택 준비한 마을이여
너도 노래하라

세세년년 키쫘구는
풍년날가리로
도시를 닳아
도시처럼 변모하는 새 모습으로
농촌테제의 생활력을
그 위대한 승리를 이 땅에 새긴
전변의 그 해와 해를 넘어

마주오는 이 땅의 래일은
또 얼마나 휘황할것이라!
전 인민적소유의 넓은 길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은

또 얼마나 힘차게 찍혀질것이라!

농촌테제의 완전한 승리를 노래할
공산주의 서사시의 새 장을 번지듯
이 해에도 내 고향벌은
조선의 농촌은
도시의 지원, 공업의 방조속에
전변의 새 장, 승리의 새 장을 펼치려니

희망과 신심에 넘친
이 가슴의 흥을 안고
프락토르 통통 쇠북을 울리고
바람막이바자 둘러친 모관에선
벌써 풍년쌈이 움트는듯
꿈도 한껏 부푸는 이 아침

달리는 프락톨의 전시창너머
나는 보아라
해빛에 실려
해빛보다 찬란히
공산주의 먼먼 지평선까지 밝혀주는
농촌테제의 위대한 빛발을!

풍년농사계절은...

비료도시너머 안겨오는 들판도
자우룩한 눈발속에 묻히여도
아지랑이 피어나는 들판으로
관개수 출렁이며 흐르듯
배관따라 비료가 될 물이 흐르네

봄맞이로 흥성이는 들길에 선듯
발걸음 절로 빨라지는 구내길
떠밀리워 기대걸을 떠났다가도
공장정문에 다시 들어서는 사람들
달아오른 얼굴들에 눈이 내리네

농민들과 농사를 함께 짓는 마음으로
비료산 높이하신
수령님의 간곡하신 교시를
자나깨나 못잊는 불같은 마음들

눈속에 숨어서 봄이 온다고
뛰쳐일하는 그 열정
화성로의 불길로 타고르코
살찌울 온 나라 벌을 안은
후더운 그 손길들
한껏 부풀어오른 합성탑들에 어린듯

농장벌에 태동하는 봄의 숨결
증기의 흰 김으로 십리구내에 피어나고
강기슭의 새땅을 일구며
복눈을 맞는 프락토르운전수의 꿈
비료산에 피어나네

-드르릉 드르릉
비료를 싣고오는 콘베아소리
천정기증기들의 전기종소리
은은히 들려오는 봄우뢰처럼
들판을 가득 채우는 종다리 노래처럼
공장구내에 차넘쳐 가슴에 젖어드는
봄노래, 봄의 노래가 여기에 있네

아, 만풍의 가을을 당겨오려는
그 한마음이
비료를 만제한 렬차의 기적소리로 울리는곳이여
테제의 빛발을 안은 로동계급들로 하여
겨울의 눈도 봄눈이 되어 내리는 비료도시
풍년농사의 계절은 절기에 앞서
공업화의 열풍을 타고 시작되고있네

아, 신갈파! 외 1 편

송명근

수수한 차림으로
누구도 모르게
어머님께서는 여기에 오셨습니다

흐느끼며 하소하는
겨레의 설음을 안으시고
원한의 강, 눈물의 강
압록강 거센 흐름우에
자옥도 없이 넘나드셨습니다

달도 없는 그 밤에
별도 없는 그 밤에
장군님의 해발을 안으시고
굽이굽이 경선령밑의 나루를 찾으시여
한숨만 찢던 물레방아간을 찾으시여
가고오신 자옥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 신갈파
아니 가신곳이 어디랍니까
어머님의 뜨거운 숨결이
아니닿은곳이 그 어느곳이랍니까!
다만
줄기차게 뻗으며 숲처럼 일어선
조국광복회조직망도
어머님께서 남모르게 꾸리시였고

비밀적정자료도
유격대 원호물자도

남 다 잠든 그 새벽 질은 안개 헤치시며
백두산으로
장군님품으로 보내셨으니 ...

보천보며 간삼봉의 승리를 받으시여
조국광복의 려명을 부르시여
어머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도
세상에 알려질수 없었습니다

이 땅은 어데 가나
원호물자를 건넌던
비밀나루터
불같은 뼈라를 밀던
비밀공작장소들...

오직 장군님뜻을 받드시는 길에
누구도 모르게 찍으신 자옥이기에
누구도 모르게 쌓으신 업적이기에
아, 천만대에 소리높이 전하고싶은
인민의 념원이
이 땅을 통채로
김정숙동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받들어올렸습니다!

아, 신갈파
오늘은 이깎숲이 설레는 소리도
어머님의 위업을 전하는 속삭임
압록강 여울물이 엮는 노래도
못잊어 목메이는 녀전사의 노래!...

층계를 오르며

-신갈파 광선사진관에서-

조심히
삐걱이는 소리도 없이
광선사진관 2층에 오른다
나무층계를 딛고...

사진 한장 찍으신적 없으시여도
어머님께서 자주 오르시던 이 층계
한사람 또 한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손잡으시여
광복의 길로 이끌어올리신 이 층계
한 번 딛고 오르면
그대로는 내린 이 없어라

두터운 창가림 드리운 암실결에
조국광복회원들을 불러앉히신 어머님
얼마나 많은 심장들을 달쿠셨던가
장군님 받드는 한길에서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 그 심장들을...
어머님께서 밤새워 밀어내신

뼈라몽치를 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층계를 내렸던가
싸움의 먼길 웃으며 떠났던가!

갈길 몰라 가슴치던 산촌의 별목부
 화승총과 함께 애국의 마음을
 땅속에 묻었던 민족주의자도
 한사람 또 한사람 손잡으시여
 이 층계로
 새 삶의 높이로 이끌어올리신킵

답시

어둠을 찢는 총소리 호각소리...
 인민군정찰병을 찾아 밤새도록
 피눈이 되어 날뛰던 원썬놈들
 산기슭의 외딴집을 포위했다

의식을 잃은채
 아래목에 누워있는 중상자
 그가 누구인가고 놈들은 위협했다
 주인 어머니와 딸
 철부지소년을 프락에 끌어내여

시꺼먼 총구앞에 새별눈을 반짝이며
 한발자국 나선 소년
 언젠가 인민군대아저씨들앞에서
 노래부르던 그 목소리로
 당돌하게 대답했다
 -뒤산에서 나무하다 굴러떨어진
 우리 형인데 뭘 그래요 씨!

간악한 원썬들은 두말없이
 빨간 넥타이 붙타던 소년을
 사형장에 끌어냈다...
 그다음엔 초연서린 그 총구를
 동생의 이름 부르며 달려가던
 처녀에게 돌려댔다
 -그래도 너의 오빠가 옳은가?

전선원호미를 이고지고
 고지로 달려가던 그때처럼
 저고리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총창끝을 맞받아
 처녀는 서슴없이 나섰다
 -나의 피를 뽑아보라
 오빠의 피와 똑같지 않은가

어머님의 뜨거운 손길에
 나도 이끌려 오르는듯
 광선사진관
 높지 않은 2층 층계여
 한번 딛고 올라선 이 마음도
 백배로 불타지 않고서는
 아, 그대로는 내릴수 없어라!

한마디

김기호

피에 주린 원썬들은 또다시
 꿈많은 처녀를 사형장에 끌어냈다
 그리곤 원한서린 그 총창을
 딸의 이름 부르며 달려가던
 어머니에게 돌려댔다
 -그래도, 너의 아들이 옳단말만인가?

아, 아직은 낮도 익히지 못하고
 말 한마디 나눈적없는
 이름모를 그 전사가
 언제 이렇듯 한가정 한혈육으로
 남모르게 태어났던가

앞서간 자식들의 기특한 미음
 가슴속에 고이는 육친의 정으로
 눈시울 적시던 어머니
 반백의 귀밑머리 조용히 쓸어넘기며
 자식들이 지켜낸 그자리에
 단호히 나섰다
 -개놈들아
 아직도 몰라서 묻는가
 귀여운 막내자식과도
 꽃같은 딸자식과도 바꿀수 없는
 내 맏아들이다!

오, 총칼로도 죽음으로도
 갈라놓을수 없는 그 사랑앞에서
 원썬놈들 몸서리치며 물러갔을 때
 쓰러졌던 어머니 다시 일어나
 숨진 자식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애들아, 고맙다
 너희들의 형이며 오빠이며
 더없이 귀중한 우리 혈육인
 인민군대가 구원되었다

론설

공산주의인간학의 새 력사

오승련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자기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으며 주체문학예술의 새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는 기념비적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다.

당중앙의 은혜로운 해발을 우러르며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주체의 문학예술의 이 영광스러운 력사는 이 땅우에 공산주의인간학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자랑찬 로정이기도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어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체시대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참다운 인간학의 높은 경계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인간학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문학예술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을 가장 선차적인 사상미학적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력사의 새 시대인 주체시대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제기한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문학예술은 시대와 인민들의 생활의 반영이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만이 력사의 시련을 이겨낼수 있으며 자기의 생활력을 유지할수 있다.

선진적문학예술의 력사는 발전하는 시대와 보조를 같이하려는 지향으로 일관되어있다.

매개 시대 문학예술의 진보적성격은 그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얼마나 진실하고 깊이 있게 반영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시대는 위대한 주체시대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처럼 인민대중의 각성이 높아

지고 력사적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인류력사발전에 미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영향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요구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기본 흐름으로 되고있다.

민족의 자주성,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처럼 절박하게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주체시대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장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만 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에 해답을 줄수 있고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도 도도히 굽이쳐가는 우리 시대의 본질을 심오하게 밝힐수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또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만 자주성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다.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은 실로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리하여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보고있으며 가장 큰 힘과 신념과 용기를 얻고있다.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주는것은 문학예술을 주체의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문학이 인간학이라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통하여 인간문제를 내세우는것으로 하여 인간학으로 되며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문학이 인간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는 어떤 문제를 진정한 인간문제로 보는가 하는것이다. 진정한 인간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일하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알수 없으며 생활과 투쟁에서 뚜렷한 목적과 지향을 가질수 없으며 신념과 용기를 가질수 없다.

진정한 인간문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이다.

그것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존재자체와 관련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므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정치적생명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생명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자주성을 이야기할수 없다.

인간의 자주성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에게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존엄있고 보람있게 살수 있게 하는 생명이다.

정치적생명이 없거나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생명은 보존할수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육체적생명은 한계가 있으나 정치적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다.

육체적생명이 개인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면 정치적생명은 사회와 집단과 함께 영원히 살아남는다.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은 자주성을 담보하는 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문학예술은 사람을 사람으로 되게 하는 근본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 데까지 깊이 들어감으로써만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밝히는 심오한 인간학으로, 인간생활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답을 주는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수 있다.

정치적생명문제를 내세우고 푸는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의 귀중함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그들을 개인의 이익과 일신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주체의

참다운 혁명적인생관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사감들을 생활에 대한 높고 아름다운 리상, 미적사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고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보여주며 반대로 사회생활을 외면하고 개인의 향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생활을 가장 추악하고 비렬한것으로 확인한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보람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생명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것은 참으로 사회주의문학예술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인생관과 생활에 대한 높은 미학적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 인간학적풍격을 높일수 있게 한다.

선행한 문학예술은 인간문제를 서로 다르게 제기하고 해결하였다.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특히 계급들, 사회정치적사상과 도덕윤리적견해들이 크게 작용하였다.

사회의 서로 다른 계급들은 자기 계급의 지향과 도덕윤리적견해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각이하게 해석하였다.

이리하여 지난시기 《도덕적자아완성》과 《사랑》, 《모성애》와 같은 각양각색의 《인간문제》를 설교한 문예조류가 대두하였으며 중세기적금욕주의와 향락주의 등을 표방하는 반동문예사조들이 범람하였다.

그러나 이 각이한 문예조류들은 그 표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순수 인간문제의 추상성, 허황성을 폭로하고 인간문제를 사회생활과의 련관속에서 제기하였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도 모든 인간문제의 본질이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다는것을 밝히지 못하였다.

문학예술을 진정한 인간문제를 제기하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문예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생산기술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문학예술을 그 어떤 생산기술공정에 대한 해설로 되게 하는 온갖 비사실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사멸적인 신변잡사에 매달림으로써 문학예술의 정치사상적풍격을 저락시키고 그 인간학적기능을 극도로 마비시키는 온갖 저속한 문예조류에 대한 치명적타격으로 된다.

오늘 반동적부르조아문학예술은 인간문제와 인연이 없으며 그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인정세태적인 문제, 사회와 담을 쌓는 유폐된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이고 순수 개인적인 문제를 정면에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적의식을 마비시키고있으며 문학예술을 유한계급의 한낱 소일거리로 전락시키고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문학예술에서 인간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그 사회적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부르조아지들의 반동적목적을 반영하고있으며 다른편으로는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과 계층들의 저속한 취미와 말세기적생활풍조를 반영한것이다.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것은 실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참다운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 인간학적풍격을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것으로 하여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그 높은 풍격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그 주제와 생활소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문제를 제기하는것으로 하여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또한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을 훌륭히 담보하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이에 대한 가장 빛나는 범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에서 어머니 일가, 《꽃파는 처녀》에서 꽃분위,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갑룡이가 제기한 문제, 그것은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인공들의 다양한 생활과 그들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심오하게 밝히고 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길에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또한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신변잡사나 생산기술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온갖 비사실주의적이며 저속한

경향에 결정적타격을 주었으며 인간과 생활이 제기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심오한 인간학으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로동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생산기술적인 문제속에 인간문제를 가리워버리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정치 사상적, 문화도덕적 관계를 밝히게 되었으며 그 인간학적특성을 훌륭히 살리게 되었다.

장편소설들인 《평양시간》, 《로동가정》과 장편소설 《병사의 고향》 등은 창조적인 로동의 미와 량만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로동에 대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 로동속에서 맺어지는 애정윤리적인 문제들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이 작품들은 특히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사람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문제로 깊이있게 제기함으로써 인간학적풍격을 높이고있으며 그 사상미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이 인간과 생활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주체의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사람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참다운 인간학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의 생동한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고상한 풍격을 갖추수 있는 뚜렷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

문학이 인간학이라고 하는것은 인간문제를 제기하는것과 함께 그것이 참다운 인간전형을 그리기때문이다.

문학은 참다운 인간전형을 그림으로써 인간을 진실하고 심오하게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으로 된다.

문학이 인간을 그리면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는 어떤 인간을 참다운 인간으로 보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만 문학은 인간학으로서의 높은 풍격을 갖추고 그 사회적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또한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서만 옳게 밝혀질수 있다.

어떤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의 가치와 의의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자주적인 인간을 그리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주체의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자주성이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해명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리해하는데서 실로 하나의 혁명적전환이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성의 하나가 자주성이라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온갖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인간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사회적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그리면서 그의 사회계급적본질을 밝힌것은 인간성격창조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진을 의미하였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인간의 사회계급적본질을 밝힘으로써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인간성격을 그리거나 생물학적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리는 온갖 반사실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문학예술에 타격을 주었으며 인간성격의 전형화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지난날의 그 어떤 진보적인 문학예술도 인간을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전형화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심오하고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인간을 그리면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없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해명에 기초하시여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문학 예술이 진정한 인간학으로 발전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의 문제를 제기하는것과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에 가장 주되는 관심을 집중하였다.

우리 문학예술의 중심에는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주체형의 혁명가, 이 시대적전형은 문예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인간전형이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선진인류의 문예사상이 모색하고 탐구하였으며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였다.

인류문예사는 일찌기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체현하고있는 그러한 사상정신적높이와 성격적미를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그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성격을 내세우지 못하였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새로운 인간전형이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참다운 인간, 공산주의혁명가들이기때문이다.

주체형의 인간이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있는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들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자세와 립장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철저한, 수령과 당의 참다운 혁명전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들의 빛나는 전형을 우리는 예술영화 《군대책임비서》, 《언

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의 그
잇을수 없는 주인공들의 모습들에서 그대로 본다.

영화의 주인공들의 가슴속깊이에 귀중히 간직된
가장 진실하고 순결하고 공고한 사상감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
직된 충성심이였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체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혁명적수령관의 빛
나는 전형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은 참으
로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가장 진실하고 순결
한 충성심이였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과 당
에 대한 끝없이 깨끗하고 진실한 충성심을 떠나서
영화의 주인공들의 그 아름답고 고상한 성격적미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으며 그들이 발휘하는 백절불
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그들의 위훈을 리
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
으로, 의리로 간직하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사람
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엄있고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값높은 삶의 뚜렷한 목적
이 있고 언제나 힘을 주고 신심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마음의 기둥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
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은 인간이 가장 존엄있고 아름
답고 보람차게 살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
과 의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형을 그리
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주체의 참다운 인간학
으로 되게 하기 위한 확고한 방도로 된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참다운 전형을 떠나서 우리 문
학예술의 새로운 인간학적특징을 말할수 없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문
학예술은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싸워야 하는가
에 대한 그 심오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준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
대의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
상감정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성격이다.

그것은 그들이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으
로 삼고 그 시련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참다
운 혁명가들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
적세계관을 지닌 우리 시대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혁
명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주체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인생관

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가장 아름답
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한 인간의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우리 시대는 물론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
론, 정신도덕적풍모와 활동방식을 지닌 사람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영원한 주인공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또한 그
들의 성격을 산 인간으로 그럴데 대한 사상을 천명
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인간학적특징을 더욱
살릴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산 인간을 그려야 한다.

**산 인간을 그려내지 못한 문학은 참다운 인간학
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문
학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
이 없으면 문학의 고유한 본성을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인간과 생활을 추상적인 개념과 논리로써가 아니
라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문학이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
이 있는것이다.

산 인간을 그린다것은 현실적인 인간, 사색하며
꿈꾸며 탐구하며 갈망하는 인간, 그 인간의 사상과
감정, 의지와 념원, 통털어 그의 내면세계를 그린다
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은 인간의 사상감정, 그의 심리와 정서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림으로써만 인간성격을 추상
적으로가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인간성격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못할 때
성격의 추상성은 불가피하다.

작품에서 사람들의 실천투쟁과정을 그릴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중요한것은 그 투쟁과정에 나타나
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체험을 진실하고 심오하게
그리는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문학예
술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높이는 중요
한 요인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품위와 철학성은 인간
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있다.

주인공이 체험하는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면
그릴수록 생활의 본질을 그만큼 더 깊이있게 밝힐수
있으며 사람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 갈수
있다.

산 인간을 그릴데 대한 방침이 구현되어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은 추상화되고 유형화된 인간이 아니라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들의 모습을 훌륭히 보여주었으며 그 인간학적특징을 더욱더 강화하여나가게 되었다.

예술영화들인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들인 주체형의 혁명가들을 산 인간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는데서도 참으로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색하며 꿈꾸며 행동하는 산 인간으로, 참으로 인간답게 그려지고있다.

관중들에게는 이 친근하고 다정한 영화의 주인공들의 뜨거운 입김과 숨결소리마저 들려오는듯하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은 그 영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어떤 《신비》한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새 생활이 꽃피던 고향에는 부모처자들이 있고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며 아름다운 꿈이 있던 보통사람들이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의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형상도 그 성격의 생동성, 진실성으로 하여 특출하다.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리는데는 산 인간 성격을 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문학에서 산 인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생활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된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깊이있게 파고들어가야만 산 인간의 생동한 모습을 진실하게 그릴 수 있다.

예술영화 《그날의 맹세》의 주인공 정순이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그 소박성과 진실성을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한마디로 현실생활에서와 같이 살아움직이는 산 사람들이며 포부와 리상, 희망을 안고사는 다정다감한 사람들이다.

이리하여 작품들은 그 격동적인 화폭들을 풍만한 서정과 시로 충만시킬수 있었으며 것처럼 기쁘지고 감동적인 화폭으로 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하나의 세부라도 소홀히 하거나 조잡하게 그리면 작품의 전반적형상에 큰 손상을 주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 있고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생

활을 제시하는것만으로는 아직 산 인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없으며 생활자체도 그려내지 못한다.

생활을 세부화하지 않고 통채로 라렬하며 인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며 생활의 결과만 제시하는것은 형상의 요구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다.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성격의 생동성과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예리하고 독창적으로 탐구된 생활세부의 생동성과 깊이 연관되어있다.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섬세하게 그림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그 어떤 정서적인것, 거창한 사회력사적인 사건들을 평면적으로 라렬하던 경향이 철저히 극복되었으며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는 사실주의적일반화의 거대한 힘을 남김없이 파시할수 있게 되었다.

예리하게 포착된 특징적인 세부묘사로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하고 작품의 심오한 사상을 천명한 빛나는 모범의 하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에서 원남이가 범벅을 먹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자기에게 차례진 몇덩이 안되는 범벅을 다 먹고 누이동생 갑순의 그릇을 넘겨다보는 원남, 늘 험뻑고 굵주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개만 먹고 나머지는 당반에 엎어두었다가 자리에 누운 어머니에게 주는 갑순, 어린 딸의 이 기특한 소행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힌다.

이 주옥같은 생활세부에는 모진 그 세상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고 이끌면서 굳세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어머니와 아들딸들의 끝없이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가 참으로 섬세하고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실로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위대한 사상이며 주체의 인간학의 새 력사를 빛내이게 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며 이 영광의 길에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여나갈것이다.

전환의 해

김희봉

(전호에서 계속)

《그 은혜를 조금이라두 안다면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때에 키워준 값이야 해야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나요. 알기때문에 더 피로운 거예요.》

《책상물림이라는게 참 답답하다.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야 그거지요. 방도가 있어야 하겠다구 나설게 아닙니까.》

성철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는 심사로 성국의 곁을 떠나 허청허청 걸어간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성국이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다.

춘보, 승범, 경민이 등이 눈을 털며 들어온다. 마주 일어서는 성국.

춘보네들이 활기있게 다가온다.

《교대장!》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잠이 와야지.》

《내 이럴줄 알았습니다.》

《좀 의논해보세. 경민기사가 뭘 좀 생각했다 누만.》

《예? 그래요?》

《거 소빨은 단김에 뿔으랬다구 제창 토론해 보세.》

《그럼시다. 자 들어들갑시다.》

성국은 무등 반가와하며 그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간다.

지배인실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참가한 계획위원회부위원장 박세진이와 허봉규가 성국의 말을 귀담아 듣고있다.

성국이가 확신있게 말한다.

《우선 조피에서 케이스를 늘워서 종전에 한톤으로 붓던 강피를 톤반으로만 늘기준다면 거기서만두...》

《가만...》

허봉규가 그의 말허리를 끊는다.

《...그거야 성철동무가 8만톤을 타산하구 내려올때 가지구 왔던 안이 아니요.》

성철이가 민망해하며 외면한다.

성국은 봉규의 말을 긍정하듯 끄떡이며 조리있게 말을 잇는다.

《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피가 커지는 조건두

고려하구 또 강피를 익히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열로에 두배의 열을 부어넣어두 되게끔 개조하겠습니다.》

허봉규와 같이 온 기술자가 묻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시오.》

《예, 지금까지는 열을 더 올리자구 해두 강피가 실린 레루가 휘기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저 경민기사 동무가 레루를 받친 기둥에 랭각수순환장치를 도입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비슷한 소리요. 그걸 하자면 얼마나 걸릴까?》

봉규가 흥미있어하는척하며 기술자에게 묻는다.

《예, 거 로를 식히자면 한주일, 해체를 하구 빠이프를 용접하자면 한주일 그다음에 로를 다시 쌓구, 건조까지 하자면 합해서 한 20일 걸릴것 같습니다.》

《그건 안되겠소.》

박세진의 말에 성국은 침착하게 설명을 계속 한다.

《그래서 저희들두 생각던 끝에 로를 식히지 않은 채 열벽만 뜯구 이미 밖에서 조립한 구조물을 넣은 다음 빠른 시간내에 용접을 하자는겁니다.》

허봉규가 저으기 놀란다.

《로를 해체하지 않구 한다? 그럼 굴안의 온도가 얼마요?》

《500도입니다.》

《500도!》

박세진이 놀라서 되뇌이는데 허봉규가 웃으며 손을 내짓는다.

《희생정신은 좋은데 그렇게야 어떻게 하겠소. 사람들을 아껴야지. 성철동무, 동무가 대답해보오. 그러지 않아두 로동자들이 악전고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도는 없겠는가말이요.》

성국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데 성철은 시름겨운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자신없는 소리를 한다.

《전 아직 좀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세진이 빙그레 웃으며 오금을 박는다.

《보란말이요. 현장기사두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지 않소. 예?》

그 소리에 무엇인가 말하려고 일어섰던 성철이가 주뒹거리다가 도로 앉고만다.

성국은 딱하게 되었다.

그를 지켜보던 춘보가 자기 팔뚝을 내보이며 부추긴다.

성국이 고무를 받고 말을 잇는다.

《이 아바이 팔뚝에 난 흠집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 왜놈 감독놈의 채찍에 몰려 500도의 열속에 들어가

용접을 하다가 실수해서 뎀 자립니다.》

세진이와 봉규가 놀랍게 바라본다.

성국은 절절하게 말한다.

《그땐 우리가 왜놈들의 강박에 못이겨 이보다 더한 일두 했지만 지금이야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걱정하시는 강재문제를 풀라고 하는 일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의 결심에 맡겨주십시오.》

심중히 듣고있던 지배인이 박세진에게 말한다.

《부위원장동지, 어쨌든간에 설계는 선행시킵시다.》

《중소. 그렇게 하도록 하오.》

박세진은 아량을 보이며 호인답게 웃는다.

《로동자들의 열의를 꺾어서야 우리가 무슨 지도일꾼이라고 하겠소. 우리도 좀더 방도를 찾도록 하겠소.》

박세진의 집 앞

승용차 두대가 와서 멎고 차에서 내린 박세진이와 허봉규가 화강석계단을 올라온다. 세진이가 봉규에게 말한다.

《자네가 가르쳤다는 그 젊은 기사는 지각이 있는 사람 같더군요.》

《예, 제 형하군 판다르지요. 전도유망한 동물니다.》

《음.》

묵묵히 따라걸던 봉규가 피아노소리가 울려나오는 2층 창문에 눈길을 준다.

《아, 따님의 솜씨가 꽤 좋습니다. 하하.》

창가림을 친 창문을 통해 피아노를 타고있는 세진의 딸의 모습이 보인다.

봉규가 《저 따님두 이젠 때가...》 하고 의미있는 표정을 한다.

《영? 허허, 그 젊은 기사를 성에 적당한 자리를 골라 끌어올리게. 현장에 그런 실력있는 기술자를 두는게 앞으로 불리하단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열로개조안을 맡기했다는 자네 동창두 승급조동을 시키든가 무슨 마련을 봐야 할게 아니요.》

《후퇴때 경력때문에 승급시킬 재목은 못되는데... 하여간 제게 맡기십시오.》

《참, 그리구 가열로개조에 쓸 인발판이 없다구 딱 잘라버리라구.》

《알겠습니다.》

한편 방안

서양식으로 요란히 차린 연회상.

최고검찰소 부소장과 똥똥보가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음악을 듣고있다. 세진의 처가 연방 음식

을 날라들인다. 마지막소절을 재치있게 마무리 하고 일어난 세진의 딸이 애교있게 절을 하자 두 사나이가 박수를 보내며 칭찬한다.

《오, 아주 잘했어.》

《정말 잘하는데 허허.》

이때 세진의 처가 문소리를 듣고 딸에게 이른다.

《애야, 아버지 오셨다.》

검찰소부소장이 장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민첩하게 일어선다.

다른 사나이들도 일어서며 부산을 피운다. 복도로 걸어오는 세진이와 봉규, 딸이 마주 달려가 모자와 외투를 받으며 아양을 땀다.

《아이 아버지, 왜 이제야 오세요? 모두들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와서 기다리는데...》

《그래 오래 기다렸니?》

《초저녁에들 오신걸요.》

세진이 웃으며 방안으로 들어선다.

《아 이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됐소. 강선에 나갔다가 좀 늦어졌소. 자 앉소. 앉으라구.》

검찰소부소장이 비양조를 섞어 말한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를 걸어보니 진지하게 협의하신단데.》

《그만하오. 500도 열속에서 용접을 한다오. 허 허...》

《단단히 목을 눌러놔졌지.》

《쓸데없는 소릴.》

세진의 표정에 엄해지자 부소장이 아침기를 담고 말한다.

《하, 거 믿는 사람들끼리니 하는 말이지요. 아 참, 생일을 축하해서... 무역대표부에 나가있는 친구한테 몇달전부터 부탁했던건데 하하 이거 변변치 않습니다.》

부소장은 세진이앞에 은장식을 한 요란한 차판을 꺼내놓는다.

봉규가 부소장과 세진이를 번갈아보며 눈치를 살피는데 세진이가 호기있게 룡담을 한다.

《고맙소. 검찰소부소장한테 이런 섬세한 취미가 있다는게 놀랍소. 응 허허...》

《아 검찰일꾼두 사람이지요.》

모두들 웃는 속에 허봉규가 점잔을 빼며 일어나 축배잔을 들어올린다.

《자, 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동지의 건강을 위해서 자 들시다...아 사모님두.》

모두가 잔을 들어 박세진의 잔과 맞쫓는다.

제강소 파철적재장

압연공들이 인발판을 찾아 파철더미를 헤치고 있다.

한켠에서 폭스불을 피워놓고 휘여든 인발판을 퍼

고있는 승범이와 압연공.

그들에게로 기중기운전공처녀가 달려온다.

《교대장동무 어디 있어요?》

《응?》

《교대장동무...》

《저기 있어, 저기.》

최먼지가 뽀얀 파첼더미속에서 성국이가 인발판을 찾고있다.

기중기운전공처녀가 그를 찾는다.

《교대장동무!》

《응.》

《지배인동지가 찾습니다.》

《어디서?》

《강철직장쪽으로 가시면서 거기루 오시래요.》

《알겠어.》

강철직장

전기기가 룡트립하듯 세찬 불길을 내뿜고있다.

지배인은 산소취입을 실험하고있는 제강공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무해주고있다.

《여보, 박동무!》

《예.》

《지금 아주 좋구만.》

《예, 좋습니다.》

여기로 성국이가 온다.

《지배인동무, 찾았습니까?》

지배인은 제강공에게 《계속하라구.》 하고 성국에게로 돌아선다.

《성국동무, 종전에 동무를 직장장으로 임명했다는 상동지의 전화를 받았소.》

《예? 아니 나야 기술두 부족하구 그런 일을 해 본 경험두 없는데요.》

《아 든든한 현장기사가 있는데 뭘 그러우?》

《그녀석 애긴 하지두 마시우.》

성국은 아픈데를 찢리운듯 이마살을 찌프린다. 지배인이 다 말면서도 짐짓 놀라는척한다.

《응? ...그래서 가열로설계조에서 뻘소?》

《내가 뻘나요. 제가 뒤틀었지요.》

강편적제장

작업복을 입은 성철이가 문형기중기가 물고 온 강편을 기중기운전공에게 신호한다.

《좀더 좀더 뻘어.》

좀 떨어진곳에서 강편처리공의 손에 봉대를 감아주고있는 경숙.

《좀 조심히 일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강편처리공이 성철이가 다가오는것을 보고 미안해하며 얼른 일어서서 쇠장대를 잡으려 한다.

《기사동무, 이젠 뻘습니다. 주십시오.》

《쉬라구, 내가 대신 해주지.》

《아, 일없습니다.》

《아, 글썄 좀 쉬라는데.》

성철이 쇠장대를 놓으려고 하지 않자 강편처리공이 자리를 피해준다.

《내 인차 와요.》

경숙이가 어색해하며 자리를 뜨려는것을 성철이가 불러세운다.

《아, 경숙동무!》

《예.》 하고 주밋거리는 경숙.

성철이가 그에게로 다가간다.

《한가지 물어볼게 있소.》

《아이, 저한테요?》

《응, 사람이 500도 열속에 들어가서 작업할수 있겠소? 어디 의사의 립장에서 대답해보우.》

《아이참, 1에도에서두 바쁜데 500도에서야 어림두 없지요 뭐.》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러세요?》

《형님이 가열로의 500도 열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구 하는데 어디 보구만 있을수 있소? 그러니 동무가 우리 형님을 잘 설복해주오.》

《아이참, 제가 어떻게...》

《그래두 형님은 늘 봐야 내 말보다두 동무말을 더 잘 듣더구만.》

《아이, 동문 정말...》

경숙은 밍지 않게 눈을 흘기고 돌아서 간다.

히죽이 웃으며 돌아서는 성철.

가열로앞

허봉규가 경민의 가열로개조도면을 검토하며 트집을 걸고있다.

《동무수준에 고열속에서 랭각수관이 터지면 수소폭발이 일어난다는걸 모르구 이런 설계를 했소?》

《저 수소폭발은 용금상태에서지 강피상태에서는 일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담보하오? 가만히 놔둔 빈총에서두 8년에 한번은 총알이 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소.》

낮익은 기술자나부랭이가 맞장구를 친다.

《예, 그러기말입니다.》

《또 다른건 문제될게 없소?》

《이제 모두 고열을 받아야 할 부윈데 특수용접은 전혀 예견안했습니다.》

《아 그거야 초보적인 상식이 아니요. 정말 답답하구만. 당장 중지하라구 하오.》

《예?!》

《어서!》

봉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면은 춘보 등 가열공들

에게 소리친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들하십시오.》

경민이 수그러드는 기색을 보이자 봉규는 한층 더 열을 올린다.

《도대체 이게 뭐요? 이게 응? 동문 후퇴때두 내 말을 안듣다가 말밥에 오르더니.》

《예?!》

경민이 억이 막혀 굳어진다.

춘보가 다가와 봉규에게 들어댄다.

《아니 우리 경민기사가 뭘 잘못했다구 그런니까?》 경민이 춘보를 제지시킨다.

《아버님, 됐습니다.》

기술자나부랭이가 춘보앞에 막아선다.

《아, 로인은 가만있으시오.》

《이것 보십시오.》

등뒤에서 오가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있던 봉규가 한쪽을 보고 반긴다.

《아, 성철동무!》

기술자 2가 성철이를 데리고 온다.

《부국장동지!》

《응, 성철동문 이 도면을 봤소?》

《봤습니다. 설계는 괜찮다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철의 태연한 대답에 봉규가 책망조로 말한다.

《똑똑히 봐주어야지, 걸어넣소.》

하고 기술자 1에게 지시한 봉규가 성철이를 향해 다시 말을 잇는다.

《동문 여기서 이러구있느니 차라리 성에 올라가서 일하는게 좋겠소.》

경민이 기술자 2에게 간청한다.

《제 도면을 주십시오.》

봉규는 못들은척하며

《지금 성기관에서만두 기술자가 모자라서 찢절 매는데 자, 가자구.》

하고 성철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고만다.

직장밖

위생가방을 메고 오던 경숙이가 직장에서 나오는 봉규네를 보고 멈춰선다.

봉규가 기술자 1에게

《가만 지도원동무, 먼저들 가요.》

하고 출입문가로 되돌아가더니 안에 대고 소리 친다.

《경민동무, 나 좀.》

기술자 1이 《갑시다.》 하며 성철이를 이끌고 간다.

이윽고 직장안에서 경민이가 나온다.

봉규가 그와 나란히 서며 말한다.

《내 듣자니 성철동무가 동무네 녀동생하구 가까이

지내는 모양인데 성철이야 물불을 모르던 시절의 약속을 저버리기 딱해하겠지만 동무야 나이두 들구 세파두 겪은 사람인데 성철의 장래를 생각해 주어야지 않겠소.》

《뭐라구요?》

봉규는 시종 웃음기를 담고 말한다.

《난 같은 지성인으로서 동무가 리해할줄 알구 하는 말이요.》

그들을 바라보던 경숙은 봉규의 말에 그만 아연해진다.

《사람이 자신의 처지두 생각해야지.》

가열로

모멸을 당하고 들어오는 경민의 귀전에 봉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솔직히 말해서 동무가 아직두 기사자리에 있는 걸 놀랍게들 생각하는 사람이 한들인줄 아오?》

경민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손에 들고있던 계산자를 가열로에 던져넣는다.

《에익!》

《아니 이사람아!》

춘보가 급히 달려와 말리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불이 확 달린 계산자.

눈물이 글썽해진 경민이는 울분을 누르며 밖으로 나간다.

불에 타고 녹아 불품없이 된 계산자가 갈구에 걸려 나온다.

춘보는 그것을 손에 들고 경민이 나간쪽을 본다.

《아니 이런 원...》

이때 성국이가 큼직한 인발판을 메고 들어와 철판 위에 던지고 행뎡그렁해진 작업장을 살핀다.

《아바이, 다들 어디 갔습니까? 일들은 안하구.》

《말말게, 부국장인가 한사람이 와서 당장 중지 하라구 하면서 도면까지 가져갔네.》

《아니 뭐라구요?》

춘보가 불에 탄 계산자를 내보인다.

《경민기사거야.》

《?!》

저수지

소슬바람에 해묵은 갈대들이 설레인다.

기슭에 손땀이 풀려 앉아있는 경민.

경숙이가 곁에 와 서있다.

경민이를 찾아 나오던 성국이가 번뇌에 잠겨 말하는 경민의 목소리에 엉거주춤 멈춰선다.

《내가 후퇴를 못해 이렇게 말밥에 오르게 되구... 이제 와서는 네 앞길까지 망쳐놓았구나... 그러니 어찌겠니. 고통스럽지만 네가...》

경민은 차마 그다음 말을 입밖에 낼수 없어 《후-

》하고 한숨을 내신다.

그의 얼굴에 비낀 고뇌가 얼마나 짙었던지 오히려 경숙이쪽에서 위로한다.

《오빠, 너무 근심 마세요. 진 성철동무가 오빠 때문에 저를 배척할 동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라,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녀인들두 많더구나.》

경숙이가 그러는 오빠를 넋없이 바라본다.

경민이가 땅이 꺼지게 한숨신다.

《이 오빠를 원망해라, 오빠를...》

자체력을 잃고 어깨를 들먹이던 경숙은 뒤에 성국이 와있는것을 보고 얼굴을 싸쥐고 쫓기듯 달려간다.

그러는 경숙이를 괴롭게 바라보던 성국이가 이윽고 경민의 곁에 다가선다.

《기사동무, 일어서오.》

《내겐 그럴 힘이 없소.》

성국은 경민의 곁에 나란히 앉는다.

《아무려면 우리 성철이가 그렇게까지 됐겠소? 난 그녀석이 아직 철이 없어두 그 애의 본심을 믿소. 또 설사 그렇다 해도 내가 용서치 않겠소. 그리구 도면 문제두 그렇지, 도면을 떼웠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가열로는 누가 개조하겠소? 9만톤은 당의 로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란말이요.》

《나두 그걸 알기때문에 그 투쟁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려 했던건데 하지만 누가 그걸 알아주오. 누가?》

《아니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지요? 당에서 알아주 우리 서로가 믿으면 다지.》

《누구나 말은 다 그렇게 하더군요.》

경민은 성국의 눈길을 외면한다.

그를 이윽히 지켜보던 성국이가 노기를 띠고 말하며 일어선다.

《그래서 물러섰소? 섭섭하오, 섭섭해... 우리 같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자구 했는데...정 못하겠으면 그만두우.》

성국은 분하고 섭섭한 마음은 안고 자리를 뜨려한다.

경민이가 황급히 일어서서 그를 붙든다.

《직장장동무, 내 말 좀 들소. 그러다 자그마한 사고라도 생길 때 그 시비는 어떻게 들겠소?... 솔직히 난 직장장동무까지 나때문에 피해받는걸 원치 않는단말이요 예? 직장장동무.》

《나를 위한다구? 나 같은건 백번 배신해도 좋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한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생각할 때요? 예?》

성국은 준절히 말한다.

《참 답답하오. 수령님께서는 만톤의 강제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그렇게두 모르겠소? 지금 미국놈들은 리

승만이를 부추겨서 <북진>을 하겠다고 하구 종파분자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당을 안으로부터 허물려구 날치는데 자기 하나만을 생각할 때요?》

경민이 충격을 받고 마주본다.

성국은 말을 계속한다.

《지금 우리 경제건설에서 놈들과 전쟁을 하구 있단말이요, 전쟁을. 그래 놈들이 100년이 걸려두 일어서지 못한다구 한 그 비방을 듣구만 있겠소? 우린 누가 뭐라구 해두 만톤의 강제를 더 생산해서 이 싸움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오, 돌파구를!》

성국은 황황 타는 눈길로 경민이를 지켜보다가 직장쪽으로 간다.

멀어지는 성국을 바라보던 경민은 《후-》하고 모두숨을 내신다.

객실

허봉규가 성국이와 지배인을 앞에 놓고 경민의 설제도면을 시비하고있다.

《이걸 좀 보오. 특수용접도 전혀 예견하지 않았소. 그러니 나라에 한대밖에 없는 압연기를 허공에 날려 보내려구 했다는 말을 안듣게 됐소?》

언짢게 듣고있던 지배인이 성국에게 말한다.

《자 앉으라구.》

《예, 제 좀 말씀드려두 좋겠습니까?》

안락의자에 몸을 잠그고 문건을 뒤적거리던 박세진이 틀지게 말한다.

《어서 말하오.》

성국이가 격해지려는 마음을 누잠히며 나직이 입을 연다.

《경민기사두 특수용접을 예견하지 못한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용접이 전문이 아니돼서 그런거지 수소폭발을 시키려고 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봉규가 너그럽게 응대한다.

《물론 사람을 믿자는데는 나두 반대없소. 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필요한건 경각성이요. 후퇴 시기 그 사람의 경력을 알면서 그러오?》

박세진이 동감이라는듯 머리를 끄떡인다.

성국이 확신성있게 대답한다.

《압니다. 후퇴의 급한 정황에서두 마지막 설비까지 폭파시키지 말구 다 소개하자구 했던게 바로 경민기삽니다.》

《그 소행이 적들에게 자연스럽게 남자는 속임수였을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봤소? 그 사람은 왜정 때 대학공부를 한 사람이요.》

《그만하십시오. 출신이요 뭐요 하지만 난 그래 두 경민기사동무의 주장대루 설비를 소개했기때문에 우리가 남의 원조를 받지 않구두 제강소를 빨리 복구할수 있었다구 생각합니다. 지금 부기사장 자리는

내왔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일 잘 하는 사람을 무엇때문에 자꾸 의심하겠습니까?》

《똑똑히 알지두 못하면서 그런 소리 마오.》

《솔직히 말해서 전 그때 일부 간부동무들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두 설비를 폭파해야 한다가 한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성철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봉규를 바라본다.

허봉규가 책뚜껑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신경질적으로 내쫓는다.

《그건 내게 하는 소리요?》

침묵, 방안에는 다치면 터질듯한 침묵이 흐른다.

구내선 철길

증기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며 전용차를 뚝뚝한다.

숙소

박세진이 일어서 나가며 타이르듯 말한다.

《지배인동무, 잘 생각해보우.》

봉규는 나갈 차비를 하며 뇌까린다.

《남포에 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하겠소. 계획조절문제는 다음에 와서 아귀를 짓겠으니 그리 아오. 그러구 로개조는 그만두우.》

허봉규가 도면을 쥐고 돌아서자 성국이 따라서며 손을 내민다.

《부국동무, 도면을 돌려주십시오.》

봉규가 감정적으로 나온다.

《줄수 없소. 이따위 우둔한짓을 했다가 후파가 생길 땐 법앞에 목을 내놓겠소? 그러구 이 기사 동무는 우리가 데리구 가겠소.》

《그건 안됩니다.》

《가구 안가구야 본인의 의사에 달린거지.》

하며 성철에게로 다가서는 봉규.

《결심이 났겠지. 그만하면 현장체험두 쌓았구 또 장래발전문제두 그렇구... 그러구 그 기사 너동생과의 관계를 봐서두 더 여기 있어서는 안되겠소.》

성국이 그 말을 역겹게 들으며 두사람을 지그시 쏘아본다.

봉규가 한술 더 뜬다.

《그래 지금 우리하구 같이 가겠소? 아니면 후날 따라오겠소?》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성철의 우유부단한 대답.

《뭐? 생각해보겠따?》

배신당한 감정에 모대기는 성국, 성철은 성국의 숨결이 거칠어지는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불안하게 마주본다.

마침내 성국이 분기를 누르지 못하고 원탁우에 있는 유리잔을 들어 치려 한다.

《덜된 자식!》

《성국이!》

지배인이 막아서며 성국이 손을 꼭 잡는다. 성국의 얼굴에 경련이인다.

으스스하게 틀어쥔 그의 손에서 술잔이 부서져 나가며 피가 흐른다.

그것은 찰나에 벌어진 일이어서 모두가 어안이 병병해서 마주볼뿐이다.

충격을 받고 마주보는 성철.

구내선 철길

성국이 걸어온다.

분하고 섭섭한 마음을 금한길없는 성국은 손에서 피가 흘러 떨어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기만 한다.

성철이가 피자욱을 보며 황급히 뒤따라간다.

《형님!》

성국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성철이 달려와 성국의 손을 잡는다.

《형님!》

눈물이 글썽해서 애원하듯 바라보는 성철.

역시 눈에 물기를 담고 이윽히 마주보던 성국이 저려드는 가슴을 달래듯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입을 연다.

《한어머니의 배속에서 한피줄을 타구났다고 해서 형제지간이거니 생각 말라. 당의 피줄을 함께 따라야 그게 진정한 형제지, 당의 피줄을 따르지 않는 네가 무슨 내 동생이겠니.》

성국은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 말고 그대로 가버린다.

화석처럼 굳어지는 성철.

평행선을 그은 두줄기 철길우에 성철이를 남겨놓고 멀어져가는 성국.

둘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진다.

직장사무실

사무실에 와있는 성국이 후들후들 떨리는 손에 담배를 붙여물었다.

부드러운 손이 상처를 어루만지며 붕대를 감는다. 경숙이가 온것이다.

이윽고 처치를 끝낸 경숙이가 조용히 물러난다. 그가 가려는것을 성국이 붙어세운다.

《게 좀 앉았다 가지.》

경숙은 앉지는 않고 축축히 젖은 눈을 들어 성국을 바라본다.

침묵, 침묵끝에 성국이 나직이 입을 연다.

《못난 녀석때문에 경숙이까지 속을 썩이게 해서 안됐소.》

《너무 상심 마세요. 전 성철동무의 진실한 그 마음을... 믿어요.》

《우리 같이 속을 썩이자구. 아끼는 마음이 없이야 속 썩일 일두 없지.》

이때 춘보를 비롯한 압연공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온다.

《직장장, 갔던 일은 어떻게 됐나?》

《뻔하지요. 하라구 함께 뭉니까?》

승범이가 울컥한다.

《그럼 직장장동무두 시비가 두리워 주저앉구말자는겁니까?》

《누가 주저앉는데. 우린 그 누가 뭐라 해두 수령님 앞에 땡세한 9만톤을 어길 권리가 없단말요.》

분김에 책상을 내리치던 성국은 춘보네들이 봉대 감은 손을 불가봐 얼른 감춘다.

승범이 다가앉으며 안타까이 부르짖는다.

《그럼 뭉니까? 왜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나두 그렇게 우물쭈물하는게 마음에 안드네.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 차려주는 밥이나 받아먹는 랑반이 됐나.》

춘보의 말에 성국이가 벌떡 일어선다.

《합시다! 동무들! 해냅시다.》

《합시다.》

승범이와 압연공들이 기세를 올린다.

가열로개조전투장

방열복을 입은 성국이가 기증기운전공에게 손신표를 한다.

벌겋게 단채로 있는 로안에 조립된 랭각수관이 들어간다.

로안

물에 적신 발판용 침목을 안고 로안에 들어선 성국이가 그것을 지정된 위치에 던진다.

침목에서 뜬김이 확 풍기더니 순식간에 불이 달린다.

숨막히는 로안을 살펴보는 성국의 얼굴에 비장한 결심이 어린다.

불붙는 침목을 밟고 들어가는 성국.

설화

《500도의 고열, 한발만 잘못 옮겨도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달리는 할수 없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값높은 희생을 각오하게 하였는가. 그들에게는 분초가 아까왔고 순간이 천금같이 귀중하였다. 9만톤의 강재를 위한 투쟁의 순간 순간이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켜내기 위한 판가리 결전이라는 자각이 그들의 심장마다에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고 철의 의지를 안겨주었다.》

-방열모의 모서리를 입에 물고 용접하는 성국.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춘보.

-불붙는 침목우에 버티고 서서 용접하는 성국.

-승범이가 들어가 성국이를 밀어낸다.

로앞

춘보가 로안으로 뛰어드는 강편처리공의 팔허벅을 잡는다.

《야! 넌 아직 안돼!》

《야 - 내가 뭐 어린앤줄 아세요?》

웃으며 로안으로 뛰어드는 강편처리공.

기술자들의 사무실

고뇌에 잠겨 앉아있는 경민.

여기로 경숙이가 뛰어온다.

《오빠, 이러구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장동무랑 모든 동무들이 불속으로 뛰어들고있어요. 그런데 오빠.》

《뭐?!》

경민이 소스라쳐 놀라며 벌떡 일어선다.

로안

성국이가 숨막히는 고열속에서 용접을 계속하고 있다.

로앞

큰 충격을 안고 전투장으로 다가오는 경민.

로안에서 나온 성국이가 춘보의 부축을 받고 휴식장소로 힘겹게 걸어가고있다.

분임이가 녀인들과 함께 지원물자를 가지고 온다.

전투분위기를 뜨겁게 감수하는 경민.

로안에서 쓰러질듯 굴러나온 강편처리공이 출입구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풀어헤친다. 된기침을 하면서도 허거프게 웃는 강편처리공.

춘보가 달려가서 부축한다.

《이너석, 내 뭐라고 하던.》

젊은 압연공이 와서 강편처리공을 휴식장소로 데려간다.

그 틈에 슬그머니 로안으로 들어가는 춘보.

성국이가 그를 유심히 바라본다.

로안

춘보가 용접하고있는데 성국이가 들어와 용접기를 빼앗는다.

《아바이, 나가시우.》

《일없어.》

《아 나가시우.》

《이런 참.》

춘보가 하는수없이 밀려난다.

용접광에 이글거리는 성국의 눈.

용접봉에서 튀어나는 불꽃.

용접하는 승범, 젊은 가열공의 얼굴에 푸른 섬광이 명멸한다.

고열과 가스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성국이가 의지의 힘으로 용접을 계속하고있다.

초점이 흐려여지는 성국의 눈.

용접면을 틀어진 성국의 가죽장갑에 불이 달린다.

혼미한 의식속에 불을 끄던 성국이가 기진하여 모
로 쓰러진다.

밖에서 로안을 주시하고있던 경민이가
《직장장동무가…》 하며 로안으로 뛰어들어 간다.
《동무들! 빨리…》

지배인이 급히 뒤따라 들어간다.
로안에 뛰어들어 경민이가 성국이를 부축여 일으킨
다.

《직장장동무!》
성국은 의식이 없다.
지배인과 압연공들의 도움을 받아 성국이를 부축
하고 나가는 경민.

휴식장소

가마니우에 성국이를 눕히며 다급히 소리치는 승
범이와 압연공들.

《구호대!》
《가만 가만히…》
《직장장동무! 직장장!》
경민이 안타까이 불렀으나 성국은 죽은듯 대답이
없다.

그러자 경민은 춘보를 안타깝게 바라본다.
경숙이가 달려와 주사기를 준비한다.
《오 경숙아!》
기대를 안고 그를 지켜보는 경민.
이때 성철이가 현장으로 천방지축 달려온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님!》
사람들속을 헤집고 들어와 성국이를 애타게 부르
는 성철.

《형님, 정신차리세요.》
부르고 또 불려도 대답없는 성국.
당황한 성철이가 경숙에게 소리친다.
《빨리 답가!》
경숙이 급히 일어나 뛰어간다.
지배인과 춘보가 근심에 싸여 바라본다.
분임이도 울먹거리며 바라본다.
기척없이 누워있던 성국이가 슬며시 눈을 뜬다.
경민이와 성철이가 반가워서 부르짖는다.

《직장장동무!》
《형님!》
성국의 시야에서 울먹이는 성철의 얼굴이 희미하
게 보이다가 초점이 잡힌다.

성국은 성철을 외면하며 일어나려고 무진 애를 쓴
다.

《날 좀 일으켜주우.》
《직장장동무!》
《진정하라구.》
경민, 춘보 등이 만류한다.
그러나 성국은 의지의 힘으로 용해공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않는다.
성철이가 그의 팔허벅을 붙들고 부르짖는다.

《아니 어찌자구 이래요? 죽자구 이래요?》
성국은 그러는 성철을 뿌리치며 낮으나 엄하게 말
한다.

《우리 목숨은 수령님을 지키구 당을 받들기 위해
있는거야… 내 모자.》

젊은 가열공이 방열모를 쥐여준다.
성국은 그것을 받아들며 성철에게 계속 말한다.
《숨을 쉬어두 당과 함께 쉬구 잠을 자다가 꿈을
꾸어두 수령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지름을 써야
하는게 당원이야.》

성철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굳어진다.
성국은 몸의 중심을 가누며 가까스로 일어선다.

《아니 직장장동무!》
《직장장동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듣지 않고 그대로 일어서는 성국.

담가를 들고 달려오던 경숙이와 간호원이 충격을
받고 굳어진다.

성국이가 주위를 둘러싼 압연공들을 다감하게 돌
러본다.

《힘들지?》
《일없습니다.》

《힘들어두 마저 끝내야지.》
성철이가 뜨거운것을 삼키며 바라본다.

젊은 압연공들이
《우리가 해요.》
《꼭 해내겠습니다.》

하며 성국이를 앞질러 로앞으로 간다.
그러는 압연공들을 미덥게 바라보는 성국, 경민이

가 다가서며 자책에 젖어 말한다.

《직장장동무, 날 용서하우, 나를…》
《사람이 뭘 그러우 에이…》

성국은 웃어보이며 했으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서 입귀만 실룩거리더니 손을 내젓고 로
앞으로 걸어간다.

가열로앞에 이른 성국이가 경민이네에게 짧은 웃
음을 보이고 로안으로 들어간다.

노래가 시작된다.

산악이 막아서면 가슴으로 밀어내고
격랑이 몰아치면 이 한몸으로 막아내리
불보다 뜨거운 전사의 맹세여
영원토록 우리 당을 목숨으로 지켜가리

-용접면을 역세게 틀어진 성국의 얼굴에 푸른 섬
팡이 번뜩인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바라보는 성철.
-불길처럼 황황 타는 성국의 눈.
-승범의 얼굴에도 섬팡이 번뜩인다.
-땀에 젖은 성국의 관자노리.
-불붙는 발판우에서 용접을 계속하는 성국.

-춘보도 고열과 싸우며 용접을 한다.
노래가 계속된다.

강철은 들속에서 꽃으로 피어나고
이 심장 뚫어넘쳐 붉은 노을이 피어나네
불보다 뜨거운 전사의 맹세여
영원토록 우리 당을 목숨으로 지켜가리

-경민이도 방열복을 입고 로안으로 뛰어든다.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있는 가열로전투장. 지배인이 팔을 걷고 전투를 지휘한다.
-현장에 걸린 유화 《조국을 위하여》에 화광이 명멸한다.
용접을 끝내고 로안에서 나오는 성국.
지배인이 마주 가서 뜨겁게 포옹한다.
경민이가 압연공들속에서 밝게 웃는다.
지배인이 국자로 물을 떠서 성국에게 권한다.
성국은 물을 받아 마시다가 그릇채로 얼굴에 쏟아부으며 환희에 넘쳐 웃는다.
마주 웃는 지배인.
천정에서 밝은 해살이 내려비친다.

저수지 밤

노을처럼 붉은 쇠물빛이 저수지 수면을 붉게 물들였다.
성철이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수지기슥을 오간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다.
《수령님께선 우리를 믿으시구 나라의 어려운 고비를 타개해나가시는데 그래 넌 뭐니?》

지배인실

봄옷을 입은 허봉규가 방에 들어서는 춘보와 경민, 승범이 등을 반갑게 맞이한다.
《동무들이 수고했소. 우리가 동무들의 혁명적열의를 보지 못하구 기존공식에 매달렸거던. 응? 하 하, 자 앉소. 앉으시오.》
춘보, 경민, 승범이 등이 그의 지나친 친절에 다소의 아해하며 자리에 앉는다.
봉규가 두리번거린다.
《가만, 직장장이 왜 안보이오?》
《저 없습니다.》
《아, 그거 안됐구만. 그래서 성철동무두 보이지 않는가? ...동무들을 부른건 다르게 아니구, 그래 가열로를 개조해놓고 보니 어떻소?》
《예, 생산이 부쩍부쩍 늘니다.》
승범의 대답에 봉규가 그들쪽으로 돌아앉는다.
《그건 좋은 일이구. 내가 묻는건 며칠 해왔으니까 이젠 올해 예정실적을 내다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요. 경민동무, 한번 계산해봤소?》
경민이 심중히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예, 계산해봤습니다. 8만톤은 충분히 하구두 남겠는데 9만톤까지는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구 있습니다.》

그말에 자못 심중한 표정을 하며 가방에서 문건을 꺼낸 봉규가

《확신이 없다? ... 벌써 한분기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야 문제지. 그러니 성철동무의 타산이 정확했다는 말인데...》

하고 사이를 두었다가 지배인에게 말한다.

《지배인동무, 아무래두 이 문제는 당에 정확히 보고를 하구 계획을 조절받아야 하지 않겠소?》

《조절받다니요?》

《이제야 시간이 모자라지 않소. 한다구 해놓구 못하면 전원회의결정두, 국가계획두 다 휴지장이 되구 말겠기에 하는 말이요.》

지배인이 봉규의 속을 들여다보며 단호히 말한다
《우리엔 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결의를 흥정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다.》

《허허, 누가 흥정을 하자오?》

승범이가 일어서며 따지듯 묻는다.

《그럼 뭐니까? 우린 수령님 앞에서 9만톤을 해내겠다구 결의를 다졌습시다.》

《누가 그걸 모르나, 하지만 당장이야 만톤을 더 할수 있는 담보가 어데 있소?》

승범은 말문이 막혀 더 들이대지 못한다.

성국의 집

몸져누웠던 성국이가 말라터진 입술을 감빨며 일어난다.

《그러니까 8만톤밖에 안된단말이지요.》

춘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한다.

《너무 걱정 말구 몸조리나 잘하게. 가열로를 개조 하듯하면야 무슨 수가 또 나겠지... 그럼 우린 가보겠네.》

성국이가 따라 일어서려는것을 승범이가 만류한다.

《아 일어나지 마시우.》

문을 열고 나가려던 춘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오금을 박는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낼테니 절대로 나을생각은 말게.》

《예.》

문밖을 나서는 춘보네를 눈길로 바라우던 성국이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벽에 의지해 앉는다.

못다한 일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그의 귀전에 믿음에 넘친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이 되살아온다.

《동무들은 나를 믿구 나는 동무들을 믿구 나라의 어려운 고비를 타개해나갑시다.》

밤

등근달이 구름속을 헤엄쳐간다.

성국의 마음을 담아 노래가 흐른다.

함박눈이 내리던 그날 그 밤에
백양나무아래서 다진 그 맹세
꿈결엔들 잊으랴 어이 잊으랴

-성국이가 구내길을 생각깊이 걸어온다.
-백양나무 우듬지가 새벽바람에 설레인다.
여기로 성국이가 조용히 다가온다.

모진 바람 불어도 비가 뿌려도
수령님을 받드는 강선의 마음
노을처럼 언제나 붉게 피리라

-아침노을을 비껴담고 반짝이는 강물.
-압연기앞에 온 성국이가 로르사이를 오가는 강
피를 생각깊이 바라보고있다.
한대씩 밀려나오는 강피가 그에게는 무척 더디게
느껴진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압연기앞에서 물러나는 성국.

백양나무

백양나무사이로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인적없는 구내길을 걸어오던 지배인이 문득 걸음
을 멈추며 한곳을 본다.
성국이가 백양나무들 사이를 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것이다.
지배인이 그에게로 다가간다.
《않는 몸예 왜 또 나왔소?》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지배인이 성국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진 벽돌기둥
토막우에 앉는다.
성국이가 생각깊이 말한다.
《정전된지 옛새만에 수령님께서 여기 나오셨을 때
그날두 지배인동문 그자리에 앉았었지요.》
둘은 감회깊은 눈길을 돌려 한쪽을 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원들이 권하는 의자를 밀어
놓으시고 앉으셨던 깨어진 벽돌기둥 토막.
지배인이 그날을 회고하며 나직이 말한다.
《그때 수령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
면 제강소를 오늘처럼 복구해놓을 엄두를 못냈을거
요.》
성국이기도 감회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연다.
《지배인동무, 아무래두 9만톤을 하자면 대담한 시
도를 해야겠습니다. 수령님께서 강문제때문에 그렁
게 걱정하셨는데 힘들어두 기어이 해내야지요.》
《생각은 좋은데 무슨 방도가 있소?》
《예 난 두대치기를 하자는겁니다.》
《아니?두대치기라니...》
《지금은 강피가 폭 익어나오는 조건에서 두대를
함께 밀어두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배인은 심중해지며 걱정스럽게 입을 연다.

《나라에 한개밖에 없는 압연기요. 로르두 예비가
없구... 그러다 부러지는 날에는 아래공정이 다 멎게
되오. 나라의 압연강제 생산계획이 다 튼단말이
요.》

성국이 바짝 다가앉으며 지배인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

《저 대동강에 경민동무가 후퇴때 던져넣었던것 중
에서 아직 찾지 못한 로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찾지 못한 로르가 지금이라구 나지겠
소.》

《찾자구 마음만 먹으면야 찾는거지요뭐, 만약 경
우 그걸 찾아쉴 셈치구 한번 해봅시다... 춘보아바이
가 그러는데 작년봄에 내가 도당학교에 간 새에 한
번은 로에서 강피 두대가 떨어진걸 그냥 밀어본 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산일보를 뒤져봤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

지배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린다.

압연직장

분피압연기에서 강피를 두대씩 단번에 밀기 시작
했다.

성국이가 압연기를 운전한다.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빠져나가는 두대의 강피,
지배인이 운전실로 들어선다.

《어떻소?》

승범이가 기운차게 대답한다.

《됩니다.》

《응 좀 안심이 되오. 계기들두 정상이고.》

벌겋게 익은 강피가 공형으로 통과해나간다.

《두대치기 성공!》이라고 쓴 속보판에 확 다가 온
다.

강편을 가득실고 달리는 구내렬차,

성국의 집

성국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다.

성철이가 마주앉아 절절하게 말한다.

《형님, 제가 그동안 로르를 만들 기술준비를 했는
데 주물에 가서 로르를 만들테니 그동안만이라두 참
아주십시오.》

《로르를 만들겠다는건 좋은 일인데 참으라는건 무
슨 소리냐?》

《두대치기말이에요. 나두 그걸 하지 않구는 수령
님의 교시를 관철할수 없다는걸 알아요. 하지만 로
르를 만든 다음에 해야지 담보없이 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로르가 꺾여지는 날에는 9만톤은 교사하구 6만
톤두 못하구 맙니다.》

《뭐?》

무섭게 이그러지는 성국의 얼굴.

성철이가 진심으로 안타깝게 호소한다.

《오해하지 말라요. 나두 나라의 어려운 형편은 생각해서 그러는거지 나나 형님의 운명을 걱정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걸어치워라, 그것두 말이라구 하니? 말이라구. 나라의 쇠기등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떡먹듯 쉽지 않아.》

분피압연직장

압연기가 세찬 숨결을 내뿜는다.
로르사이로 힘겹게 빠져나가는 두대의 강피.
성철이가 불안하게 바라보다가 어디론가 발길을 돌린다.

주물직장

성철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노동자들과 함께 주강 피편을 검토하며 안타깝게 부르짖는다.
《왜 이럴까요?》

전용차안

허봉규가 독기를 품고 앉아있는 박세진이앞에서 변명하듯 중얼거리고있다.
《두대치기가 성공하는통에 계획조절문제두 성사시키기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내 뭐라고 했소? 그사람들은 당에서 하라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다가두 해낸단말이요... 이번 기회에 저열탄을 먹여 로르가 부러지면 그걸 구실루 직장장과 그 기사를 처리해버려야 해.》
허봉규가 멍청히 마주보는데 세진이가 표독스럽게 말을 잇는다.
《그러지 않구, 6만톤밖에 못나온다구 우기던 그 압연기에서 9만톤이 나올 때에는 당신이나 나나 무사할것 같소?》

압연기운전실

긴장하여 압연기를 운전하고있는 성국이와 압연공들.

내각사무국 허봉규의 방

봉규가 성철의 도면을 밀어놓으며 귀찮게 말한다.
《아직두 내 말을 못알아들었소?》
성철이가 간청한다.
《합금이야 그래두 부국장동무가 권위가 아닙니까, 강도만 좀더 높이면 되겠는데 봐주십시오.》
《동문 옷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구있을 때 승산없는 놀음을 그만두라는데 뭘 자꾸 그러우? 2차세계대전때 강제생산문제를 놓구 어느 한 나라에서는 초기 3대 1의 비율이 넘는 적의 장갑무력과 맞서기 위해서 강을 무진장 내야 했지만 두대치기와 같은 모험은 끝내 하질 않았소. 그러구 도대체 우리 나라 공업수준에선 특수합금을 하기에는 때가 이르단말이요, 때가. 판 생각 말구 이번에 아예 여기 눌러앉

소. 임명장까지 내려보냈는데 공연히 거기 있으면서 버림받을게 있나.》

그 소리에 성철이가 봉규를 좋지 않게 마주본다. 모르쇠를 하며 태연히 마주보는 봉규.

《왜? 오 아직두 그 기사 너동생한테 미련이 있어 그러나 응 허허.》

《그만하십시오.》

《왜 그러나?》

성철은 불쾌한 감정을 누르며 도면을 와락와락 만다.

《내가 어리석었지요. 그래두 난 믿구 찾아왔는데 부국장동무가 그런 사람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인젠 믿지 못하겠다 그 소리요? 좋소. 마음대로 하오. 난 그래두 성철이를 믿구 부처장의 중요한 자리까지 생각했는데 역시 믿음이란 운명을 같이 할 사람한테서만 기대할수 있는거지.》

《믿음, 나두 제판에는 당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구 조국이 위협에 처하면 한목숨 바쳐 보답할수 있다구 생각했지요.》

그러나 우리 노동계급들이 당을 받들어싸우는 그 불같은 마음을 보구 나의 그 열정이라는것이 한갓 처세에 불과했다는것을 푹푹히 깨닫게 됐습니다. 당이 어려운 투쟁을 할 때 부국장동무의 그늘밑에 있었던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갓 기술실무주의자로...》

봉규가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만하라구. 도대체 동문 뭘 말하자는거야 뭘!》

성철이가 단죄하듯 단호히 말한다.

《부국장동무는 늘 기술자의 량심과 지성에 대해서 말해왔지요. 저는 뒤늦게야 그것이 부국장동무의 겹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껍질이 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라구?》

《이제 와서 저는 우리 동무들과 형님이 나를 용서한다구 해두 제자신이 자기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배반한 나를 말입니다. 일생을 두구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기만당한 자신을 저주하며 성철은 문쪽으로 돌아서 나간다.

봉규가 버럭 고함친다.

《성철이, 서라구. 그게 우리 성의에 대한 대답인가!》

《더는 건드리지 마시오. 다시는...》

그는 문을 땀 닫고 나간다.

허봉규가 불쾌감을 누르며 멍청히 바라본다.

사무국청사앞

도면을 쥐고 청사밖에 나온 성철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압연기운전실

현장에서는 불꽃튀는 전투가 계속되고있다.
조종간을 놀리고있는 성국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떠돈다.

공형에 부딪치며 빠져나가지 못하는 강피, 당황한
압연공 1이 성국이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떻게 하랍니까?》

《밀라구.》

부르르 떨다가 공형으로 빠져나가는 강피.

불꽃 튀는 전투속에 시간이 흘러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밖에 나갔던 성국이가 운
전실에 들어서며 압연기 회전상태를 살핀다.

불안스럽게 오르내리는 압력계기의 바늘.

경민이가 배전실앞으로 달려와 불안하게 바라 본
다.

《응? 아니 ...》

조종간을 당기던 승범이가

《아, 아 직장장동무!》

하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는다.

조종대를 쥔 승범의 손을 던지고 경민에게 부르짖
는 성국.

《당기라구 경민이!》

경민이 급히 스위치를 잡아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찰나 두동강이 난 로르.

공형으로 빠지지 못한 강피가 꺼명게 식어가고있
다.

흙빛이 된 경민의 얼굴.

《어이휴!》

부러진 로르가 덜컥 거리며 공회전한다.

《에익!》

승범이가 오열하며 조종탁을 내리친다.

《로르가 부러졌다!》 하는 짧은 압연공의 부르짖
음.

숨죽은 압연기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뭐라구?》

《이게 무슨 일이야.》

《강피가 잘 익지 않더니 끝내.》

춘보가 안타까와하는데 얼굴이 흙빛이 된 성국이
와 승범이 등이 운전실에서 내려온다.

《저열탄만 보내주더니 끝내.》 하는 짧은 가열공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소리를 들으며 지지눌리는듯한
막막함에 사로잡히는 성국.

지배인실

소식을 듣고 내려온 박세진이 득의양양해서 전화
를 걸고있다.

《최고검찰소, 박부소장실에 대라, 응? 끝나면 인
차 대!》

허붕구가 어깨가 처져 앉아있는 성국이와 경민을
바라보며 동정하듯 뇌까린다.

《내 이렇게 될줄 알구 성철동무한테 미리 귀뜸했

는데 듣지 않구 우기더니... 이젠 어떻게 하겠소?》

성국이와 경민은 말이 없다.

이때 전화종소리.

세진이가 얼른 수화기를 든다.

《아, 부소장동무요? 내 세진이요. 강선에 와있소.
여기 해독분자들이 있는데 조서를 올려보낼테니까
검토해보구 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하오. 수고하오.》

세진은 수화기를 놓으며 봉규에게 독촉한다.

《조서에 수표를 받소 어서!》

《조서는 이미 작성해두었습니다. 자 읽어보구 수
표를 하오. 직장장부터 ...》

《.....》

세진이가 봉규와 눈길을 마주치며 재촉한다.

《빨리 하오, 공명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경제에 해
독을 준 책임이야 응당 저야지.》

성국은 말없이 봉규앞에 다가가 그가 주는 만년필
을 받아들고 조서에 수표한다.

강제적재장

텅빈 적재장에 쇠가루먼지가 바람에 날리고있다.

성국이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걸어오더니 강제 반
침대우에 아무렇게나 앉는다.

지금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나라의 강제생산에 혼
란을 준 자책에 모대기고있는것이다.

그에게로 지배인이 춘보와 같이 다가온다.

성국이 자책감을 안고 마주 일어선다.

《지배인동무!》

지배인은 성국의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위로
하는 말을 한다.

《그일때문에 너무 속쓰지 마오. 내 지금 평양에 가
야겠소.》

《평양엔 왜요?》

《부관동무한테서 전화가 왔소. 수령님께서 빨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계셨다오.》

성국은 저려드는 가슴을 안고 나직이 부르짖는

《...무슨 낫으로 수령님을 뵈겠습니까? 어떻게 보
고드리겠습니까?》

지배인도 막막해한다.

춘보가 가볍게 한숨친다.

침묵끝에 지배인이 입을 연다.

《하여튼 내 빨리 갔다올테니 뒤일을 좀 잘 봐주
우.》

《예, 승범반장이 반원들을 데리구 강에 나갔는데
저두 직장사람들을 더 데리구 나가서 로르를 찾겠습
니다. 압연기를 인차 살려내겠다고 보고드리주 십시
오.》

춘보도 덧붙인다.

《꼭 그렇게 해주시우.》

《알겠소. 자 그럼.》

지배인이 자리를 뜬다.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성국이 지배인을 찾는다.

《저, 지배인동무!》
 지배인이 가던 걸음을 멈춘다.
 《왜?》
 성국이가 다가가 조용히 입을 뗀다.
 《죄를 지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두...》
 《뭔데?》
 《오늘까지 지내보니 저 사람들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제때에 보고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국동무가 옳게 본것 같소. 자, 그럼 부탁하오.》
 지배인이 뜻있는 표정을 남기고 다시 걸음을 옮겨 간다.

저수지부근

로르를 찾으러 강에 나갔던 승범이와 압연공들이 후줄근히 젖은채 빈손으로 돌아오고있다.
 작업도구들을 메고 나가던 성국이와 춘보, 그밖의 압연공들이 걸음을 멈춘다.
 춘보가 승범에게 질책하는 어조로 묻는다.
 《어떻게 됐니?》
 《이거 무슨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아무리 찾아 봐 두 없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실망한것은 성국이다.
 춘보가 어성을 높인다.
 《돌아서라, 못난녀석같이니 지금 시비군들이 와서 살때를 만났다고 야단법석인데 그렇게 물려서면 어떡하니?》
 성국이가 나서며 나직이 말한다.
 《그까짓 시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승범이, 지배인동무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소.》
 《예?!》
 《우린 죽으나사나 로르를 찾아서 빨리 압연기를 살려냈다는 보고를 올려야하오.》
 하고 피로움에 모태기던 성국은 강가로 걸음을 옮긴다.
 압연공들이 하나, 둘 따라선다.

주물직장

성철이가 주형틀에 부어지는 마지막 쇠물을 보고 락십하여 돌아선다.
 주물공이 따라오며 묻는다.
 《기사동무, 어땠소?》
 《강도가 보장 안되누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몰라보게 수척한 성철이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막막해한다.

강기슭

셀물이 지고 바닥이 드러난 감탕관에서 압연공들이 로르를 찾아 감탕관을 뛰치고있다.
 온통 감탕투성이가 되어 해매는 경민이와 압연공들.
 허붕규가 강기슭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들을 쓴 오이보듯 하고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짧은 가열공이 마뜩지 않게 묻는다.
 《아니 그럼 여기에 로르가 없단말입니까?》
 《있으면 6년간을 찾았겠소? 어쨌든 좀 쉬었다가 들 하시오. 담배라두 피우구 자-》
 《아, 금방 피웠수다.》
 로동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았자 무안해서 헛기침을 하던 봉규가 감탕관에 파묻혀 힘들게 삽질하고있는 경민에게 다가서며 비양조로 말한다.
 《경민동무, 똑바로 말하오. 진짜 있거나 한결 가지구 이 고생을 시키우? 강압에 못이겨 미국놈들한테 넘겨주구 체면때문에 있다구 한서면 솔직히 그렇다구 말하란말이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대책을 세울게 아니오. 자, 지나간 일을 가지구 문제시하진 않을테니 솔직히 말하오.》
 《뭐라구?》
 억이 막혀 바라보던 경민은 더 상대를 하고싶지 않은듯 《꾸》 소리를 내며 감탕에 삽날을 박는다.
 일부 압연공들이 손땀을 놓고 멍청히 서버린다.
 봉규가 《공연히 이 고생들을 하는구만.》
 하고 중얼거리며 승용차 있는데로 스적스적 걸어 간다.
 경숙이가 오빠를 가슴아프게 바라본다.
 결김에 기진하도록 삽질을 하던 경민이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데가 없는듯 신음소리를 내며 감탕관에 주저앉는다.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던 경숙이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삽질을 계속한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는지 밀물이 들기 시작한다.
 먹장구름이 물려오는 하늘에 번개가 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아경에 사로잡힌 경민은 감탕관에 그대로 주저앉은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밀물이 정쟁이를 넘는데도 여전히 까딱 았고 았아있는 경민.

경민의 집
 창문밖에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운다.
 부뚜막에 았은 경민은 감탕이 게발린 옷을 벗을 녀도 았고 실성한듯 멍청히 았아있다.
 경숙이가 세수물을 떠다놓고 나직이 이른다.
 《오빠 어서 씻으세요.》
 《.....》
 다시 비누를 가져다놓은 경숙은 고뇌에 잠긴 오빠

를 가슴아프게 바라보며 다시 귀뜸 한다.

《오빠!》

《응? 응...》

그제야 경민은 꿈에서 깨듯 손을 씻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누를 켜 손만이 기계적으로 움직일뿐이다.

여전히 악몽에서 허덕이는 오빠를 측은히 지켜 보던 경숙은 경민에게 다가갔으며 조심히 입을 연다.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한테야 뭘 숨길게 있겠어요. 정말 있기는 있어요?》

그 말에 철퇴로 맞은듯 머리를 번쩍드는 경민.

《뭐라구?!》

그의 손에서 비누가 툰렁 떨어진다.

《아니, 그럼 너까지 나를 응? 예익!》

경민이 불편을 꾸들꾸들 떨더니 마침내 경숙의 뺨을 드세게 후려친다.

경숙은 얼굴을 싸쥐며 고개를 떨군다.

다음순간 천천히 머리를 드는 경숙의 두볼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서가 아니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다.

《오빠 저두 오빠를 그렇게 믿었어요.》

울며 웃으며 물려서던 경숙은 문가에 놓인 샅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경숙아!》

경민은 후회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을 들어 경숙이 달려나간쪽을 바라본다.

마을길

경숙이가 눈물을 빗짓으며 비속을 달려간다.

강기슭

달려오던 경숙이가 우뚝 멈춰선다.

어둠속에 감탕관을 뒤지는 한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성국이다.

《아니?!》

그를 알아본 경숙이가 급히 감탕관으로 들어간다. 대줄기같은 비속에서 세차게 삽질하고있는 성국.

그의 곁에 경숙이가 걱정을 안고 다가선다.

《직장장동지!》

울먹이며 바라보던 경숙이가 나직이 묻는다.

《직장장동진 우리 오빠를 믿나요?》

성국은 그러는 경숙이가 도리어 섭섭한듯 말한다.

《무슨 소릴 하요? 난 누가 뭐라 해두 동무의 오빠를 믿소.》

《고마와요.》

경숙은 눈물을 씻으며 감탕에 샅을 박는다.

그를 미덥게 바라보던 성국이가 다시 삽질을 계속한다.

강기슭으로 허둥지둥 달려온 경민이 두사람을 보고 우뚝 굳어진다.

억수로 퍼붓는 비속에서 굴함없이 감탕을 파헤쳐가는 성국이와 경숙의 모습.

그들을 뜨겁게 바라보고 서있는 경민에게로 춘보, 승범이 등 압연공들이 다가온다.

《기사동무!》

경민은 더 참지 못하고 춘보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아바이!》

《응, 또 찾자구.》

그날이 감탕관에 뛰어든다.

성국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웃는다.

모두 한덩이가 되어 웃고 떠드는 그들.

성국이가 웨친다.

《동무들! 밀물이 밀려들기전에 또 한바탕 찾아 봅시다.》

비는 여전히 억수로 퍼붓는다.

말뚝으로 감탕을 여기저기 찌르던 성국이가 그것을 한곳에 박으며 소리친다.

《승범이 여기루.》

《예.》

승범이와 압연공1이 허리까지 치는 감탕속을 겨우 헤쳐온다.

말뚝을 쥐고 다른쪽으로 가던 경민이가 감탕에 푹 빠지며 넘어진다.

물주전자를 들고오던 경숙이가 그를 부축한다.

《오빠!》

《응 일없다.》

승범이와 압연공1이 비에 무너져내리는 감탕을 가슴으로 막으며 필사적으로 그것을 퍼올린다.

경숙이도 비청거리며 삽질한다.

기진맥진한 경민이가 손으로 감탕을 더듬으며 기여온다.

미구에 온통 감탕투성이가 되어 누가 누군지 알아볼수 없게 된 압연공들이 계속 악전고투를 하는데 승범의 울음섞인 환성이 들려온다.

《찾았다!》

그 소리에 획 고개를 돌리는 성국.

압연공들이 미끄러지며 엎어지며 감탕속을 달려온다.

엎어진채 감탕을 허비며 기여오는 경민.

압연공들이 그러는 경민이를 부축하며 이끌고 온다.

승범이와 압연공1이 거북등처럼 드러난 로르를 타고 앉아 환성을 울리고있다.

《찾았다.》

《어디?》

《여기.》

《찾았구나.》

환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는 압연공들. 승범이가 주먹으로 로르를 내리치며 실성한듯 웃는다.

《야 여기에 있는걸 하하...》

경민이가 두팔을 벌려 로르를 불안고 마구 흐느껴

운다.

만시름을 놓은듯 울며 웃던 성국이가 경민에게 두 손을 내민다.

《기사동무!》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이윽히 마주보다가 성국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경민.

《고맙소 직장장동무!》

《경민이!》

울며 웃으며 놓을줄 모르는 그들.

직장안

파도처럼 설레이던 걱정의 순간이 지나고 정적이 흐른다.

감탕이 묻은 로르를 씻고있는 압연공들.

처녀기중기운전공들이 물호스를 끌어다대고 승범, 춘보 등이 삽으로 감탕을 긁어내고있다.

젊은 압연공들은 기쁜 나머지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롱까지 한다.

성국이는 허리를 펴며 경민에게

《기사동무, 한시름 놓이누만.》 하다가

《응? 아니?!》

하며 굳어진다. 경민이

《왜 그러오?》

하며 성국이 손이 멈추어진곳을 본다.

공형흙의 돌출부분이 몇군데 뭉쳐 떨어져나 갔다.

《기사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폭격에 상한것 같소.》

뜻밖의 사태에 억이 막혀 대답을 못하는 경민.

승범이와 춘보도 굳어진다.

로동안전원이 원통한듯 나직이 부르짖는다.

《폭격에 상했구나, 폭격에.》

압연공들이 손땀을 놓고 주저앉는다.

《애써 찾은것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게 됐구나.》

춘보의 말에 승범이가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한다.

《에익! 직장장동무, 이제 어떡하면 좋소... 예?》

성국은 너무도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 아무 대답도 못한다.

기적소리가 들린다.

박세진의 전용차가 입입선으로 들어온다.

압연공들이 의아하게 바라보는데 승강대에서 허붕규와 최고검찰소 부소장일행이 내린다. 붕규가 부소장을 안내한다.

《부소장동무, 저기요.》

《예.》

틀을 차리며 앞서 걷는 부소장.

그들은 해체된 압연기를 건승 돌아보고 성국에게로 돌아선다.

허붕규가 뇌까린다.

《법이 무서운줄두 모르구 배짱놀음을 하더니...》

부소장동무, 실태는 이렇소.》

검찰소 부소장이 미리 준비된 각본대로 거침없이

묻는다.

《두대치기라는걸 기술적으로 담보한게 누구요?》

《접니다.》

경민이 일어선다.

《아 당신이 후퇴하지 앓구 남아서 적들한테 복무했다는 기사요?》

경민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다.

《갑시다. 당신은 검찰소에 기소했소.》

성국은 예견하고있었다는듯 침착하게 한발 나선다.

《가만, 두대치기는 내가 했소. 책임을 저두 내가 지구 머리를 깎아두 내가 깎을테니 이 기사동문 머리카락 한오리 다치지 마시오.》

붕규가 조소를 품고 내쫓는다.

《해독분자를 계통적으로 싸고든 당신은 무사할 줄 알았소?》

《동무가 직장장이요?》

부소장의 물음에 성국은 서슴없이 대답한다.

《그렇소.》

《당신두 갑시다. 한주일씩이나 나라의 강제생산을 못하게 한 책임을 저야지, 장본인은 당신이였구만.》

그러자 경민이 부소장앞에 나선다.

《직장장동무는 안되오. 가만 내가 가겠소.》

승범이가 전용차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성국을 막아서며 부소장앞에 마주선다.

《왜, 무슨 의견이 있소?》

《우린 다같이 가겠습니다. 여 동무들! 가자구.》

승범의 손짓에 압연공들이 옥 밀려온다.

부소장이 당황하여 소리친다.

《가만, 이건 동무들이 간참할 일이 아니요.》

《왜 우리가 간참할 일이 아닌란말이요?》

승범은 물려설 기세가 아니다.

《우린 수령님앞에 강편을 더 내겠다는 결의두, 두대치기두 다같이 했소.》

《웁소!》

압연공들이 한결같이 들고일어나자 붕규가 승범에게 소리친다.

《동무!》

그를 쫓아보던 성국이가 압연공들을 진정시킨다.

《조용들 하오.》

모두 조용해지자 성국이가 부소장앞에 다가 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나라의 강제생산에 혼란을 준 책임을 지겠소. 하지만 당신들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소.》

《뭘요?》

《당신들은 이 경민기사가 적들에게 압연기로르를 넘겨주었다구 했지만 우린 그걸 끝내 찾아내구야 말았소. 자, 보시오!》

붕규와 부소장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어린다.

《비록 폭격에 못쓰게 됐지만 경민기사가 청백하다

는건 증명됐소. 그런데두 기어쿠 해독분자요 공모자요 하는 당신들의 속심이 뭐요?》

말문이 막힌 부소장이 신경질적으로 뇌까린다.

《이건 누구앞이라구 감히.》

성국은 한결음 더 다가간다.

《당신들이 대답 못하겠으면 내가 말해주겠소. 당신들은 나라의 강재사정이 어떻소하구 떠들지만 속은 판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 높은 자리를 타고 앉아서 당의 로선을 받들 대신에 9만톤의 강재를 내자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당신들의 속심이 뭔지 우리가 모르구있을줄 알았소?》

허봉규가 김빠진 소리를 한다.

《닥쳐! 말이라구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줄 아는가?》

《듣기 싫어두 마지막까지 듣소. 당신들이 어두운 구석에서 쫓가락질을 한다구 해서 수령님을 받들구 당의 로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로동계급의 마음에 자그마한 실금이라두 가리랴구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요.》

그러자 검찰소 부소장이 《조서》를 내흔들며 악에 받쳐 소리친다.

《조서에 수표를 했으면 법앞에 나서야지 무슨 말이 많은가 앙!》

성국은 바위처럼 끄떡하지 않는다.

《난 스스로 법앞에 나서겠소. 하지만 우린 누가 뭐라 해두 기어이 압연기를 살려낼것이며 당앞에 맹세한 9만톤의 강재를 밀어내구야 가두 갈것이요.》

한편 경숙이와 분임이가 소식을 듣고 황황히 달려온다.

직장밖

성국이를 선두로 압연공들이 걸어나온다.

《아니 지배인동무가?》

환성을 울리는 압연공들.

차에서 내린 지배인이 급히 성국이네게로 마주 걸어온다.

《지배인동무!》

압연공들이 왁 모여들어 그를 에워싼다.

《수고들 했소.》

《지배인동무, 왜 이제야 옵니까? 글썄 직장장동무가...》

《아니 직장장동무가 어디 있소?》

한옆에 떨어져있던 경민이와 성국이가 천천히 다가온다.

지배인이 급히 마주가서 성국의 손을 잡는다.

《성국동무!》

《지배인동무!》

《수령님을 만나뵈웠소.》

《예?》

《아니?!》

압연공들이 환성을 울리는것을 보며 허봉규와 김

찰소 부소장일행이 비실비실 뒤걸음쳐 전용차에 오른다.

성국은 커다란 자책감에 잠겨 지배인에게 말한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로르를 찾았는데 폭격에 그만...》

《용기를 내라구.》

지배인이 성국이를 고무하며 압연공들을 둘러 본다.

《동무들! 수령님께서 중요한 회의를 뒤로 미루시고 실패를 일일이 보고받으신 다음 이런 교시를 주셨습니다.

<일없소. 마사진 기계야 고치면 되는거지, 동무들이 처음 하는 일인데 왜 실패가 없겠는가! 그런 일로 사람들의 문제를 그릇되게 처리하려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던 회의를 끝내구 인차 내려갈테니 나더러 먼저 내려가서 동무들을 안착시켜주라구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요?》

지배인이 성국의 손을 다시한번 으스러지게 잡으며 다음 말을 잇는다.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이 6만톤밖에 못낸다면 압연기에서 9만톤의 강재를 밀어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것도 성과지만 보다 중요한 성과는 아직두 자기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동상이몽하는자들을 옳게 가려본것이라구 교시하시었습니다. 성국동무!》

성국은 걱정을 누르며 지배인을 마주본다. 지배인이 눈에 물기를 담고 말을 잇는다.

《내가 떠나올 때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강선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이 이처럼 피로운데 그동무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소? 당을 믿구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던 성국동무가 나쁜놈들의 압력에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소. 내려가거든 누가 뭐라 해두 나는 그 동무들을 믿는다구 전해주시오. 당을 따르는 마음이 없이야 어떻게 그 동무가 공칭능력을 두배나 뛰어넘을 생각을 했으며 종파놈들을 짓부시구 당의 로선을 지켜낼 굳은 결심을 가질수 있었겠는가. 당은 성국동무와 같은 로동계급을 가지고 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소. 자랑으로말이요.>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성국이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얼굴을 싸쥐며 어깨를 떤다.

《수령님!》

감격에 목메여 얼싸안은 승범이와 춘보, 분임이가 눈굽을 훔친다.

지배인이 이번에는 경민의 손을 이끌고 나선다.

《동무들! 수령님께서서는 경민동무에 대해서도 교시하시었습니다. 나쁜놈들이 우리 당이 아끼는 지식인을 걸구들어두 우리 로동계급이 그 동무와 손잡고 함께 일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종파놈들이 그 동무가 적들에게 압연설비를 넘겨주지 않자

구 후퇴하지 못한걸 걸구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허물
이구 파오로 되겠는가. 그 동무가 적들에게 넘어갈
사람이면 그때 벌써 따라갔을것이라구 거듭 분개하
셨습니다.》

《기사동무!》

《직장장동무!》

성국이와 경민이가 걱정애 넘쳐 뜨겁게 포옹 한다.
서로 손을 맞잡는 분임이와 경숙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솟구친다.

이때 직장 구내차같이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며 들
어온다.

포옹하고있던 성국이와 경민이가 그쪽을 본다.

무개차판우에서 소리치는 주물공들.

《로르를 만들었소. 로르를!》

뜻밖의 소리에 눈길을 마주치는 지배인과 성국.

압연공이 마주 달려간다.

승범이가 성철이를 끌어안는다.

《성철이!》

주물공들이 기쁨에 넘쳐 소리친다.

《자! 보시오. 성철기사동무가 로르를 만들었소.》

차판우에 쇠밥이 붙은채로 있는 로로.

그것을 보는 성국의 얼굴에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
는 격동의 빛이 어린다.

경민이가 성철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성철이, 성공했구만 응?》

지배인도 기뻐하며 성철의 잔등을 두드린다.

《성철동무 수고했소, 정말 큰일을 했소.》

성국이가 로르를 끌어안는다.

눈굽을 적시며 로르를 끌어만지던 성국이 천천히
일어나 성철에게로 다가간다.

입귀를 실룩거리며 마주보는 성철.

《끝내 만들어냈구나.》

성국이가 걱정애 누르며 성철이를 와락 포옹한다.

《장하다, 장해!》

《형님, 제가 미처 형님 마음을 리해 못했어요. 이
제부터 마음놓구 두대치기를 합시다.》

《하자, 하구말구. 이젠 우리 수령님께서 마음을 놓
으시게 됐구나.》

성국의 목소리가 떨려나온다.

경민이와 젊은 가열공이 뜨거운것을 삼킨다.

성국이가 압연공들에게 말한다.

《동무들, 우리 수령님께서 살아있는 압연기를 보
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도착하시기전에 압연기를 조립
합시다.》

《합시다.》

환성을 울리는 노동자들을 미덥게 바라보는 지배
인.

성국이가 두손을 높이 들고 구호를 부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만세!》

뜨거운 걱정을 안고 파도처럼 설레이는 노동자들.
손을 맞잡고 기쁨에 넘쳐 바라보는 성국이와 성철
에게로 지배인이 다가와 둘을 함께 얼싸안는다.

영원토록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갈 그들의 결의를
담아 노래가 흐른다.

사나운 폭풍도 두려움 없으랴
우리의 진군을 막을자 누구냐
나가자 질풍같이 혁명의 전사여
수령님 따라서 당중앙 따라서
모두다 앞으로!

우리는 자랑스런 력사의 창조자
세기를 앞당겨 달리는 기수다
나가자 질풍같이 강철의 전사여
수령님 따라서 당중앙 따라서
모두다 앞으로!

- 《12만톤은 문제없다. 당의 붉은 전위답게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자!》

《공장과 건설장에 더많은 철강재를 보내자!》 고
쓴 구호판이 천정기중기와 함께 힘차게 육박해 온다.

-로르가 천정기중기에 매달려 조립장으로 간다.

-성국의 지휘에 따라 로르가 압연기에 조립 된다.

-이글거리는 전기로에 파철이 장입된다.

-로안에 석회석을 투입하는 제강공의 역센 모습,
장쾌한 출강,

-성국이가 조종간을 틀어잡고 강피를 밀어 낸다.

-로르사이로 보기좋게 빠져나가는 두대의 강피.

-끓어번지는 전기로의 쇠물.

-성철이와 경숙이 압연기를 바라보며 즐겁게 이
야기를 나눈다.

-강재가 그득 쌓인 적재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지배인, 성국, 승범.

-강재를 그득 실은 화물차가 구내를 벗어난다.

설화

《1957년!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가슴가슴에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뜨거운 열풍을 지니
고 이 땅우에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왔으며 그 열풍
속에 종파사대주의의 온갖 오물을 쓸어버리고 사회
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켰다.

지금은 하루에도 수많은 강재를 밀어내지만 간고
했던 그해에 12만톤의 강재를 내기 위해 강선의 로
동계급이 벌린 그 피어린 투쟁정신, 당중앙위원회를
보위하여 싸운 그 불굴의 투지는 오늘에도 필요하고
래일에도 필요하며 이 땅우에 혁명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전진운동의 전주곡으로 영원히 남아있을것
이다.》

-끝-

고임돌

김용원

어느 일요일의 한낮이었다. 보통강의 유보도 좁은 길에 들어선 우민은 보통강의 맑은 수면위에 비친 한쪽의 아름다운 도시풍경화를 보고 저도 모르게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탄성을 올렸다.

노을비진 수면우에는 날씬한 몸매를 창공높이 세우고 우줄우줄 들어선 창광거리의 고층건물들이 탑처럼 들어서있었다.

우민은 바라볼수록 눈뿌리 아득하고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고로 장마철이면 홍수피해로 이고장사람들에게 눈물의 강, 원한의 강으로 되었던 이 강기슭에 현대 문명의 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그 원한이 서리였던 강물은 기쁨과 웃음 싣고 흐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민은 이 세기적인 변혁을 두고 발자국을 떼지 못하고 굳어진듯 서있는것이다.

그는 위대한 당의 향도아래 일어난 공산주의 도시의 건축사를 기록해야 할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수 없었다.

생각하면 이 경이적인 건설에 깃든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그 빛발아래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의 건설력사를 학술적으로 기록하는 과제가 자신에게 차려진것이 더없는 영예로 느껴졌다.

우민은 가슴이 젖어드는 영예감을 되새길수록 10여년전에 전공분야를 대담하게 전파한 행동이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 부끄럽기도 하였다. 우민은 편협한 낡은 관념속에 해매던 나날들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석양녘이다. 저물어가는 해가 노을을 던지고 먼 산너머로 기울었다. 가로수에 모여앉아 지절대던 새들도 깃을 찾아가버린듯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아스팔트길우에는 방금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지나간 포장도로며 길랑옆에 구름을 허리에 휘감을듯 높이 선 고층주택의 맑은 창문들이며 모두가 노을빛을 받아안고 번쩍거린다.

아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건축가들과 건설자들이 충성의 열정을 기울여 일떠세웠고 또 세우고있는 건축물들은 언제 보나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천리마의 기상이 넘쳐나는 그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에는 설계로부

터 시작해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깊이 스며있는것인가!

거리를 지나오갈 때마다 황우민의 시선은 자연 건축물들에 쏠리였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이 흥분으로 뒤설레군한다. 그것은 그가 건축학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여서 더 그러는지 모른다.

우민은 XX대학의 부교수며 건축학일반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전문하는 강좌의 강좌장이다. 어언 록십고개에 오르는 몸이지만 언제 봐도 정바르다.

어느 모로 보나 주체적인 우리 건축학의 위용이 자랑스럽게 안겨오는 건물들과 주택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우민은 갑자기 이마를 찌프렸다. 오는 방과후에 본 외국기술잡지의 생각이 또 나서 기분을 잡치게 하는것이였다.

새로 나올 강좌의 교수를 위한 건축력사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그루빠에 얼마동안 동원되어 있는 그는 오늘도 어느날처럼 자료분석을 위해 동서고금의 서적들을 들추고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한 외국기술잡지를 읽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거기에는 우리 나라 고대건축술에 대하여 쓰면서 그 웅장하고 우아한 기교 그리고 건축구조의 민족적특성과 각이한 양상을 띤 건축술이 어떤 다른 나라의것을 수입해다가 모방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대목이 있었던것이다. 그는 몹시 흥분하였다. 유구한 력사를 내려오며 동방에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왔으며 오늘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우리의 건축학을 천리마의 기상이 뿜어넘치는 훌륭한 건축학으로 개화발전시킨 조선인민을 이렇듯 모독한 사실에 대하여 그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죽일놈들, 언제 봐도 그런 궤변이거던.》

그는 눈을 홉뜨며 혼자소리로 된옥을 퍼붓는다. 화가 동해 걸음은 절로 빨라진다. 폭 눌러쓴 중절모가 전를거리고 코드자락이 너뿔거렸다.

집에 들어온 그는 저녁을 대충 들고 물러났다. 도무지 입맛이 소래같이 썩다.

《아버지, 왜 저녁을 이렇게 하세요?》

딸 영숙이가 의혹이 담긴 얼굴로 물었다.

《많이 먹었다.》

밥상을 들고 나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우민은 웃방의 서재결에 놓인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그리고는 애꿎은 담배만 뻑뻑 빨아서 어지럽게 연기를

내뿔었다.

영숙은 아래방에서 우민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때때도 오랜 지식인으로서의 보수적인 것이 나타나 젊은 교원들의 말밖에 오르는데 혹 그런 일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털경 했다. 그는 답답해나서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의 질문은 우민의 명상을 깨쳤다.

《뭐 별일없다. 공연히 네가 로파심이 앞선것 같구나. 그저 좀 생각되는것이 있을뿐이다.》

그는 딸의 애원에 찬 눈매를 지켜보며 말을 건네었다.

영숙은 그 말에 불안하던 마음이 한결 덜어졌으나 의문은 여전했다,

《아버지, 그 생각하시는게 어떤 문제야요? 제 생각엔 매우 심중한 문제같은요.》

《네게는 언제나 숙일수도 없구나,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들여다보는지.》

우민은 가볍게 웃음짓고나서 한 외국의 기술잡지에서 우리 나라 고대건축술을 모독한 사실과 그 때문에 자기가 흥분했다는것을 털어놓았다.

영숙은 자신이 공연한 근심을 하고있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도 참 늙으셨는가봐요. 로인들은 찍하면 성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가봐요.》

《그럼 이 사건이 작은것 같으나. 그래 성낼 일이 안된다는게냐?》

우민은 딸의 손목을 잡아서는 옆걸상에 앉았다.

영숙은 우민이가 잡아끼는대로 앉았다. 여성이 전에없이 높아진 아버지를 뵈수록 진정시켜야 했다.

《그럼 아버지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성이나 내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아요. 또 왜놈의 투기적인 학자나부랭이들이 설사 우리 나라의 고대 건축술을 모독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될게 아니야요.》

우민은 입맛이 쓴지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고는 또 담배를 붙여물었다.

《너도 이제 한 대학의 어엿한 교원으로 되었다 만 말하는걸 봐선 아직 철이 안들었구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보며 이룩해놓은 건축유산을 모독하는놈들을 두고 어찌 참을수 있겠냐?》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 조선민족은 고유한 건축술과 건축형식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자랑스럽고 우수한것을 <모방>이요 뭐요하는 사기꾼들을 강건너 불보듯 해야 하겠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내가 성을 낸것이다.》

《...!》

영숙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기상을 모독하며 민족적존엄을 짓밟으려는 왜놈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처럼 절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존엄을 고수하는데서 나타나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건 옳은 말씀이예요. 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을 노엽게 생각지 마세요. 저로서는 그걸 너무 단순한 감정에서 한 말이었어요.》

《알겠다. 그러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겨야 할뿐아니라 그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것이다.》라고 우민은 근엄한 목소리로 말끝을 맺었다.

영숙은 깊은 상념에 잠겨 아버지의 숙연해진 모습을 지켜보다가 별무리 총총한 창밖의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무거운 정적속에 채록채록 귀뚜라미소리만이 간간이 울렸다.

× ×

마가울의 바람도, 훑날리던 락엽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대기는 제법 동지달의 매운 기운을 풍쳤다. 으스스한 그늘밑에는 밤새 찬바람에 얼어붙은 살얼음이 아침해빛에 유리알처럼 반짝이였다. 정원안에 드문드문 선 활엽수들도 이른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가는 가지들을 흔들거렸다.

대학교문에 들어서서는 우민은 목을 두어깨사이에 깊숙이 움츠리고 안전치 못한 걸음을 내딛군했다. 얼굴엔 소름이 한벌 덮였다. 추운 모양이다.

손에 든 가방은 무엇이 잔뜩 들었는지 배가 볼록하다.

우민은 한달푼이나 강좌사업에서 떨어져 교무부에서 조직한 건축사를 체계화하는 일에 나가있다. 한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쌓아온 건축유산들을 연구분석하여 정리해야 하는만큼 일을 빨리 끝낼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일단 무엇을 잡기만 하면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력이 아마 그를 교육자로서, 과학자의 일면까지 겸비하게 했는지 모른다.

현관앞에 이른 우민은 한동안 주춤거리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강좌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강좌일이 근심이 된것이다.

요즘 우민은 몸은 한곳에 잠고있으나 정신은 두 곳에서 살고있었다. 아무리 강좌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 건느끔씩 강좌에 들러 새로 제기된 일과 처리된 사항들을 듣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곤 했다. 이런것으로 하여 부학장은 우민에게 공연히 강좌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이쪽 급한 일이나 령량을 더 돌리라는 충고도 하였다. 강좌장인 우민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지낼수 없었다.

해서 이날 아침도 그 착잡한 사색속에서 잊지 않고 먼저 강좌에 찾아들어가는것이였다.

우민이 강좌에 들러 여러 선생들과 그간 형편을 듣는데 책상 한귀쪽에 놓인 전화가 요란히 종을 울렸다.

우민이 수화기를 드니 우민강좌장이 있는가고 묻는다. 자기라는것을 알리자 저쪽에서든 대번에 전화소리가 높았다. 부학장이였다.

《강좌장선생, 또 거기에 들리셨구만요. 빨리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선생들은 누구나 다 강좌일을 걱정하지요. 하지만 대학적으로 하는 큰일을 더 중요시하고있는데 여기에 정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민은 대답을 못한채 수화기를 힘없이 놓았다.

그는 강좌교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처리방도를 토론해주고 곧 강좌에서 나왔다. 시계를 보니 부학장한테서 전화를 받은 때로부터 퍼그나 시간이 지났다.

대학구내는 비온 뒤끝처럼 조용하였다. 이따금 찬바람이 마른 모래알을 굴리며 스쳐가는 가벼운 소리만이 들렸다.

우민은 바쁜 때 늘 그러하듯 허리를 구부정히 숙이고 자료조사실로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서니 훈훈한 기운이 몸을 휘감았다. 부학장이 와있었다. 무척 기다렸던 모양이다. 지친듯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애꿎은 담배만 풀썩 풀썩 태우고있었다.

《이거 지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랑해를 구했다.

《강좌 일은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아래사람들을 꼭 믿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교원들은 자기들을 어린애로 취급한다고 로골적으로 불만을 말하고있는데요.》

부학장은 웃음띤 얼굴로 말했다.

《믿지 못하는게 아니라 다 자기 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그런거겠지요.》

《그 근심이란게 바로 아래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로파심에서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민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지나친 말씀인것 같군요.》

《지나치게 아니라 나는 그 못미더워하는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부학장도 저으기 기분이 상하여 담배를 꺼내 붙여 물었다. 제정된 기한대에 빨리 일을 끝내야 하겠는데 자꾸 우민이 자기 강좌에 들리군하여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을것 같아 여간만 안타깝지 않은 그였다. 벌써 한두번 충고를 준것도 아닌데도 우민이 들은승만승하니 화가 안동할리 없었다.

《강좌장동무, 그래 우리 나라의 건축사자료연구와 정리안은 어떻게 돼갑니까?》

우민은 상한 기분을 가가스로 돌리며 대답했다.

《아직 연구를 심화하든 단계입니다. 그것을 정리할 안을 내놓는다고 하기는 이르군요.》

《그러면 자료연구는 언제까지고 정리안은 언제까지면 될것 같습니까?》

《정리안은 이달말까지면 초보적으로 될것 같고 자료연구야 계속해야지요.》

《일이 굵튼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것만큼 시간문제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지 않습니까?》

부학장은 우민을 초조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무슨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것을 암시하고있었다.

한 나라의 건축자료를 력사적으로 체계화하는것을 단순히 좋이에다 대고 옮겨놓을수 있는가? 한데 부학장은 이것을 들여다보는것 같지 않았다. 이 부학장은 무슨 일이건 포치한 뒤면 이어 독촉이 불같아서 그밑에서 좀체로 숨들리기도 가쁜감을 늘 느끼는것이다.

《시간문제가 이 사업을 결정할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더 잘하자면 충분한 자료연구에 관심을 두는게 좋지요. 덤비다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리안을 내놓으려는것이니 이달말까지만 시간을 주시지요.》

부학장은 그의 말뜻을 알겠다는듯이 고개짓해보이였다.

《일을 실수없이 하자는 강좌장선생의 의견은 좋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시간적으로 중요시하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일을 좀더 다그칩시다. 다그친다구 망탕 하라는게야 아니지요. 시간적예비를 더 동원하여 이달 20일경에는 초보적인 정리안을 내놓도록 합시다.》

《해보지요.》

우민은 뜨직하게 대답은 했으나 그 시간적예비란

무엇을 녀두에 두고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우민은 그가 필경 자기가 강좌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것을 녀두에 두고있는것이라고 느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 우민에게 부학장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강좌일은 든든한 교원들이 있으니 잔걱정을 말고 손을 떼시고 이쪽일에만 역량을 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우민은 그가 말한대로 좋게 대답은 했으나 이제 20일까지 초보적인 정리안을 내놓는다는게 수월치 않는 일이였다.

어떻게 하든 이 일은 약속한 날자까지 초보적인것을 내놓아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그러면서도 우민은 《아래사람들을 믿지 않는 표현》이요 뭐요 하면서 부학장이 자기의 태도를 제단으로 규정지으며 한 말들이 쉽게 새겨지지 않았다.

× ×

기다리는 날과 달리 잡아놓은 날이란 네발가진 짐승처럼 잘 달아난다고들 하더니 짜장 정해놓은 날은 빨리도 갔다. 우민이 부학장과 약속한 날자는 어느새 지났다. 산더미같은 고문서를 들추며 문제될것은 따로따로 자료를 뽑아 분석해나가면서 건축사정리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일이 잘되고 못된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약속한 날자에 어김없이 해놓은 일이라 마음만은 홀가분했다.

작성해놓은 정리안은 몇가지 의견이 있었을뿐 큰 의견이 없어 합의된셈이다.

지나온 일을 더듬어보면 연구와 모색, 론쟁 그리고 날아오는 독촉 등 실로 복잡다단한 일과속에 지내왔다.

이제는 그 거대한 민족건축의 우수한 특징들을 비판적견지에서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남았으니 간단치 않다. 그 복잡한 일을 눈앞에 그려보는 우민은 아득한 일로만 느껴졌다. 일의 무게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시일은 길고도 멀어만 보였다. 저 방대한 일을 언제 다 끝내고 강좌에 돌아가랴 생각하면 조급증이 나기도 하였다.

일단 초보적인 《정리안》을 내놓은 오늘 저녁에야 강좌에 좀 들러 그동안 벌어진 일들이나 좀 알고 선생들과 학생들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문밖에서 기침소리가 나더니 부학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 강좌장선생이 계시누만...》

부학장은 견해없이 반가와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민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뭘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신 덕에 초보적인 체계라도 해놓았으니 앞으로 할 일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해서 두루 들렸던것입니다.》

우민은 머리속으로 무엇인가 생각을 더듬더니 이어 이렇게 말을 했다.

《이젠 그 체계에 따라 자료연구를 심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료야 심화해야지요. 헌데 자료들은 더 요구 되는것이 없습니까?》

《자료는 보충적으로 요구될수 있으나 아직은 어떤것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동원된 교원들의 역량을 잘 조직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해봅시다.》

우민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이야기가 간단히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부학장은 자리를 깊숙이 잡고 앉아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이윽히 시간이 흘렀다. 우민이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었다. 삽시에 방안에는 담배연기가 뽕얇게 찼다.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말없는 가운데 서로의 시선만이 오고갔다. 이윽히 생각에 잠겼던 부학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좌장선생, 한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가합니다.》

우민은 의아한 빛으로 부학장을 건너다보았다.

《...?!》

《실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말아주실수 없겠는가말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우민은 더욱 놀란 나머지 그자리에 납덩어리처럼 굳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수 없군요.》

《선생이 이번에 새로 내오는 건축사강좌를 맡아 주실수 없겠습니까?》

《거야 새 강좌장이 올 자리가 아닙니까? 또 그 부문에야 내 능력에도 겨운곳이지요.》

그의 말속에는 개개의 인간은 자기의 능력에 알맞는 자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이 풍겨있었다.

《새로 올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강좌 일이 딱 해서 그렇습니다.》

우민은 무엇에 머리를 탕 부딪칠 때처럼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대답을 못하고 저물어가는 창밖만 내다보았다.

《당장 대답하기가 힘드시면 두고 생각하십시오. 다음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부학장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이튿날 자료편수실에 들어박혀 수집된 자료를 연구하던 우민은 저녁무렵 교무지도원한테서 교무부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자 어제 부학장이 오늘 다시 만나자던게 생각났다. 내키지 않는 걸음이지만 할수 없었다. 한편 그는 부학장이 요구하는 문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다른 교수들도 있는데 구태여 자기에게 그런것을 요구하는것은 자기자신이 너무 어리무리한고 때로는 순진한 약점에서 오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것이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 같기도 하였다.

교무부에 들어선 우민은 인사를 나누고 내주는 의사에 앉아서 부학장의 말이 떨어지지만 기다렸다.

《그래 생각해보셨는지요?》

《생각해보았으나 건축공학을 전공해온 저로서는 그 분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민은 딱 잘라 말했다.

《물론 그 부문의 학과를 오랜 기간 전공해오시며 토대를 쌓아온터에 그럴수 있겠지요. 그러나 같은 건축학부문인것이고 또 대학실정이 그러니 어찌겠습니까.》

《부학장선생도 교육이나 과학사업의 전문적특성을 아시겠지요. 너무 무리한 요구같습니다.》

우민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선생의 말씀이 오히려 지나친것 같습니다.》

부학장도 저으기 흥분되어 성급히 담배를 붙여 물었다.

《적당히 해석하십시오. 허나 나는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우민의 말에 부학장은 끝내 흥분을 삭이지 못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뚜벅뚜벅 오고갔다. 이윽하여 그는 우민의 앞애가 멈춰섰다.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하셨지요. 그걸 알기에 선생의 자각성에 호소하는것입니다. 강좌장 선생, 선생은 교육자라는것을 잊으신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교육은 혁명사업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선생은 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현실이 바로 선생에게 그러한 위치를 요구하는데 과연 개별적인 과학자의 특성이나 운운하고있어야 할가요.》

《자리를 운운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함과 저의 자질을 놓고 말하는것입니다. 교육사업이자 과학사업일것입니다. 나는 20여년간을 이 부문 과학을 탐구하면서 일정한 토대를 닦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내가 있던 강좌에서 전공부문을 더 심화해간다면 혁명에도 더 유익할것이지요. 그러나

새 강좌야 저에게 생소하지 않는가 요.》

부학장은 그 말에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실상 우민은 지금 있는 강좌에서 과학을 연구하면서 학위논문도 내놓았고 부교수로도 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부문 과학의 로련한 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개별적과학자나 교육자에게 희생으로 생각될수도 있지요. 허나 거대한 혁명사업을 놓고 보면 그러한 개인적문제를 복종시킬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부문 과학은 주인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별문제이지요.》

《별문제일가요. 좋습니다. 좀더 생각해보고 결심하십시오.》

부학장과 인사를 나누고 문밖으로 나오는 우민은 마치 발목에 납덩어리를 달아맨것처럼 무거웠다.

숲을 거슬러오는 매운 바람이 터벅거리며 걸어 가는 우민을 밀쳐버리듯이 세차게 불어쳤다.

우민의 머리는 착잡했다. 담배에다 머리를 부딪친 것처럼 멍하고 눈앞이 흐릿했다. 복잡해진 머리를 가지고서는 그대로 잠들수 없을것 같았다. 그래 이윽히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 당위원회로 걸음을 옮겼다.

당위원회의 창문으로는 불빛이 환하게 비쳐나왔다. 우민은 본청사의 현관에 반달음쳐 들어섰다. 당위원회앞에 이른 우민은 문고리를 잡은채 멈춰 섰다. 채 닫기지 않은 문새로 부학장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후대에 대한 교육보다도 자기의 전문과학을 더 귀중하다고 여깁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당비서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물론 그들이 결함은 있지요. 고쳐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방법, 그 웅변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듣고보면 엄중한것 같기도 하나 따지고 보면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민강좌장만 해도 그가 20여년을 전공한 과학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옮기라는 말은 그에게 청천벽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과학자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부문과학을 무척 사랑하지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거기에 그의 생의 보람과 락이 있고 그 것으로 혁명사업에 이바지하니까요. 그런것을 당면한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과업이니 하라는 식으로 한두번의 말을 해서 응해나설것 같습니까?》

《… … …》

대답이 없자 다시 당비서의 웅글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교육자로서, 아니 과학자로서의 우민선생의 생애는 곡절이 있지요. 부학장선생은 그의 개인적인 명예문제를 중시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진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과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마 정전이 되기 직전이였을것입니다.

그때 그는 군대에서 병사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소환되어왔지요. 그는 전쟁기간 과학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원래 그는 지금 동원되어 말아하고 있는 그 부문의 건축학을 전문하였지요. 그는 해방후 남반부에 있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과학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남반부에 정치공작대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군대에 편입되었지요. 결국 우민선생은 해군에 가게 되었지요. 거치시 그는 젊은 청년들과 같이 병사생활을 했지요.

수염이 끼칠한 덩석부리교수가 녀학생의 세라복같은 해군복에 땡기꼬리가 달린 뚜껑모자를 쓰고 말입니다. 그는 갑판위의 마스트에 올라 수기를 들고 신호수를 했었지요. 그리고 선동원도 하면서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병사들속에 불어넣어주면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판가리싸움에 그들을 고무추동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그는 상부의 소환을 받고 우리 대학에 왔지요. 그때에 지금 그가 강좌장으로 일하는 강좌가 새로 나왔는데 교원들이 없어서 연구생들이 한두명 있었을뿐이었습니다. 교원들은 그 강좌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나온 강좌로서 학문적으로 기초가 없었지요. 현대 제대복을 입고 뒤풀에 앉았던 우민교원이 불쑥 일어나 서 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 제가 가지요.> 하고 자청해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병사시절의 전투적기백이 넘쳤지요.

사실 그는 전쟁전까지만 해도 지금 동원되어 하고 있는 그 부문의 건축사를 연구하였지요. 그러나 그때 그는 그러한 과학에 대한 개인적위치보다도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 더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알았지요. 이렇게 되어 오늘 우리 대학의 그 강좌는 그만큼 든든한 기초를 쌓고 나갈수 있었지요.》

말은 끊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민은 코허리가 켜해왔다. 정녕 당조직은 자기를, 아니 우리 과학을 연구하는 교원들의 심정을 깊이도 알고 있으며 이해해주는것이 었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당조직의 뜨거운 손길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우민은 문결에서 물러났다. 그는 고개를 숙인채 천천히 현관쪽으로 걸어나갔다.

× ×

해는 중천에 뻗는가싶다. 창밖에서 눈부신 태양의 빛발이 방안이 환하게 비쳤다. 조용한 방안에서는 찰각찰각 하는 탁상시계소리만이 들린다. 이따금 걸썩 바람이 문풍지를 뽁뽁 울린다. 사택앞에선 전선줄도 뽁뽁 거린다.

우민은 침대에서 일어날줄 몰랐다. 지난밤부터 신열이 나면서 몸은 오한에 떨렸다. 그간 피로에 지친것 같기도 하고 독감이 온것 같기도 하다.

앉아있으면 머리아픔이 심해서 머리를 들수없다. 이따금 쿨럭쿨럭 깃는 기침소리는 흥벽을 웅그르는 둔탁한 소리여서 자신이 듣기에도 기분이 상했다.

(사람이 나이가 차니 차차 감기에도 맥을 못쏜단말이야.)

그는 어딘가 의지마저 약해지는것 같았다. 누워있는것이 무척 답답했다.

우민은 앓으면서도 줄곧 강좌를 새로 맡으라는 문제를 두고 생각이 깊어졌다. 조속한 시일내에 결말을 지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할것만 같았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있는 때처럼 어깨에 압박감을 느끼었고 늘 불안정한 심경에 잠기게 하였다.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 했다는 격언의 진속도 생활의 법칙을 정식화한것이라고 여겼다.

우민은 자기의 동료들이 연구한 과학적저술들을 보면 그들이 무척 부러웠다. 자기와 같이 과학의 문턱에 들어서서 이젠 그 부문에서는 거목과 같은 로련한 위치에 앉아 학계를 진동케 하지 않는가?

우민도 남과 같이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부문에 하나의 기초라도 닦아놓고싶었다. 즉 자기 부문 과학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여 집대성하고 싶은 욕망이다.

우민은 그러한 지향을 어떤 야심이나 명예나 공명을 탐내는데서 하는게 아니라 마땅한 희망이며 지향이라고 보고있다.

아마도 이러한 희망이 이 오랜 교육자이고 과학자인 그를 한결 젊은 정력가로 만드는데 뒤받침을 하고있는지 모른다.

점심때가 지나서부터 약물의 효능이 컸었는지 무겁던 몸이 때를 벗긴 때처럼 가벼워졌다.

땡하던 머리도 개운해졌다.

사람들에게 건강이 기본과 행복의 전제라더니 하

루밤 앓고난 뒤라 그런 생각이 더 간절히 떠올랐다.

그는 저녁 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더운물에 꿀을 타서 한종발 들여마시고는 일어났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는 대학 당위원회 회로 찾아가고싶었다.

그때 밖에서 영숙이가 들어왔다. 뒤이어 누군가 또 따라들어왔다.

현관앞에서 주춤거리던 우민은 짊어가는 어둠속에서 저편의 모색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니, 당비서동지가 이게 웬일이십니까?》

우민은 한발 나서며 반색하면서도 놀랐다.

《왜 못을 집에 왔던가요. 편찮다고 하시던데 어떨 하시렵니까?》

당비서는 사람좋은 웃음을 섞어가며 걱정을 하였다.

우민은 대학에 나가던 길이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던 당비서는 우민의 손을 잡아쥐고 방안으로 끌었다.

《몸도 성치 못하는데 저문날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서 꼭 쉬십시오.》

우민은 손목을 잡힌채 방안으로 들어갔다.

어린애들이 없는 방이라 정결하다. 장판바닥은 어찌나 깨끗이 닦고 닥달질을 했는지 유리알같이 번들거린다.

우민은 추운 겨울날 저녁에 당비서가 문병을 온것이 미안스러웠다.

우민이가 권한 담배를 받아 불을 붙인 당비서는 한낮이 지나서야 영숙선생을 통해서 앓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앓는 몸은 넘려하였다.

《그동안 약하신 몸에 너무 무리한것 같습니다.》

우민은 앓던 사람같이 앓게 소탈해지며 머리를 도리질해보였다.

《무리한게 있습니까? 그동안 몸을 잘 간수 못한 탓에 그만 감기에 붙들렸지요.》

《하기야 그 감기란게 우습게 보이면서도 걸리기만 하면 황소같은 사람도 맥을 못춘단말입니다. 하하...》

《황소같은 사람이 넘어가니 나같은 약질이야 영낙없이 되었군요. 허허...》

우민은 허겁게 웃었다.

《강좌장선생도 몸단련을 좀 하시지요. 거 랭수마찰은 지금 시작해서는 안되겠지만 마른 수건으로라 두 몸을 문대어서 피부를 단련시키면 저항력도 강해지면서 감기같은것은 접어들지 못하지요.》

당비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수년째 랭수마찰을 하여 몸을 단련하는데 감기는 앓지 않는다고

했다.

정말 우민은 당비서가 앓아눕는것을 보지 못했다. 자그마한 키에 중년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불그레한 낮색, 근엄하게 타는 두눈과 짙은 눈썹, 짙어진 가슴 등은 단련된 건강미를 말해주었다.

우민은 부러운 눈길로 당비서를 바라보았다.

당비서는 집안팎의 살림형편을 깐깐히 캐묻고 애로되는게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우민이 앓아누운터에 며칠은 누워있을줄 알았는데 일어난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면서 당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꼭 땀을 내시고 몸조릴 잘하십시오. 시간도 늦었는데 가보겠습니다.》

《좀 더 앉아계시면서...》

《또 오지요.》

당비서는 웃으며 벽에 걸린 외투며 모자를 벗어 들였다.

우민이도 따라 일어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통 생각이 안났다. 그는 이 밤에 한번 꼭 찾아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당비서가 일어날줄은 몰랐다.

그는 외투를 입고 뒤따라 나섰다.

《어디 하시렵니까? 어서 들어가십시오.》 당비서는 그가 나오는것을 한사코 말리었다.

《넘려마십시오.》

우민은 당비서의 곁에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었다.

《들어가보시지요.》

《예 편찮습니다.》

거리는 조용하다.

줄지어선 창자물에서는 밝은 불비들이 흐르고 있었다.

우민은 두루 할 말을 더듬는듯 차갑게 내려비치는 달을 쳐다보았다.

그는 먼저 자기 문제를 꺼내든것이 체면쩍었으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비서동지,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만 글썽 정 다른 강좌로 가는데 어떤가고 의견을묻는데 참.》

《예, 그 말씀은 알고있습니다. 헌데 선생께서는 그걸 잘못 이해하지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새로나온 강좌사정이 딱해서 의견을 물으신것 같은데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당비서는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민은 그가 상심하지 말라는것이라면 결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내 긴장했던 탓으로 그 말이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주어서 한숨

이 홀 나갔다.

《부학장선생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자상히는 모르겠으나 대학실정으로 말하면 그 강좌사정이 매우 어렵지요.

아마 유능한 선생에게 그 강좌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에게 의견을 물은것 같습니다.》

《저야 뭐 그 강좌에 적합치야 못합지요.》

우민은 자세를 낮추며 슬그머니 발뻘하는 태도를 취했다.

《선생은 자기 전공부문의 과학을 연구하여 그 부문과학의 정연한 이론체계를 세우면서 그것으로 20여년간 후대들을 교육해왔지요.

이런 교원들에게 현실에서 제기하는 절박한 과학 부문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부문의 강좌를 맡으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그것때문에 고민을 하며 섣뜻 나서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당비서는 곁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민을 돌아보며 조용히 건네었다.

《저도 때로 야속한 생각이 들었지요.》

《왜 안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대학의 로교원들을 보면 자기 전공부문의 과학을 수십년간 연구하면서 그것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는것이 교육계나 학계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되고있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빨리 추켜세워야 할 새로운 부문의 과학발전이 제기되었다면 이 문제를 누가 담당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도 로교원이며 유능한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교원이 가야 하겠습니까? 유능한 학자이고 교수들이지요. 전인미답의 수풀 길의 찬이슬을 차고 고행길을 헤치며 위대한 전환기에 세워질 만년대계의 창조물의 터전을 닦아줄 참다운 교육자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선생이 지난 시기에 이미 그 부문의 과학을 연구해온적도 있고 또 같은 건축학분야이니 선생에게 의향을 들으셨던것 같습니다.》

우민은 이윽히 힘주어 말하는 저쪽의 말에 무슨 말로 자기의 딱한 심경을 열어보였으면 좋을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뜻은 알만합니다만 저로 말하면 원래 남보다 뒤떨어진터에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자신을 너무 낮추십니다.》

《... ..》

《어떤 학자는 종래 관습대로 자기의 전공과학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치는것을 과학자의 행복이라 하더군요. 물론 거기에서 신념이 꽃필수 있기때문일것

입니다. 그러나 어찌 거기에만 과학자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를 향해서 전인미답의 원시림을 헤쳐가면서 탄탄한 기초를 쌓아주고 그 터전위에 젊은 세대대들이 위대한 창조물을 세우게 하는 과학자나 교육가의 길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허나 그러한 현실문제에 뛰어드는게야 새로 출발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할수 있지요. 어디 우리 같은...》

우민은 로교원들에게는 당치도 않다는 뜻을 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사업을 겸하는 교육자에게 있어서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전공하는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들에서 자기를 찾아주고 찾아오게 하는 때는 정말 즐겁고 보람찬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사회와 인민대중속에서 비상히 활약하고 시대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때문이지요.》

《그것은 아마 그런 경우에 과학자는 레외로 되겠지요.》

우민은 스스럼없이 튕겨주는 비서의 말이 유쾌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에 리상과 행복을 두고 논쟁을 하던 때를 련상시켰다.

《거야 과학자일 때 더욱 절실한 문제일수도 있지요.》 하면서 당비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지금까지도 과학사업을 겸임한 대학교원들은 자기 전공부문과학을 평생을 두고 연구하는 한편 그 부문에서 이룩한 실천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것을 자기의 성실성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옳다.

하지만 발전하는 현실은 지식의 전달자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새시대의 인간들을 육성하며 그들이 나갈 큰길을 열어줄것을 요구한다. 세대대들은 자기의 선행한 세대대들이 길을 열어줄것을 기대한다.

그런것만큼 경우에 따라 이미 열어놓은 길을 세대대들이 담당행나갈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은 마땅히 혁명의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고 전인미답의 새 과학의 령마루를 향해 젊은 세대대들이 나갈수 있는 탄탄한 길에 뿌리처럼 깊숙이 내린 《고임돌》이 되어야 할것이다...

우민은 무언중 어깨가 무거워났다.

시대가 제기하는 《고임돌》이란 대명사는 자기의 기성관념으로써는 전혀 리해할수 없는 숙제거리였다.

《고임돌!》 그는 몇번이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그 강좌의 선생들이 아마 우민부교수선생을

자기 강좌에 보내줄것을 강경히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그 선생들이요. 아, 제가 그 부문이야 뭘 안다구요.》

《기쁜 일이지요. 다른 부문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어주고 찾아준다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긍지높은것 이겠습니까?》

《고마운 일갈지만서두 과학을 기초로 하는 교육실천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우민의 마음속엔 그러한 사실 자체를 감상적으로 분석하면 금지롭고 영광에 찬 일인듯하나 한 과학자가 다른 과학부문으로 전과한다는것은 과학자로서의 종말이라는 관념이 슬며시 머리를 쳐들었던것이다.

그들은 어느덧 빠스정류장까지 이르렀다.

《이거 말에 정신을 팔다보니 지내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당비서는 앓는 사람에게 피로를 가져온것 같다고 덧붙였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생각해주시시오.》

우민은 비서와 인사를 나누고 걸음을 옮기었다 길에는 길손도 뜸했다. 대동강을 스쳐오는 찬바람이 목깃으로 스며들었다. 그때마다 몸이 오싹해왔다. 그러나 심한 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우민은 길을 어떻게 걸어서 집에까지 왔는지 저로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불밝은 서재에 들어가 팔굽을 꼬이고 앓은 우민은 당비서의 말을 깊이 음미해보았다.

수년을 그의 밑에서 당생활을 지도받아오나 어느때나 그를 보면 마음이 후련해졌다. 비록 잘못이 있어 비판을 받는 경우에조차 존경이 가는것이였다.

어떤 선동력과 웅변으로 사람의 심장을 충동시켜 문제를 푸는것에 있는것도 아니였다. 모든 교원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일깨워주는 부드러움이 있는것이였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을 따르듯이 우민은 무엇이 걸리면 스스로없이 찾아가곤했었다.

우민의 머리에는 당비서가 하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과거엔 하나의 부문과학을 연구하고 그 지식의 전달로써 교육자의 성실성이 표현되였다면 현실은 우리의 후대들이 끊임없이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닦는데 고임돌이 되어줄것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

말뜻은 간단했다. 일생을 하나의 부문과학을 쥐고

나가지 말고 후대들이 그 부문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초를 쌓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는 건축학일반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전문하는 자기 강좌의 과학사업을 보면 젊은 교원들에게 맡겨도 자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것이 뻔히 내다보였다.

헌데 자기가 20여년간이나 남모르는 고민과 모색, 탐구와 실패, 론쟁, 실험과 리론의 체계화 등 평탄치 않은 길에서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되도록 쌓아온 그 모든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을 생각하니 아쉽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말이 고막을 때리며 되살아났다.

《선생, 이것을 강요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강좌의 젊은 교원들이 애타게 선생을 보내달라고 제기합니다. ...남이 자기를 진심으로 불러주고 찾아준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시절입니까?》

무엇인가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져가는듯한 허전한 감정과 막막한 정서에서 자기를 부르며 찾고 있다고 하는것을 상기하니 마음 한구석이 후더운것 같았다.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마음은 피로움에 설레고 잠은 오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 들어온 아버지를 지켜보는 영숙은 공연히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묻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복잡한 심리를 알수 있었다. 그는 오는도중 당비서로부터 요즘 아버지에게 새 강좌를 맡아달라는 의향을 교무행정에서 물었다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과학사업을 겸하는 교육자에게도 그런 전과가 있을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차차 당비서의 말을 듣고서야 교육자는 후대들을 과학의 창창한 바다로 이끌고가는데 그들이 디디고 설 기초에 《고임돌》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느끼고 저으기 마음이 격동되었던것이다.

그동안 아버지가 감기로 앓을것으로만 생각한 영숙은 남모르게 마음도 앓았다고 단정하게 되었으며 그걸 모르고있는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가기도 했다.

흔히 보면 교수들은 제자들을 훌륭한 과학자로 기르는것보다도 로년기에 남은 그 시간에 자기가 전공한 과학연구자료를 리론적으로 완성하여 큰 저작이나 남기자는 욕망에 더 매달리는것 같았다.

아버지만 봐도 준박사가 된지가 15여년이 넘었으니 그때부터는 박사론문을 내놓아야겠다는 걱정을

앞세우는것이였다.

이제 와서 보면 차라리 아버지에 대한 문제도 다른 강좌를 맡아달라고 동의를 구할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가시오.》라고 했으면싶었다.

그러한 문제를 맡아서 아버지는 능히 할수 있을것 같았다. 큰 의미에서는 같은 건축학인것이고 몇 파에 그 부문을 전공한 전적도 있지 않는가.

정작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자고 하니 망설임이 앞섰다. 그러나 그의 고민을 덜어주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권고했다.

《아버지가 그 새 강좌를 맡아주신다면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의 힘이 될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아버지는 시대의 락오자로 될거예요.》

우민은 락오자란 말에 필쩍 뛰었다.

《그렇게 시대의 락오자로는 안될게다. 꼭 그 강좌에 가야 시대의 적응자로 된다는거야 없겠지.》 우민은 온몸을 흔들며 웃었다.

《아버지 진정이야요.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영숙은 아버지의 세대에서는 어떤 타산을 전제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새 세대들은 그러한 타산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여 그 일의 절박한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하고있다고 덧붙이였다.

우민은 딸이 자기를 놓고 이제는 어떤 공명에 미친 젊은 사람처럼 취급하려는데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그는 아버지도 그러한 타산을 했다면 한때 자기의 전공부문과학을 버리고 지금의 이 과학을 자청해 말았겠는가고 따져물었다.

우민은 심각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며 변명하듯 이렇게 말했다.

《철없이 모르면 가만 있어라. 그때와 지금은 내가 처한 처지가 달라졌다는 사정이다.》

《아버지 처지 달라지셨다구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혁명의 요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처지가 달라졌다는것은 무엇인가요. 육체적으로 로쇠하였다는것이지요.》

《뭐라구 아버지들의 마음을 몰라.》

《아버진 너무해서요. 달라지셨어요.》

《달라졌대구요?》

《현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언젠가는 병사의 배낭을 지고 대학을 찾았을 때의 그런 젊은 시절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딸은 거의 실망에 젖은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우민은 그 말에 멍치끝을 찢리운 때처럼 상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고학시절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유산을 외곡하여 강의하면서 민족적존엄을 짓밟는 왜놈교원을 타매하며 의분을 토하시던 그 정의감은 다 버리신것 같아요.》

《뭐 뭐라구 너 그 소리는 어디서 들었느냐?!》

《당비서선생님이 언젠가 이야기해주시더군요.》

《당비서동지가?》하고 우민은 딸의 애원이 실린 조용한 눈을 건너다보았다.

우민은 자기의 고학시절 피눈물에 얼룩진 그 생활은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것이고 다만 자서전에만 써여있으니 당비서만이 알수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딸의 입에서 나올 때 사뭇 놀람기도 하였다.

한 과학자이고 교육하의 운명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아니라 립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에로 부추겨주는 당비서의 그 인간적품모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가 없고 민족의 뉘마저 짓밟히던 암담한 왜놈의 학정밑에서 그 누가 자기의 고행길을 더듬어 가며 따뜻한 손길로 끌어주며 참다운 삶으로 이끌어주었던가.

우민은 깊어가는 이 밤, 어두운 창밖에 상현달이 걸린 우중충한 밤하늘을 바라볼수록 고학시절 그 외롭던 정상이 가슴에 저머오는것이였다.

.....

일본땅의 어느 한 음침한곳에 자리잡은 XX대학 건설학과 강의실에서는 늙수그레한 한 교원이 학생들을 앞에 놓고 동양건축사를 내리쥘고있었다. 학생들이 귀담아듣게 앓을것 같으면 교탁을 푹푹 두드리며 주의를 주었다.

《...학생제군들에게 이제도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동방의 고대문화는 그 개개민족의 발전의 특수성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특히 고대 동방건축술의 그 찬란한 기원을 보면 일본은 동방문화발전뿐만아니라 건축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의 그 거대한 사원이나 가장 오랜 유물의 하나인 불국사의 절묘한 건축구조나 그 양식에서 다양하고 섬세한 기교는 거의 그 이웃나라와 일본의 건축술에 의거한것이다...》

그제 우민은 뒤줄에 앉아서 조선민족에 대한 그의 모욕적인 망발에 항변을 하고싶었다.

《우리 민족이 너희들의 본을 따랐대구 ...?》

우민은 혼자속으로 중얼대다가 격분을 누를길 없

어 자리를 차고 불쑥 일어났다.

《선생, 물건대 조선의 건축양식이 일본과 이웃 나라의 건축술에 의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고있는가요?》

《우리 일본력사에 의거하고있소. 왜 학생은 믿어지지 않소? 과거 조선민족은 아주 우매한것이였소.》

우민은 너무 기가 막히고 분이 왈각 치밀어 한참 진정한 뒤에야 말을 이었다.

《선생은 조선사람들의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겠으면 일본력사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응당 조선사람들의 유구한 역사에 기준해야 할것이요. 조선은 지리적위치로 보나 기후풍토 그리고 풍만한 자연과 지하자원에 있어서 세계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이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요. 한해잡고도 사시절이 있고 수려한 산림과 곳곳에 수정같이 맑은물이 흐르고 땅은 기름져 오탁이 무르익는 3천리금수강산이요. 우리민족은 반대로 다른 나라들에 큰 영향을 주었소. 집을 짓는데서도 우리 선조들은 자기 민족의 특색을 살려 훌륭하게 지었소. 그런데도 일본을 따라다니는것은 역사의 위조가 아닌가요.》

도고하게 낯을 쳐들고 열변을 토하는 우민의 강경한 태도에 교원은 한풀 꺾인듯하였다.

그는 우민의 밤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참다못해 교탁을 탕 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학생, 그건 무슨 망발이요. 역사를 위조한다, 조선력사에 기준하라는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건방진 소리를 함부로 하는가. 듣기 싫으면 나가시오!》

우민은 그가 위협을 하건 말건 할 소리는 해야 했다.

《만약 선생이 진리를 설교하고 과학을 가르치려거든 진리로 알려지고 실천속에 확고해진 과학을 설교하기 바라오. 그렇지 않고 부당한 사실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강압이며 언어도단일것이요.》

우민은 이마에 송글송글 내뿜은 땀을 주먹으로 문대면서 자리에 앉았다.

교원은 코밑에 거칠하게 기른 나비수염을 멋없이 매만지고는 교탁에 퍼놓은 책을 거두며 강의실을 쫓기는 걸음으로 뛰어나갔다.

그날 오후 대학당국은 우민학생을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것으로 위협하였다.

우민은 자기를 위협하려드는 학부장이라는자에게 항의해나섰다.

《우리는 과학의 진리를 탐구할것을 희망하고있소. 허나 교원은 우리에게 날조한 역사를 설교하였소. 진실을 해설해줄것을 제의한것이 불온한 사상이라면 나는 접수될수 없소.》

그로부터 1년후에 우민은 학교당국의 민족적차별과 학대정책을 반대해 투쟁한것으로 하여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후 그는 수로공사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토목공사장에도 따라다니면서 건설공학을 독학하며 대학강의록을 읽는 고학성의 신세로 되었다...

영숙은 민족적의분과 정의감마저 켜버린것이 아닌가고 엉큼하게 번진 말이 아버지를 것처럼 깊은 심연속에 밀어넣고 뼈아픈 추억속에 잠기게 할줄은 몰랐다.

그날밤 우민은 잠을 청해도 잠들수 없었다. 지금도 그의 귀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절절히 부르짖는 듯한 딸의 목소리가 간간이 울렸다.

사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두려운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60나이에 이르러보니 목전에 놓인 새 임무가 두렵기도 하였고 더우기는 이미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 쌓아온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애착은 더 절절하였다. 이것이 결국 공명이겠는가.

아버지인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말이 어찌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우민은 딸 영숙이가 민망스럽기도 하였다.

× ×

며칠이 지났다. 겨울날은 제구실을 하려드는지 매운 바람을 불어대면서 싸락눈을 퍼붓는다. 어느새 삼라만상은 흰눈에 묻혀있다.

눈은 뒤끝이어서 날씨는 좀 온화한것 같으나 추위는 매한가지다. 유리창에는 밤새에 성애가 하얗게 끼였다.

일에 파묻힐 때면 우민은 다른 강좌로 전파하는 문제는 까맣게 잊고 즐거움에 휩싸인다. 가끔 젊은 교원들이 일이 막혀서 자료를 들고 자기에게 찾아올 적마다 이들을 위해서 얼마동안은 이 강좌사업을 맡아주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곤한다.

그러나 아주 이 강좌로 전파할 의향은 나지 않았다.

그는 대학행정이나 당위원회에서 더 말을 한다면 반년동안 립시 그 강좌에 가서 일정한 사업토대를 마련해놓고 다시 자기 강좌로 가겠다고 말해 보리라

는 생각이 들었다. 일전에 부학장이 가겠는가 못가겠는가를 생각해보라고 말한것을 똑 잘라 버릴수도 없었다. 그는 더 길게 생각한대야 달리는 할수 없을것 같아서 굳힌 결심을 가지고 부학장에게로 떠났다.

부학장의 안색은 전에없이 명랑한 기분에 싸여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인가?)

우민이 들어서자 부학장은 마주 일어서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며칠간 회의에 참가하다보니 문병도 못했는데 그새 완쾌되었는가요?》

《별거 없습니다. 걱정들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큰일을 벌려놓고 선생이 누우시면 일이야 난사지요. 듣자니 그간 자료연구사업이 잘 진척돼가는 모양이더군요.》

《뭘 하느라구 하는데...》

우민은 더 말을 하기가 거북한듯 말끝을 중동무이 해버렸다.

《강좌장선생의 로고가 많았던것 같더군요. 이 강좌의 젊은 교원들은 선생이 없으면 일이 될것 같지 않다구 하던데요.》

부학장은 남의 말을 하듯했었다.

《그 동무들이 팬한 말을 하는것 같군요.》

우민은 딱한 표정을 지었다.

부학장은 우민이가 찾아온데 대해서 반신반의하였다.

그는 우민강좌장이 요즘 강좌를 옹기는 문제를 가지고 몹시 신경을 쓰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필시 그 문제를 들고 왔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기도 멋적었다. 일전에 그러한 문제를 본인이 잘 접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단적인 언사를 던져 그의 감정을 날카롭게 했고 지어 그것이 그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까지 느낄수 있게 한데 대하여 충고를 받았던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부학장은 전에없이 울적해졌다.

이런 때에 우민이가 찾아왔던것이다. 부학장은 전에없이 너그러워보였다. 그는 우민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우민은 담배를 태우면서 자기가 오게 된 사연을 말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새 강좌로 가는것을 일정한 사업토대를 닦을 때까지만 가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거야 선생이 정 못가시겠다면 할수 없는 일이지요. 허나 교육가인 우리가 현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

우민은 강좌를 옹기라는 부학장의 의도는 알고 있으나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좌의 문제이고 과학자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였다.

부학장은 지친듯이 량미간을 찌프리며 말하였다.

《거야 강좌장선생이 생각대로 하시지요. 하지만 진정 교육자의 립장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민은 이렇게 단마디로 대답하고말았다. 그는 자기의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더 오래 말하는것도 먼 구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로부터 한주일이 지났다.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참작했던지 대학행정에서는 당위원회의의 토의하에 우민을 새 강좌에 당분간 토대가 잡힐 때까지 립시 가서 일하기로 하였다.

우민은 자기의 의견을 그처럼 쉽게 받아준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것처럼 온 정신이 가벼웠고 흐릿한 기분도 상쾌하였다.

새 강좌의 실정을 며칠간 파악하고 이제 무엇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기도 하고 전방적으로 끌고나갈 계획도 세우면서 당면한 자료연구대책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갔다.

한달이 지났다. 추운 겨울도 어느덧 해동을 앞에 두었다. 얼었던 땅도 한낮의 해빛에 물씬물씬 땅김을 뿜으며 질척하게 녹아났다.

창문에는 해빛이 밝게 비쳐왔다.

추위가 기울어지자 우민의 량어깨가 늘 귀에 올라 불던것도 꺼지듯 내려앉았고 기쁜한 얼굴빛도 한결 활기에 넘쳐었다.

방안에서는 우민과 당비서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동안 새 강좌를 립시 담당한 뒤 결린것이 없는가싶어 당비서가 찾아왔던것이다.

우민은 그동안 세 강좌에 와서 느낀것과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말하고는 강좌사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자면 일정한 시일과 고충도 겪어야 하겠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심중히 듣고있던 당비서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그러게 선생님의 힘이 필요했던게지요. 이 강좌의 일이 보통일이 아니지요.》

지금 왜놈들은 우리 나라 건축사자체를 두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술과 절묘한 예술성을 다른 나라의것에 동화해버리려고 갖은 험구를 늘어놓고 있지요. 그런데 남조선의 건축학자들은 그것을 주체가

없이 받아서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민족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태도이고 민족적존엄을 유린하는 범죄적인 행위들이지요. 이것은 이 강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기초하여 정책적 안목으로 보고 우리 민족유산과 후대들을 생각하는 교육자들이라면 응당 이 문젠 바로잡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싸워야 할것입니다.》

《저도 왜놈들이 남의 나라의 유산을 외국하여 해석하는것을 다소 알고있었지만 것처럼 흑심하게 남조선사회에까지 만연하고있는것에 대하여 의분에 가슴을 들먹일뿐 그걸 풀어나갈 용단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민은 어떤 죄의식에 잠긴 때처럼 창백한 낯을 하고있었다.

《그럴수도 있지요. 허나 이것은 진실이며 조선민족으로서는 그대로 볼수 없는 민족문화유산전통에 관한 문제이지요. 더구나 이것은 나라의 유산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립장을 견지하는것도 있지만 수백수천의 젊은 후대들을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학을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건축가들에게 우리 나라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건축에 술을 옹계 평가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건축예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 》

우민은 당비서의 말을 새겨들으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민족의 존엄우에 검은 흙을 던지며 생신한 젊은 청년학생들에게 외곡되고 변종된 력사를 외우게 하며 생활을 진실하게 그린 그 우아한 건축 예술대신 교조적이며 추상적형식미를 고취하는 추상과 예술을 설교하는것을 생각하니 주먹이 떨렸다.

우민은 저으기 흥분되였다. 청춘기에 리상을 같이 꽃피우며 민족적의분에 열변을 토하던 동년배들이 결국은 그 시정배의 무리속에 동화되고말았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그는 여느날보다 일찌기 교문을 나섰다. 아동공원으로 난 뒤길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바깥기온은 아직도 쌀쌀하다. 그는 목도리를 외투속에 밀어넣었다.

무심코 걸음을 옮기던 그는 주택구역에 꾸러진 공원옆으로 난 좁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오솔길옆에서 한 늙은이가 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끊어진 그네줄을 잇느라 안간힘을 쓰며 끙끙 거렸다.

등이 구부정한 로인이다. 그는 곁에 사람이 다가가자 하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 우민을 힐끗 쳐다본다.

《애녀석들이 장난이 하두 새차니 쇠줄도 당해낼수 없군요.》

《수골하십니다.》 우민은 그자리에 멈춰섰다.

일전에는 그 로인이 자기네 대학부근의 가로수 한그루가 된바람에 밀려 한쪽으로 넘어질듯이 기울어진것을 바로 세워놓는것을 보았었다. 그때에 그는 이 로인이 원예사인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였다. 유치원에 가는 손자를 데리고 가는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이였던것이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로인을 이 공원에서 만난것이다. 우민은 그 로인이 하는 일손을 멀찍이 서서 보다가 이어 그자리를 뚫다.

말없는 가운데 조용한 저녁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는 우민은 이 저문날 저 로인이 무엇때문에 고요한 공원속의 그네줄을 고치는가 그리고 비바람에 넘어져가던 나무를 바로세우고 뿌리밑을 튼튼히 다져두었던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는 공원관리원도 아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것 같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바라는것일가 애들이 하늘높이 날아오르며 노는 행복한 모습을 바라설가? 아니면 푸른 가로수의 청신한 숲을 바랐던가?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건만 마사진 그네줄을 고치고 넘어져가는 가로수를 바로잡아주는것이다.

그는 후대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그앞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우민은 로인의 그 아름다운 행동에서 숭고한 정신을 읽었다. 그의 정신세계에는 자기라는 개념보다도 자라나는 후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용솟음치고있는것 같았고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조국이라는 그 귀중한 품에 살아 서있는 모든 생명체에 토양이 되고 고임돌이 되어 받드는 숭고한 조국애에서 출발하고있는것 같았다.

우민은 이 로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집에 와 서도 자꾸 되살아났다. 그 로인을 놓고보면 무엇인가 자신은 멀리 뒤떨어져있는것 같은 공허한 감정에 빠져들어갔다.

그런가운데서 불현듯 지난 가을 당비서가 하던 말이 되살아났다.

《선생을 젊은 교원들이 찾고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보내달라고요, 그들이 세워야 할 건축물에 고임돌이 되어달라고... 이것은 이 벽찬 현실의 요구입니다.》

우민은 이 교원들의 목소리에 이날까지 외면해 온 자신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관히 지낼수 있었던 가싶었다. 자기는 젊은 교원들이 애타게 부르는데도 어떤 자기만의 학자다운 탐을 쌓겠다는 야심, 그 좁은 울타리안에서 맴돌며 혁명이 요구하는 절박한 과학상의 현실적문제에는 외면하고 있는것이다.

그는 가슴이 아팠다.

이제라도 그는 그렇게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해야만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자신이 말고있는 강좌문제는 자기가 아니라도 젊은 교원들이 능히 발전시켜나갈수 있을것 같았고 현실적으로는 새 강좌문제가 더 절박하게 여겨졌다. 그는 새 강좌에 립시가 아니라 아주 자리를 옮기고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 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우리 나라의 유구한 건축유산을 철저하게 당의 요구에 맞게 체계화하고 과학화해야 하겠다는 신념이 강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활짝 꽃피었다. 천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세심하고 크나큰 수령님의 보살피심이 깃들이있는것인가. 다는 말고 평양의 교예극장건설과 대극장건설을 두고서라도 사람들은 수령님의 현명성과 세심하신 보살피심에 가슴뜨거워짐을 금하지 못한다. 극장의 규모며 형태, 의자며 창문 그리고 지붕의 색깔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피주시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건축가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우민은 착잡한 심정을 눅눅히며 자신을 돌이켜 보며 낯을 붉혔다. 이 몇달동안 딸도 말없는 가운데 자기를 얼마나 원망했겠는가싶었다.

혁명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자신은 뭔가 이름할수 없이 뒤지고 낡은 관념속에 살고있다는것을 통절히 느껴졌다.

생각하면 딸을 보기도 먼구스러웠다.

그런데 딸 영숙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째 아직 자지 않느냐?》

우민은 딸이 늦도록 자지 않는것을 나무랐다.

《이제 자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남조선에서는 우리 나라의 건축유산들이 외곽되어 청년들에게 가르쳐지고있어도 그것이 허용되고있다는데 가슴아픈 일이 아니예요.》

《정말 민족의 뉘을 지니군 참을수 없구나.》

우민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였다.

영숙은 아버지의 수척해진 눈매를 바라보며 병병히 서있었다.

이윽해서 영숙은 이러한 남조선의 참경을 듣고는 모든 교육자들이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으며 그를 우리는 방관시할게 아니라 우리자신이 그것을 바로 잡아놓아야 한다는 교원들의 말을 스스로 없이 섬기였다.

《아버지 작년에는 왜놈들이 우리의 건축유산을 모독한 사실을 얼마나 절규하셨어요. 그런데...》

영숙은 말끝을 흐리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든거냐?》

《아버진 의분만 가지고계신것 같아서요.》

《뭐라구 마음뿐이라구,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다. 투쟁할줄 모른다는말이지. 나도 결심이 다 있다. 래일 당위원회에 찾아가련다.》

《그럼 새 강좌로 아주 가시겠다는거예요.》

영숙은 기쁜 목소리로 환성을 올렸다.

《그건 래일 알게다.》

우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영숙은 생기어린 시선으로 아버지를 지켜본다. 그 전날 자기가 학창시절 그런 아버지를 가진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존경하던 그 순결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저녁 방송위원회의 기자가 우민을 찾아왔다.

우민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처음에는 어정쩡해 졌었다.

《우민부교수시지요?》 하고 기자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남반부건축학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면 방송으로 해주실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우민은 언젠가 그러한 방송을 들은적이 있으나 직접 그런 일에 나서본적은 없었다.

방송기자에게서 우민은 방송원고준비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듣고 그와 헤어졌다.

기자가 돌아간후 우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녘땅에 있는 동년배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삼삼히 떠올랐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미제승냥이놈들과 그 주구 전두환괴뢰악당의 학정밑에서 무사히나 있는지.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 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는 그 인간생지옥에서 민족

의 지조나 지키는지? 생각하면 가슴만 답답해졌다.

그는 온 하루밤을 꼬박 새우며 《남에 띄우는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북반부에서 찬란히 꽃핀 우리 건축학의 자랑찬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남반부의 전체 건축학자들은 한시바빠 그이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아름다운 삼천리강산에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맑은 아침이다. 산과 들에는 포근한 봄기운이 넘쳐흐른다. 따사로운 해빛이 내려쬐이는 대지에는 안개가 피어올랐다.

온실안에서는 벌써 꽃잎들이 망울을 벗고 그 단아하고 연한 잎을 비죽이 드러내고있었다. 도랑에서는 눈색이물이 짹짹 소리치며 흘렀다.

우민은 주간에 처리해야 할 연구과제들을 교원파토론하고 당위원회로 찾아갔다.

마침 거기에는 부학장도 와있었다.

우민이 들어서자 그는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서 오십시오. 무척 바쁘시겠습니다.》

당비서는 우민에게 의자를 가리키며 맞아주었다.

《예, 바쁘지만 뭐 사람이야 늘 긴장해야 사는 보람이 있지요.》

우민은 능청을 부리며 대답하였다.

《웁은 말씀입니다. 강좌장선생은 이따금 그런 값있는 말씀을 잘해주시거든요. 하하하.》

비서는 절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말에 부학장도 한마디 끼었다.

《원래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늘어져서 못쓰게 되지요.》

이렇게 한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비서는 우민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물었다.

《뭐 별다른게 아닙니다. 저는 새 강좌에 아주 넘겨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우민이 병글거리며 말을 하자 당비서는 시물시물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부학장은 아니 진작 그럴 노릇이지 기껏 있다가 이제 와서야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느냐는듯 병글거리며 환성을 올렸다.

《강좌장선생, 이거 보퉁이라도 터친것 같습시다.》

《부학장선생이 꽤 기다렸던것 같소. 저렇게 흥분하는걸 보니.》

《하기야 씨원하게 단마디로 할 문제야 아니였지요.》

우민은 그들의 말에 뭐라 말할념도 못하고 어색한

눈길을 들고 반나마 벗어진 뒤통리를 설설 긁었다.

《강좌장동지, 반갑게 접수합니다. 당위원회는 선생이 그 강좌에 일정한 토대라도 세워놓으면 젊은 교원들이 강좌사업을 꾸려나가리라고 생각했지요.》

허나 오늘 선생이 이제부터 새 과학부문에 전파하시니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간은 정말 나의 사상을 수양하고 개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친 비서동지의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교육자는 바로 후대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나갈 길에 그들이 세워야 할 터전에 튼튼한 <고임돌>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저의 성장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우민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흥분에 넘쳐있었다.

《그것은 선생의 기쁨일뿐만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후대들을 위한 선생의 그 새로운 립장과 태도는 아주 고귀한것입니다.》

《강좌장선생,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교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부학장은 우민의 신념에 넘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비서동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수골해주시시오.》

비서는 우민을 문밖에까지 나와 배래주었다. 우민은 부학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 ×

우민은 잠에서 깨어난것처럼 두리번거리며 강변우에 비낀 한쪽의 풍경화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쩌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던지 눈길을 떨수 없었다.

어느새 유보도에는 행복한 젊은이들이 오가고 질은 그늘밑에는 낚시꾼들이 주련이 모여들었다.

그는 낚시꾼들의 방해나 되지 않을가 해서 자리를 뜨며 스적스적 강변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수천년 인류사와 함께 찬란히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건축사에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리상의 도시, 문명의 도시를 기록할 재부가 창조된 시대가 있었던가.

오로지 주체시대의 그 광휘로운 향도의 빛발속에서만 창조할수 있는 위대한 건축물들이 아니었던가!

그는 장엄한 이 현실을 현대민족건축사에 한시바빠 위대한 전환기의 대서사시적인 화폭을 한개의 빛나는 장으로 펼쳐갈 신념을 마음속깊이 굳히며 힘찬 발걸음으로 보통강기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것이 다.

청춘과 사랑과 대동강

김형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집
버들가지 드리운 강건너엔 처녀가 살고
굴뚝많은 맞은편엔
총각이 살았네

총각은 기관사
건인초파운동의 선구자
처녀는 직포공
직기바다 갈매기로 소문나
맺은 사랑도 강물처럼 깊다네

대동강을 볼 때면
총각은 생각했네
흐르는 강물이 비단이라면
아름다운 저 한끝은
처녀의 직기에서 시작되리

대동강의 물소리 들으며
처녀는 소원이었네
대동강이 꼬리긴 차량이라면
그대의 기관차에 실려가는
렬차의 끝없는 흐름이겠지

좋은 나이에
맺은 사랑
좋은 세월에
꽃피는 미래
흐르는 대동강에 다 담아볼가

분기계획 끝낸 저녁
처녀총각 강가를 거닐며
일감을 두고 많은 말 나누었어도

가사

가슴 두근거리는 그 말만은
가슴속 묻어둔채 밤은 깊었는데-

칠썩-
강심에서 솟구치는 은빛 잉어
순간 처녀는 총각의 손을 잡았네
-저것 봐요
얼마나 좋아요 대동강은!

아, 종구말구
무슨 말이 더 소용되랴
대동강 흘러 천리면 사랑도 천리
대동강 흘러 만년이면
맺은 사랑도 만년!

처녀는 속삭였네
대동강 줄기줄기 청실로 삼아
강물에 비낀 불빛 홍실로 삼아
15억미터의 마지막 필을 끊어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드리리라고...

총각은 맹세했네
대동강 긴 흐름 자랑삼아
대동강 물결소리 바퀴에 싣고
온 나라 물동을 다 이끌어
5개전선 펼쳐가리라고...

아
청춘과
사랑과
대동강
함께 흘렀네 ...

일편단심 당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치리

김봉운

해빛없이 꽃이 피랴 물을 떠나 고기 살랴
당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네
은혜로운 해빛아래 한마음 붉게 피
일편단심 당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심장없이 어이 살랴 뇌수없이 어이 살랴
당은 우리 심장 혁명의 뇌수라네

심장을 보위하여 뇌수를 보위하여
일편단심 당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치리

태양없이 우주이라 별이 없이 하늘이라
향도의 태양따라 우리는 가고가리
하늘땅 한끝까지 우주의 한끝까지
일편단심 당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치리

박토산우에서

박숙희

은아는 탄광에서 명민하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처녀였다.

드넓은 벌판에 펼쳐진 금화로천탄광의 총각들치고 은아를 넘겨다보지 않는 사내들이 없었다.

꺾고싶으면서도 꺾기 힘든 장미꽃앞에선 《에익! 가시돌힌것》 하는 격으로 은아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던 총각들은 그가 정량을 재이며 《눈금은 량심이에요》 하고 깔끔한 혼시를 할 때면 《에익! <직각자>같은것》 하며 돌아들었다.

더우기 금화로천탄광의 꽃들로 불리우는 여섯직장 통계원처녀들이 모여 하루실적을 종합하고 실적표를 만들 때면 《직각자》라는 이 별명은 몸집이 뚱뚱한 기사장의 입에서도 튀어나오기가 일쑤였다.

왜냐 하면 박토처리장의 중심부인 은아네 직장실적표의 붉은선이 언제나 직각자로 줄을 친듯 제일 앞장에서 달리니말이다.

그때마다 은아는 약간 웃음기어린 눈을 내리뜨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나타냈지만 마음은 언제나 자기만족에 휩싸여있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높은 실적에는 자기의 직각자처럼 드림없는 요구의 결과도 숨배여있기때문이 었다.

은아도 물론 총각들의 자기에 대한 뒤시비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측량자의 눈금과 경쟁도표의 높이가 그 사람의 량심과 가치를 가장 명확히 드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그런 뛰어난 사나이들을 내놓고는 모두다 《아니다》로 여겼다.

그런데 《아니다》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중의 하나인 3호굴착기운전공과 어떤 미묘한 사이라는 소문이 온 탄광에 파다하게 퍼졌다니 기막혀 견딜수없는 일이 아닌가.

그것도 은아 자기쪽이 먼저 반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굴착기운전공이 술한 사람들앞에서 제입으로 공공연히 말했다니 온몸에 모닥불을 뒤집어 쓴것처럼 더 참을수가 없었다.

저녁해빛이 남실남실 창유리로 흘러들었다.

《누가 저같은걸 보거나 한다구.》

은아는 앉은뱅이책상앞에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 분을 새기느라고 가쁜숨을 토틈쉬었다.

(정말 분한노릇이지. 에이참.)

은아는 끝내 얼굴을 짜쥐고 책상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아니 너 정말 구경 안가겠니? 별걸 가지고 다 속을 썩이는구나.》

소랭이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던 혜숙이가 또 지청구를 했다.

그 말에 은아는 마치 혜숙이가 그 3호굴착기운전

공이기라도 한듯 총알같이 내쏘며 화풀이를 한다.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을수 있나말이야, 너같은 문...》

《나?! 난 좋기두 하겠다. 처녀총각시절에 그런 말을 듣기두 한철이라구 그저 못들은척하면 돼. 제가 반했으니 감히 말을 못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겠지 뭐.》

말팔랑이로 소문난 통계원 혜숙은 마치 그 무슨 신기한 발명을 하기라도 한듯 두손을 내흔들며 자신만만히 자기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슬쩍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너 똥때문에 그 동무 실적은 올려줘가지고 그러니? 너두 뭔가 생각이 있었길래 그랬겠지?》

《뭘? 그건...》

혜숙의 말에 은아는 더 다른 대답을 못하였다. 은아로선 그것이 더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이렇든 저렇든 실적을 올려준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그는 화장품통우에 올려놓은 동그란 거울속에 비친 자기의 홍당무처럼 활짝 붉어진 얼굴을 훑어지게 들여다보며 생각을 굴렸다.

작업량을 재려 현장에 나갔던 방금전 일이 돌이켜졌던것이다.

은아가 작업장에 가닿았을 땐 총회시간이 다 되었던만 박토처리장은 여전히 들끓고있었다.

넌출넌출 뻘어 하나의 산맥을 이룬 박토산의 곳곳에서는 불도젤이며 굴착기들이 대형차들에 흙을 퍼담아 보내느라 분주하였다.

기본박토처리장에서 작업실적을 채고난 은아는 빨간 비닐구두에 흙이 묻을세라 살짝살짝 땅을 끌라짚으며 림시박토처리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림시박토처리장은 저탄장으로 가는 끝은길을 대기 위해 박토산줄기의 한가운데를 끊어내는 작업장이었다.

은아는 작업장 첫머리에서 일하는 3호굴착기쪽으로 다가갔다.

어느사이에 작업을 끝냈는지 굴착기는 바가지를 허공에 던떡 든채로 서있고 그옆에선 방금 퍼워놓은듯한 자그마한 모닥불까지 꺼불꺼불 조을고있었다.

흙무지에 꼭 박아놓은 삽자루에 걸린 작업복이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에 너털거릴뿐 운전수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며 굴착기로 다가갔다.

(아니 남들은 총회시간이 되어도 굴착기에서 내릴 줄 모르는데 이진 도대체 뭐람.)

은아는 운전수 최운이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발각

치밀었다.

그러지 않아도 회계계획을 하는데서 결정적인 고리라고 할수 있는 이 끝은길 내는 전투에 최운이같이 별로 뛰어난 실적도 없는 제대군인이 한다하는 운전수들과 섞여 여기로 온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 미더워하지 않던 그였다.

《흥! 땅크병이면 뭘해. 굴착기 하나 잘 다뤄내지 못하는게...》

은아는 《아니다》라는듯 가슴앞에 살쫂이 드리워 하늘거리는 콧수머리를 뒤로 뒹 넘겼다.

실적을 재야 뻔할것이였지만 은아는 가지고 온 권칙을 드르륵 풀었었다.

《통계원동무 비키시오!》

방금 측량을 시작하려는데 어디서 웅글은 고탐소리가 들려왔다.

은아는 허리를 펴고 방금 부름소리가 들려온 박토산우를 바라보았다.

이 찬날씨에 내의를 팔뚝까지 걸어올린 사나이가 산중턱에 번치고 서서 모자를 벗어흔들며 소리치는 것이 보였다.

은아는 어망결에 자리를 비켜서서 아연한 눈으로 산우를 다시 뚫어지게 올려다보고는 새침하게 입을 웅다물었다.

(아니 남은 사방 찾아다니는데...)

은아는 너무도 억이 막혀 산에서 혈떡거리며 급히 뛰어내려오는 최운을 뻥뻥한 눈길로 주시하였다.

순식간에 산아래로 달음박질쳐 내려온 최운은 말을 줄줄 흘리며 은아앞으로 씨엉씨엉 다가왔다.

짜르륵~ 최운을 마뜩지않은 눈으로 마주 바라 보기만 하던 은아는 하얀 옥이로 추위에 파르르해진 입술을 꼭 깨물며 권칙을 더 길게 풀었다.

《저, 흠이 무너져내리길래... 추운데 수고하누만.》

최운이 걸음을 멈추며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다.

은아는 최운의 아래우를 훑고나서 쌍까풀진 눈을 짙금히 내리뚸었다.

그리고는 조소어린 목소리로 야멸차게 비꼬아붙였다.

《등산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수고하겠지요.》

은아는 최운이앞에서부터 자를 대며 재빠르게 계측해나갔다. 한동안 날랜 숨씨로 자를 대며 오가던 은아는 굳어진듯 한자리에 꼳꼳이 서서 노란 자천에 새겨진 까만 눈굽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속으로 실적을 재빠르게 계산해나갔다.

(어쩔 이렇게까지... 정말 《아니다》로구나.)

은아는 장갑을 벗어 옷이며 신발을 탁탁 털고있는 최운을 똑바로 건너다보며 입속으로 비평을 쏟았다. 실적은 겨우 80% 되나마나하였다.

《자는 랑심이에요... 그럴줄 알았어요.》

은아는 새침한 눈길을 내리깔고 그가 프뜻이 몸만

녹였을 모닥불을 아니꼽게 쏘아보았다.

《저... 오늘은 그렇게 됐소.》

최운의 얼굴표정은 태연하였다.

《뭘라구요? 모두다 뛰는 데...》

은아는 모닥불가에 엉겨주춤하고 써서 어디서 주어진듯한 축축한 장작을 나물나물 피어오르는 불무지우에 놓는 최운을 놀랍게 쳐다보며 그의 얼굴에서 티끌만한 자책의 빛이라도 찾으려는듯 갈팡거렸다.

너무도 대답이 쉽고 천연스러워서였다.

최운은 은아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모자로 얼굴을 쓱쓱 문지르뿐 별로 서두르지 않았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작업장이 위험하게 됐소.》

은아는 최운이 가리키는 굴착기쪽에 내키지 않는 눈길을 돌렸다.

굴착기가 밀등을 파내는통에 얼었던 흙이 몽청 내려앉은데다 천정은 방금 흙사태를 일으킬듯 금들이 가로세로 위태롭게 건너갔다.

(하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데 섞여왔으니 조건타발할수밖에...)

은아는 비웃음이 력력한 눈을 새침히 내려깔았다.

웅쳐오는 감정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은아는 권칙을 재빠르게 감아가지고 돌아서버렸다. 그바람에 질적질적한 구덩이에 빠죽한 구두뒤축이 여지없이 박혀버렸다.

《가시려우? 불이나 좀 쪼이고 가지요. 이 숨신발 두 발이 시린데 거야 어디...》

모닥불앞에 앉아 손을 비비며 녹이고있던 최운은 은아의 새파래진 기분을 녹작혀주려는듯 그의 윤기도는 빨간 신발을 건너다보며 웃음어린 목소리로 한마디 농쳤다.

《저런, 신에 물이 들어가겠소. 빨리 빼내요.》

최운의 조급한 웨침에 은아는 활짝 얼굴이 달아올라 조급히 발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진흙은 자석으로나 변한듯 뽀죽한 은아의 구두바닥을 냉큼 꺼안고는 놀리듯이 질적거렸다.

《자, 발을 빼요. 이 운동화를 던소. 내가...》

《됐어요. 별걱정을 다...》

급해맞은 은아는 발을 뻥 잡아챘다.

썩- 거센소리와 함께 진흙은 넘적 입을 벌리고 구두뒤축을 토해버렸다.

그바람에 진흙물이 튀어올라 살색양말에 흙물을 피워놓는다.

은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큼 돌아서며 나직하면 서도 경멸에 찬 목소리로 한마디 뒹겼다.

《남의 걱정은 말고 제 앞치리나 잘하랴요. 그래도 손발이 시린줄은 아는 모양이지요. 심장은 둘 같이 차면서두...》

은아는 도도한 자세로 작업장을 떠나버렸다.

얼마후 사무실에 돌아온 은아는 들어서기 바쁘게 작업실적통계표를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매 사람들의 작업실적을 눈여겨 훑어나가던 은아는 최운의 실적에 눈길을 멈추며 거기에 빨간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진하게 쳐놓았다.

80%- 이것은 너무도 낮은 수자였다.

(그러면서 두 뉘 남의 신발걱정을... 언젠 유보도에 서나 신을거라구 놀려들대려구 그러더니...)

은아는 신을 벗어 탁탁 털었다.

사무실로 오는사이에 얼어붙은 진흙덩이들이 흰 돌조박들이 다문다문 박힌 인조대리석바닥에 튀어 내리며 뱅그르르 돈다.

은아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최운의 며칠동안 실적을 더듬어보았다.

별로 씨원치는 못해도 썩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작업반장아바인 도대체... 뭇때문에 한다하는 사람들도 힘들다는 이동작업장엘 그 사람을 보내면서... 그대로 뒤두었으면 중간쯤은 될게 아니야. 잘했지. 우리 작업반이...)

은아는 민망스러운 눈으로 실적표를 넘겨다보며 몇분후에 있을 직장실적종합모임을 생각했다.

《아니, 오늘 저 <직각자>가 정말 되젠 찝찝했던 모양이다.》

넙죽한 코마루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은 기사장의 벋글썩한 옷은 얼굴이 떠올랐다.

《은아언니! 어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지 않아요? 호호...》

해죽해죽 웃으며 빈정덜 3작업반 통계원 변화의 목소리도 귀전을 때렸다.

《아니 안돼. 그렇게 될수 없어.》

은아는 마치 그들이 눈앞에 있는듯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잘랐다. 그러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것 같았으나 그것도 역시 순간뿐이었다.

(어떻게 한담? 아이참, 최운인지 뭔지 정말 《아니다》야.)

은아는 시답지않은듯 미간을 잔뜩 찌프리며 불만기어린 쌍꺼풀진 눈을 연해연방 깜박거렸다.

(아이참, 내가 왜 이것을 물랐을까? 그렇지.)

은아는 어두운 밤에 등대불마냥 깜빡 떠오른 생각에 두손뼉을 찰싹 마주치고는 봉긋한 앞가슴에 얹었다.

(그래 내가 왜 그것을 놓쳤겠을까? 방금 그가 일하던 작업장에 흙이 무너져내렸었지. 그래 그러니 그가 해놓은 실적이 그 흙에 묻혔을수 있지 않는가. 남자의 자존심때문에 변명은 안해도...)

은아는 대수롭지 않은 낮빛을 띄우던 최운의 얼굴을 눈앞에 되새기며 자기 생각을 긍정하듯 머리를 까닥거렸다.

(그러니 실적을 올려주자. 우리 직장 명예도 그렇고 또 그자신도 자극받게 말이지. 래일부턴 정신을 바짝 차리게 아닌가.)

은아는 자책으로 하여 이그러질 최운의 검실검실한 모난 얼굴을 생각하고 애들마냥 감쪽하게 살짝

미소를 띠었다.

《안만 돌심장이라도 직장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만한 제 잘못은 깨닫겠지.》

은아는 재빠른 숨씨로 최운의 작업실적란에 처음 써놓았던 수자를 말끔히 지우고나서 95%라고 또박히 다시 써놓았다.

허리를 펴고 방금 써놓은 동그란 글자를 내려다보는 은아의 눈앞엔 오늘도 다른 직장보다 높이 오를 경쟁도표의 직선화살이 방불히 안겨왔다.

마음은 저르기 후련하였다.

《아유, 오늘은 내가 제일 늦어지겠네.》

은아는 은빛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고는 벌금 일어나 작업실적통계를 돌돌 말았다. 그러다가 은아는 무슨 예감이 들었던지 다시 펼쳤다.

최운의 실적란에 보풀이 보르르 일어 지웠다 고쳐쓴것이 유평하게 드러나 자기의 은근한 마음이 어쩐지 뻔드름하게 알리는것 같았다.

은아는 서류장에서 새 작업실적통계표를 꺼내 재빨리 베껴나갔다. 최운의 실적수자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정확히 또박또박 쓰려고 애썼으나 웬일인지 서리맞은 할미꽃마냥 9자의 머리가 앞으로 기웃이 숙어졌다.

따르릉- 요란한 퇴근종소리와 함께 기사장실문이 활짝 열렸다. 왁자지껄하는 웃음소리에 뒤이어 직장의 《꽃》들이 연해연방 튀어나왔다. 물론 그앞에는 장미꽃 은아가 봉긋한 앞가슴을 생긋 내밀고 자랑스레 달려나왔다.

영예의 게시판이 주런히 선 직장회의실로 걸음을 다그치던 은아는 저도몰래 주춤 서버리었다.

굴착기운전공사나들이 노래에 맞추어 행진해 오고있었던것이다.

대렬의 길이가 땃사람을 넘지 못했지만 발구름소리가 가슴에 광광 울려왔다. 여느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벌스레 더 사기충천한것 같이 느껴졌다.

노래 한곡이 끝나자 앞줄좌측에 선 키가 훗칠한 사나이가 웅글은 바스음성으로 새노래를 뻗었다.

은아는 그가 최운임을 첫눈에 알았다.

순간 그는 어쩌면 저렇게 빠졌할가싶어 게시판앞으로 곧추 걸어가 실적표의 네귀에 압정을 단단히 꽃아붙여놓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렬이 게시판앞에 멈춰섰는지 노래소리가 푹 끊어졌다.

작업실적을 훑어본 최운의 너부죽한 얼굴이 떠올랐다.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올려진 수자를 보고 다행으로 여기든 자책으로 느끼든 지금은 모르는척하며 흡흡한 표정을 짓고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량심이 있다면 놀라움과 쓰라림으로 가슴 한복판이 활랑 거릴것이다.

은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조용히 굴리고있었다.

덜컹- 누군가 인기척도 없이 문을 열어제끼는 바

람에 은아의 생각은 산산이 조각났다.

최운이가 나지막한 문을 뚫은 가슴으로 꼭 채우며 성큼 들어서는것이 보였다. 그는 똑한 표정으로 은아의 책상앞까지 바투 다가와서더니 웅글은 목소리로 나직하면서도 명확히 이렇게 짝어 말했다.

《그런 값죽은 <동정>은 필요없소.》

그는 은아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문쪽을 향해 끝추 되돌아서 나갔다.

《뭐라구요?!》

은아는 아연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동무때문에 집단의 영예가 손상된다는건 몰라요?》

최운은 은아의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담벽같은 잔등을 돌려댄채 여유있게 스택스적 걸어 내쳐 문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럴테면 그러라지. 그래두 량심 한쪽끝이 찢리우는 모양이 지...)

은아는 최운이 광~소리나게 달고나가버린 파란 문짝을 그대로 바라보며 알미운 비웃음을 지었다. 작업실적수자를 좀 더 크게 써놓았을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 있는 총화에서 최운은 은아의 이 《동정》으로 중간정류소에서도 앞선자리를 차지했다.

일은 여기서 터졌다.

굴착기운전공사나이들중에 끼여앉은 제대군인총각들은 바로 그 실적이 자기들의 영예의 상징으로나 되듯이 최운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사기가 나 웅성거렸다.

《땅크병, 어떻게 된거야? 이 친구 오늘 완전히 하바닥이라고 말하더니 ...》

공병으로 있을 때 지뢰구멍을 잘 파서 《두더지아저씨》로 소문을 냈다던 덩석부리운전공의 말에 《모르겠다. 이거 당금 국술 먹게 된거 아니야. 솔직히 고백하라구...》 하며 한 운전공사나이가 최운의 어깨를 칠씩 갈겼다.

《날보구 그러지 말구 그 처너보구 물어보게나. 이 <땅크병>총각한테 반해서 그러겠지...》

최운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멧적은지 뒤더수기를 굽적거리며 히죽이 웃어버리었다.

《아니 그 <직각자>가?!》

굴착기운전공들은 모를 일이라는듯 폭소를 터뜨렸다.

《자넨 이다음 밥그릇두 눈금으로 채서 받게 될걸세.》

운전공들의 룡담은 점점 진해갔다.

어느새 사나이들의 이 룡담과 최운의 희떠운 소리가 처너들속으로 순식간에 굴러들었다.

이 희귀한 소문은 호실에서 《소식통》이라고 불리우는 혜숙이가 부리나케 달려와 은아에게 전달했던것이다...

《세상에 그런 <피짜>가 어디 있지. 실적을 올려줬으면 고맙다구나 할 노릇이지 너 정말 반한건 아니지?!》

혜숙은 혹시나해서인지 은근히 또다시 물었다.

은아는 숨을 가빠쉬며 얼굴을 붉혔다.

《제발 좀 그만둬. 난 <동정>두, 반한것두 없어. 그런 사람인줄 모르구...》

은아는 최운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좀 더 툭툭히 쏘아주지 못한것이 분하여 가쁜숨을 툫아올리며 썩근거렸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가자. 빨빨리, 혜숙아.》

은아는 모든것을 잊으려는듯 머리를 가로 흔들며 혜숙이에게 제 먼저 회관에 가자고 재촉했다.

탄광알길은 문화회관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호호호 하하하... 큰길은 처너총각들의 웃음소리로 차고넘쳤다.

은아와 혜숙은 한합속에 있는 처너들속에 뛰어들어 나란히 걸었다.

삽시에 웃음소리는 어디 가고 길에는 자박자박 하는 걸음소리만 울렸다.

《애, 갑자기들 얼었니. 방금 왜 그리들 좋아서 떠들었니?》

혜숙은 잔뜩 호기심을 띤 눈을 울렁히 뜨고 옆의 처너들을 둘러보았다.

웬일인지 처너들은 서로 눈짓들을 하며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아니 이. 애들이 내 말을 한게. 아니야.)

은아는 그 모든것을 룡감으로 느꼈다.

마음이 칼날같이 예리해지며 바르르 떨렸다. 그러지 않아도 걸오로로는 태연한체하지만 온 탄광사람들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려있는것 같아 속이 한줌만 해있는 은아였다.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와그르 터졌다. 순간 그 호호거리리는 웃음소리가 뒤잔등에 마구 날아와 박히는것 같았다.

은아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며 그자리에 서버리었다.

은아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며 눈을 꼭 감았다. 귀전에는 웅-하는 소음만 들려오고...

애송이 처너총각 한패가 또 웃고 떠들며 옆으로 지나갔다.

《빨리 가자.》

은아의 기분을 알아차린 혜숙이도 처너들속에서 떨어져 은아옆으로 와 재촉하였다.

《난 안가겠어. 당장 만나서 해볼테야.》

《뭐라구?! 만나선 도대체 뭐라구 하겠니? 짹사랑하지 않았다구?... 썩 그만둬.》

혜숙이는 사내들처럼 손을 뻗 저었다.

《어쨌든 난 가만있을수 없어.》

은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

는 더 다른 말없이 돌아서서 내뒹였다.

《구경갔겠지워.》

혜숙의 목소리가 등뒤에 날아왔다.

(흥,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구 무슨 체면에.)

은아는 그가 있을것만같은 박토산을 민망스럽게 바라보며 그쪽으로 곧추 내뒹였다. 살얼음길 큰 길 바닥에 몇번이나 넘어질뻔하면서...

작업장에 이른 은아는 가쁜숨을 푹푹 몰아쉬며 사방을 살피었다.

어느덧 작업장엔 검은 안개가 자욱히 내리덮였다.

어둠속에 우뚝 솟은 우중충한 박토산이 오만스레 은아를 내려다볼뿐 주위는 온통 피괴한 정적에 휩싸였다.

문화회관의 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영화 음악이 어둠을 타고 은아의 귀전에 날아왔다.

아마 영화가 시작되던 모양이었다.

《아이 속상해.》

은아는 그제야 이 밤에 림시작업장에 와있을리 없다는것이 돌이켜졌다. 알수 없는 두려움이 툭툭 뛰는 가슴속에 갈마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종중걸음으로 다시 내뒹였다. 어디로 갈지 딱히 방향도 없이 무작정 앞으로만 나갔다. 어디에 가서든 최운을 기어이 찾아내여 단단히 해보리라라는 마음뿐이었다.

《어마나.》

은아는 굽높은 구두뒤축이 삐그닥거리는 바람에 몸의 중심을 잃고 그만 그자리에 풀썩 넘어지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길라도 한듯 난데없는 한줄기의 불빛이 짝 비쳐왔다.

은아는 사나운 짐승의 눈빛을 보길라도 한듯 흠칫 놀라며 급히 일어섰다.

한동안 흐트러진 착각을 바로잡으며 어둠속을 뚫고 거침없이 비쳐오는 불빛쪽을 뚫어지게 주시하였다.

순간 불빛은 사라지고 어둠속에서 쇠사슬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은아는 귀를 강구었다.

굴착기가 분명한것 같았다.

《누굴가? 혹시 그가?》

은아는 불시에 떠오른 생각에 어처구니없다는듯 씩 웃어버렸다.

《원 그 돌심장이 언제...》

그는 소리나는쪽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겨짚었다.

(누가 이 캄캄한 박토산우에서 굴착기를 물고있을가?)

발동소리가 가까와지자 자기도 모르게 박토산굽이까지 뛰어간 은아는 그만 그자리에 맥없이 서버리었다.

굴착기 아닌 불도젤이 박토산턱을 짊으며 우로 올라가고있었다.

《아니, 어처구니없구나. 이렇게 미끄러운 산중턱

을 낮에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데...》 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은아의 뇌리에는 어제 얼어놓은 직장장식창문으로 튀어나오던 직장장의 말이 생각이었다.

《아니 그 땅크병이 죽지 못해 환장했군. 썩 걷어치우게. 그렇게 하면 빠를줄 누가 몰라. 그러나 암만 바빠두 일은 제격에 맞게 해야지. 개미가 굴을 파는 식으로말이야...》

이는 분명 저렇게 밤에 홀로 나와 불도젤로 흙을 우로부터 깎아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그럼 그 땅크병이란 누구일까?

(영철동무, 승화동무, 아니 그 호철동무일까?...)

은아는 작업장의 제대군인들을 손을 꼽아가며 세어보았다. 그들은 물론 은아가 《아니다》로 치부한 사람외의 동무들이었다.

은아가 생각을 굴릴 동안 불도젤은 거침없이 산위로 향해 굴러갔다.

순간 은아는 산꼭대기우에서 새별처럼 반짝이는 불길을 보아냈다.

(아니 또 누가 저 우에서 불을 지퍼놓고 불도젤의 길을 밝혀주는게 분명하구나 누구일까?)

은아는 입에 손을 모아대고 불도젤을 향해 힘껏 소리쳤다.

《누구요요?!-》

불도젤은 자기의 우렁찬 소음때문인지 은아가 찾는 소리에는 알은체도 않고 박토산턱을 이리저리 밀어제끼며 계속 올라가고있었다.

《뭘해요?!-》

은아는 몇발자국 따라가며 되알지게 소리쳐물었다.

순간 흙을 한입 물고 앞으로 나가던 불도젤이 뒤로 좌르륵 미끄러져 내려왔다.

《아니?!》

깜짝 놀란 은아는 자기도 모르게 황급히 불도젤있는데로 가까이 뛰어갔다.

미끄러져내려온 불도젤은 숨이라도 돌리려는듯 부르렁거리더니 멈춰섰다.

운전칸문이 벌컥 열리며 내의바람의 키폴이 흰칠한 사나이가 훌쩍 뛰어내리는것이 보였다.

순간 은아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둠속에서도 유묘히 번쩍이는 두눈, 류다르게 툭 튀어난 광대뼈 그리고 목에 질끈 동인 흰수건 ...

(아이 이 동무가?)

종잡을수 없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그러나 뒤에 이어 가슴속에 웅크렸던 반발심이 부글 부글 끓어오른다.

(내가 뭐 반했다구?)

은아는 모욕감으로 쓰리기까지 했던 가슴이 더 달아오르며 목이 팍 메여와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내리떴다. 눈가엔 그 무엇인가 반짝이었다.

반침목을 찾는지 전지불로 사방을 비쳐보던 최운은 전지불속에 거만하다 할 정도로 콧끝이 서서 눈을 내리깔고있는 은아를 보자 전지를 열른 비껴들었다.

쌍까풀진 최운의 부리부리한 눈에 의혹의 빛이 떠올랐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최운은 은아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어떻게라니? 마치 자기를 따라다니는것처럼.)

은아는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아프게 감빨았다.

《동무,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너무도 뜻밖에 맞다들려서인지 그렇게 버르던 말은 감쪽같이 도망가버리고 은아는 이렇게 말해 버리고말았다.

《뭇말이요? 오, 그 값늑은 <동정>을 할려고? 그래서 왔소?》

최운은 아무 꺼리낌없이 태연하게 물었다.

(철면피한 사람.)

은아는 어린애 놀리듯하는것 같은 최운의 배포유한 물음에 헤여날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총알처럼 내쏘았다.

《흥, 미안해요. 전 회관에 가는길이에요.》

《벌써 시작한지 오렐텐데...》

최운의 더부죽한 코잔등에 엷은 웃음발이 스쳐지나갔다.

《모르지 않아요.》

은아는 최운을 외면한채 두부모 자르듯이 말해 버렸다. 그러나 순간 은아는 자기가 던진 날에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럴테지... 같이 가지 않겠소?》

(같이?)

은아는 억이 막힌듯 최운의 얼굴에 피곳 눈길을 돌렸나내리웠다.

그러나 리성은 당황했던 은아의 생각을 제몹으로 끌어왔다. 원래 총명하고 리성적인 《장미꽃》이니 말이다.

《됐어요. 그런 싱거운 소릴 작작하랴요. 전 혼자가겠어요.》

《아니, 산우로말이요. 》

《뭘라고요?》

차디찬 은아의 눈이 의혹의 빛을 띠고 최운의 얼굴을 훑었다. 은아는 또 오리무중에 빠졌다.

《길잡이가 없어 그러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해서 그러오.》

최운의 나지막한 목소리엔 진심이 어려있었다.

그러나 은아는 그것을 느끼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젠 사람을 놀리기까지 하는군요.》

한동안 최운의 얼굴을 서슴없이 더듬어보던 은아는 싸늘하게 말해버렸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바로 최운이가 저 가파로운 박토산으로 그것도 불도젤을 물고 올라간다는것이 애당초 믿어지지 않았다. 흙이 좀 무너진다는 핑계로 작업량도 다하지 못하고 등산운동만 하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박토한지 오래되어 다져질대로 다져진 데다 첫추위에 얼어붙은 박토산의 작업조건때문에 토론들이 얼마나 분분하였던가.

어차피 박토산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그 우듬지를 밀어내야겠다는 의견은 나왔어도 그것은 오랜 운전공들도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할 위험한 노릇이었다. 이 추위에 얼어붙은 가파로운 산길로 불도젤을 올리 밀다가 미끄러지는 날엔 모든것이 끝장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제 앞치리도 못하는 최운이가 남 먼저 어깨를 들이민것이 놀랍기 그지없었다.

최운은 아무말없이 은아의 주변을 서성거리었다. 마치 은아에게서 동의하는 답변을 기어이 받아내려는듯하였다.

《남의 불도젤이나 마스지 말랴요.》

은아의 뻥뻥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짙게 어려있었다.

《공연한 근심이군.》

최운은 그대로 고개를 수긋한채 서성거리며 범상하게 대답했다.

《작은 흙더미도 못치우면서... 공명심에 들떠가지구...》

은아는 마지막말을 비웃음이 력력한 목소리로 천천히 박아 외웠다.

자기를 《망신》시킨데 대한 합법적인 《보복》이기도 하였다.

얼굴을 붉히며 성을 낼줄 안 최운이가 불쑥 소리를 내어 호탕하게 웃었다.

《공명이라... 좋구만. 공명이면 공명이구... 할일은 해야 하니까 그것두 동무의 <직각자>로 쟁것이겠소?》

《뭘라고요?》

최운은 입을 꼭 다물더니 뭔가 결심한듯 불도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둠속에 은아를 남겨놓은 채...

그리고는 불도젤에 뛰어올라 발동소리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산우로 올려물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동무가?》

은아는 불도젤이 당금 미끄러져 내려올것 같아 가슴에 손을 모아쥐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공명주의자.》

그는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매섭게 내쏘며 핵 돌아섰다.

불도젤의 와르릉거리는 소리가 더 세차게 들렸다.

신경이 바늘끝같이 일어섰다.

(돌아다보지 말자.)

그는 굳어진듯 콧끝이 선채 눈을 감아버렸다.

한동안 울리던 발동소리가 웬일인지 푹 끊어졌다.
(왜 멎었을까? 미끄러졌는가?)
사위는 그대로 조용했다.
(아니? 정말?!)

…파헤쳐진 흙옆으로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모로
나딩군 불도젤, 깨진 유리창 그속에서 사람을 찾아
안타까이 손은 흔드는 최운의 피멍든 얼굴이 눈앞에
다가온다.

은아는 바르르 떨리며 숨가빠지는 가슴에 두손을
모두어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허리쉬을 한 최운이가 전조등불빛앞에 버젓이 서
서 새로 내야 할 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앞에선
꽤불이 불길을 그대로 날리고있지 않는가?

최운은 받침목을 가지러 내려오는지 불도젤뒤 한
옆에 고개를 외로 하고 도고히 서있는 은아옆을 지
나가면서 알은체도 안했다.

은아의 가슴에는 공연히 모욕감의 잔파도가 파르
르 일었다.

은아는 불쑥 치미는 자존심에 자기를 잃고 굴러가
받침목을 내려놓고 운전칸에 뛰어오르려는 최운의
담벽같은 가슴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항거하듯 말했
다.

《동문 모험하고있어요. 되지도 않을걸…》

황황히 타는듯한 최운의 쌍까풀진 크고 부릿한 눈
이 처녀를 면바로 뚫어지게 내려다보고있었다.

《뭐? 모험? 그래 모험이라도 꼭 해야 하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이런 모험을 해야 될게 아니요. 나는 땅크
병이란말이요. 종래도 전투에서 뒤에 선적이 없소.
알겠소? 자, 비겁한 사람은 물러서시오. <직각자>동
무!》

최운이의 마디마디 말은 화살처럼 은아의 가슴에
들이박혔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 말고 운전칸에 뛰어올라
힘껏 발동을 걸었다.

부릉부릉 불도젤은 성난 사자마냥 요동하기 시작
했다. 왔다.

순간 은아의 영민한 머리속엔 폭풍이 휘몰아쳐왔
다.

(뭐? 날 비겁하다구? 흥, 난 언제나 남에게 뒤진적
이 없어. 오직 사업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는 직각자
였지. 그래 내가 뭐 겁쟁이라도 된듯이…)

억울하고 분했다. 이에 뒤이어 반발심이 부글부글
피어올랐다.

(그래 그 돌심장을 가지고 멀 해내겠다. 굴착기 하
나도 못다루는 주제에 흥, 누가 비겁한가 보자.)

은아는 불도젤앞에 나서서 곧추 걸어올라갔다.

랭혹한 리성이 그를 앞으로 떠밀었다.

은아는 땅에 꽂아놓은 해불망치를 뽑아들고 앞으
로 걸어나갔다.

얼어붙은 돌부리에 걸어채우며 내쳐 올라가던 은

아는 가쁜숨을 몰아쉬면 신경질적으로 돌아서서 내
려다보았다.

자기쪽을 향해 불도젤이 천천히 움직이며 한치 한
치 길을 내며 따라올라왔다.

해불망치를 쳐들고 불도젤의 길따는 모습을 뚫어
지게 내려다보던 은아는 불도젤이 자기앞에 와서 우
뚝 멈춰서는것을 보자 새로 내야 할 길쪽으로 도고
히 또 걸어올라갔다.

그는 최운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라왔겠지
만 점점 가파로워지는 이 길로 제아무리 모험이 아
니라고 소리쳐도 선뜻 들어서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굽높은 구두로 언 땅의 돌부리들을 피해짚으며 뛰
다싶이 의기양양해 걸어올라가던 은아는 돌에 걸치
여 그자리에 그만 무릎을 꿇고 풀썩 주저앉았다.

해불망치가 낭떠러지로 굴러내려갔다.

주위가 삽시에 캄캄해졌다.

굽인돌이길을 닦던 불도젤이 흙을 밀어제끼며 힘
차게 올라오더니 은아옆에 와서 멈춰섰다.

은아는 쩌해오는 아픔을 참고 별일없는듯 새침해
일어섰다.

《자, 이걸 신소.》

최운이 운전칸문을 열고 특하게 한마디 하며 로동
화 한켄레를 내밀었다.

은아는 최운을 올려다보며 비웃음띤 목소리로 거
절했다.

《그런 값죽은 동정은 그만두라요.》

《하하… 신어두는게 좋소. 전번처럼 봉변을 당하
지 말구. 여기 흙은 이상하지, 굽높은 구두만 보면
안고 들어진다우.》

《싱거운 소리 말라요.》

은아는 최운의 말허리를 야멸차게 툭 꺾어놓았다.

최운은 은아의 거절과 비교는 내심을 알고도 남았
다는 표정으로 빙글빙글 웃기만 하더니 운전칸에 뛰
어올라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해불망치 하나를 가지
고 씨엥씨엥 산우로 달려올라가서 불을 달았다.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최운이가 높이 쳐든 해불
은 펄펄 타올랐다.

《자, 그럼 또 올라가지요.》

최운은 은아에게 불망치를 내밀었다.

은아는 머리수건을 여며쓰며 그러는 최운을 면바
로 올려다보았다. 비웃기보다도 끌려대는듯한 표정
이었다.

《동정이 필요없다더니 잘만 따라오더군요.》

최운이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그 동정과 이것은 다르지요. 함께 도우며 일하는
거야 좋은거지 그렇지 않소? 정 그러면 내려가 보
시구려…》

은아는 입술을 꼭 다물고 앞을 곧추 바라볼뿐 아
무 말이 없었다.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뭇개져 자기라는 존재가 논

판의 허수아비처럼 느껴졌다.

《내려갈수도 있지요. 하지만 동무도 얼마 더 못올라갈거예요.》

《그렇다구?... 흠소. 이런 험한 길은 어쨌든 함께 가야지...》

최운은 해불을 흙무지에 쿡 꽂아놓고 운전칸에 뛰어올라 발동을 세차게 걸었다.

은아는 솟불처럼 달아오르는 두불을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감싸쥐었다.

《<싱거운 사람>, 누군 생각지도 않는데...》

그는 속으로 벌써 이 말을 몇번 곱씹었다.

최운이 한 《어쨌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은 처녀의 예민한 감정을 건드려 마음을 알수없이 휘저어 놓았다.

은아는 해불을 획 뽑아들고 다시 앞서 걸었다.

불도젤은 《ㄱ》형으로 길을 내며 박토산중턱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얼마 가다가 최운은 또다시 운전칸에서 뛰어내려 불도젤이 밀리지 않도록 통나무를 가져다가 뒤받침을 해놓았다.

다시 흙을 밀고 앞으로 전진하려던 불도젤은 받침목이 빠져졌는지 순식간에 뒤로 무섭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아!》

은아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싸쥐었다. 그때까지도 방향을 잡아주고는 한옆에 비켜서서 최운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있던 은아였다.

제동을 얼마나 세파게 했는지 불도젤은 굽인돌이 길에 다 내려가 멎어섰다.

은아는 저도 모르게 나는듯이 달려내려가 운전칸 문을 활짝 잡아당겼다.

최운은 아무 일도 없는듯 몸을 뒤로 비스듬히 젖히고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은아는 최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충렬진 부릿한 눈, 생명을 잃을뻔한 그 아차한 순간을 느낀것 같지도 않게 미소짓고있는 저 눈, 은아는 그런 눈빛을 처음 보는듯...

《일없소.》

최운은 놀란 처녀의 마음을 짐작한듯 나지막히 말하며 다시 웃어보였다.

《좀 쉬기요.》

최운은 운전칸좌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시작이 절반이라구... 어쨌소?》

은아는 제동기옆에 놓인 자그마한 나무단을 가지고 내리는 최운이에게 아무 응답없이 한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비켜주었다.

얼마후에 불도젤옆에 자그마한 모닥불이 피여 났다.

《앗소, 추울텐데... 남자들이란 이렇게 미옥스럽소.

자기 생기만 하고...》

최운은 앓을념 앓고 불도젤옆에 그대로 서있기만 하는 은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아의 마음을 넘겨짚은듯 빙긋 웃었다.

《저녁녘엔 불이 잘 피지 않더니...》

은아는 눈을 조용히 내리뚸었다.

최운은 바깥쪽을 열어놓고 제먼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북 찢어 벌겅게 속살이 드러난 엄지손가락을 감았다. 흰 손수건에는 삽시에 들은 피가 스며어나왔다.

(저건 저아래 세번째 굽인돌이에서 돌을 뽑아 불도젤바퀴밑에 고이다 굽힌것일거야. 그럼, 피를 많이 흘렸겠는데, 아픈줄도 모르는가... 미옥한...)

이렇게 생각을 툴아가던 은아의 귀전에 홀연 얼마전에 들은 최운의 목소리가 다시 산울림처럼 들려왔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이런 모험을 해야 할거요.》

아, 그는 그는... 은아의 가슴속엔 알수 없는 그 무엇이 안개덩어리처럼 몽게몽게 피어올랐다.

최운은 다 감은 천조박지의 끝을 입으로 물고 한손으로 매려다 말고 처녀의 시선이 자기에게 닿아있는것을 특감으로 느끼며 눈길을 들었다.

어쩐지 처녀의 시선이 전에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같이 느껴졌다.

《약간 굼혔소.》

최운은 싱긋이 웃었다.

《자, 그러지 말고 앓소. 안됐소. 이 추운데 쉬지도 못하게... 그러나 어쨌겠소, 우리는 우리 시대를 안고사는 청춘이니말이요.》

그는 은아앞에 운전칸에서 들어온 솜으로 만든 의자받치개를 불가까이에 더 끄당겨놓았다.

은아는 전신이 가늘게 떨림을 느꼈다. 모닥불앞에 선듯 다가서지 못하는 자신이 어쩐지 피로와 졌다.

은아는 최운의 너그로움이 한껏 어린 서글한 눈길에 고개를 숙이고 모닥불가에 조용히 다가앉았다.

그는 다 사그라진 해불망치에 현고무바퀴조박을 새로 바꾸어 묶는 최운의 일손을 생각깊은 눈으로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낮에 모닥불주변에 나딩굴던 쇠줄이며 현고무조박들이 지래서였구나. 그런데 나는 불만 쪼였다고 나무랐지. 그리고 밤에 일할 지형을 보려고 산우에 올라간 그를 등산운동을 했다고 비방했지. 자기의 생산실적이 내려가서 자기의 명예와 직장의 영예에 손상이 있을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의 심장이 돌심장으로만 생각한 나였다. 그렇다면 이 어둠속의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이 땅을 녹여 내는 그의 심장은 과연 어떠한가?!...

언제나 자신은 직각자처럼 생각해오던 자신에 대

한 믿음이 밀등썩은 나무처럼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은아는 모닥불에 나무가치를 던놓았다.

처녀의 가슴속에는 알수없이 미묘한 잔파도가 일며 그것이 차차 살아올라 가슴벽을 세차게 두드리었다.

(그의 가슴속엔 바로 이렇듯 뜨거운 심장이 약 동하고있었구나!

우리 사업, 바로 《80년대속도》창조로 달리는 조국의 건설사업,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희생할수 있는 그 붉은 심장이,

그런데 나는, 언제나 모든것을 직각자처럼 쟀다는 나는, 어찌하여 저 파헤쳐논 흙더미는 쟀줄 알아도 그 흙을 파내는 인간의 뜨거운 심장은 봐내지 못했단가?! 그리고도 자신이 제일 책임적이며 조직의 명예를 위해 힘쓴다고만 믿어왔고 또 그를 위해 양심을 속이기까지 하며 생산실적을 올려주었다. 그래 이것이 사업을 위한 유일한 방도였단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은아는 무거운 자책감에 싸여 머리를 저었다.

그는 좌르륵-검측자를 펼쳐드는 이 일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한 일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아, 나는 바로 나자신이나 나의 직장을 생각할줄은 알아도 우리 시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으로 되었는가? 어찌하여?)

은아는 붉게 붉게 타오르는 우등불에 자기의 차디찬 심장을 덥히려는듯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바람에 뼈죽이 내민 구두뒤축이 언 돌부리에 걸리어 벗겨졌다. 은아는 그 무슨 못보일것을 보인것처럼 빨간 신발을 허둥지둥 치마폭 밑에 감추었다. 어찌하여 언제나 땀이나게 반짝이던 구두가 그처럼 환멸스럽게 눈앞에 안겨지는지...

(그때 남들은 그 추위속에서 일하는데 이 구두를 딸각이며 실적이 낮다고 야멸차게 내소기만 한 내가 아닌가.)

순간 은아는 지금토록 아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듯 쪼그리고 앉은 작은 몸집을 바르르 떨었다.

(직각자, 장미꽃, 언제나 자랑스럽게 들어오던 이 별명에 얼마나 가슴아픈 깊은 뜻이 담겨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자존심, 바로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의 전부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나의 심장을 가로막던 박토산, 우리 시대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위에 쌓여진 박토산이 아닌가?!)

은아는 저려나는 가슴을 달래려는듯 자그마한 두손을 가슴앞에 모아쥐었다.

최운은 자책속에 모대기는 은아를 방해하지 않을 모양 감감한 하늘로 제법 불씨를 탁탁 날리며 빨갛게 타오르는 모닥불만 잡자코 바라보고있었다.

《저... 밤이 더 깊어지기전에 내려갑시다. 산아래까지 내려워주겠소.》

최운은 조용히 말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은아는 한동안 그림자처럼 움직일줄 몰랐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느냐는듯 눈길을 들어 최운을 바라보았다.

늘 차갑고 도도한 빛을 뿜던 쌍까풀진 눈, 그 눈엔 그처럼 나약한 소녀의 맑은 이슬이 어려있었다.

《저 혼자만...?》

아득한 산골짜기에서 울려오는듯한 은아의 목소리엔 야속함이 어려있었다.

최운은 시선을 피한채 바지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성냥가치를 켰 그의 크고 울퉁한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끝내 불을 붙이지 못하고 담배를 바지주머니에 도로 쑤셔넣었다. 그리고는 산아래로 성큼 앞서 걸었다.

불도젤바퀴자리가 뚜렷한 길위에 달빛이 푸르게 내렸다.

몇발자국 내짚던 최운은 무심중 뒤를 돌아다보았다.

의외에도 그 녀자는 모닥불가에 그대로 호젓이 서서 서글픈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나도 함께...》 은아의 조용한 말소리는 최운의 가슴에 찌릿하게 울려왔다.

은아는 불도젤을 향해 걸어오는 최운의 눈길을 피하듯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새로 내야 할 길쪽으로 묵묵히 걸어올라갔다.

.....

불도젤은 다시 밤의 대기를 더욱 세차게 흔들며 박토산꼭대기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위험해요. 우로...우로...》 바로 그앞에는 은아의 쟁쟁한 목청이 불도젤의 거세찬 소음에 어울려 경쾌하게 울려온다. 그의 손에서 활활 타오르는 해불은 밤의 어둠을 몰아내며 박토산을 누벼간다. 은아는 바로 이 길이 그들의 심장을 가로막던 박토산을 파헤쳐내는 지름길임을 잘 알고있었다.

둥이 튼다. 창공을 날으는 새들의 지저귐소리도 새날을 알린다.

아침노을이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서서히 박토산마루를 감싼다.

은아는 밤에 흠뻑 젖은 얼굴을 썩썩 닦고 불도젤에서 내린 최운이가 허리춤에 두손을 올린채 서있는 산등성이로 조용히 다가갔다.

하나로 이어진 두 심장은 상쾌한 아침공기를 흠뻑들이키며 세차게 박동한다...

그들은 여지없이 파헤쳐진 심장속의 박토산마냥 멀지 않아 종적을 감출 이 박토산우에서 노을이 불타는 조국의 아침을 맞아오고있었다.

단편소설에서 사회적문제성을 더 예리하게 제기하자

명일식

사회적문제성을 예리하게 제기하는것은 작품의 사상미학적가치와 의의를 규정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된다.

문학작품은 어떤 분야의 주제를 취급하든 그것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절실한 해답을 줄 때만이 참으로 문제성있는 작품으로 된다.

만일 작품에 예리한 사회적문제가 제기되지 못하였다면 작품 그 자체로서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형상적완결성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시대를 선도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당과 수령의 의도를 얼마나 빨리 의의있게, 그리고 정확하고 깊이있게 제기하고 해결하는가 하는데 의해 규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주제의 현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결국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 잡는가 못잡는가 하는 창작의 근본문제와도 관련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작품에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할데 대한 요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왜냐 하면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인간 개조사업이 더 심화되며 이에 따라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기때문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우리 혁명앞에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이 보다 심각하고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완성된 예술영화 《군대책임비서》와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이처럼 귀중한 생활의 교과서로, 투쟁의 힘있는 고무자로 되는것은 바로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때문인것이다.

예리한 사회적문제의 제기,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이지만 특히 단편소설에서 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단편소설은 가장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문학형식이다.

때문에 그 어떤 형식의 작품들에서보다 단편소설들은 시내와 혁명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

한 문제들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더 민감하게 포착하고 보다 기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단편소설은 사상주제적내용의 전투성과 기동성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단편소설은 또한 하나의 문제, 하나의 주제만을 제기하고 해명해주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단편소설은 원탄을 쏘고 또 근탄을 쏜 다음에 중심을 명중하는 사격이 아니라 단발로 단번에 적의 심장을 꿰뚫는 그러한 사격과도 같은것이다.

당의 정책적요구를 가장 민감하고 전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단편소설에서의 예리한 사회적문제의 제기, 그것은 사실상 생명과도 같은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단편소설을 매 시기 제기되는 당의 목소리와 전투적호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의 생활과 투쟁의 기치로, 시대의 나팔수로 되게 하는데서 예리한 사회적문제의 제기는 바로 그의 선도적 역할을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단편소설에서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은 당정책의 요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오직 당정책에 근거해서만 가장 정확하고도 절실하게 제기될수있다.

지금까지 창작된 사상예술성이 높은 단편소설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다 당정책요구에 철저히 의거하고 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에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어있다.

작가들은 누구보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문제를 대담하고 예리하게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동적으로 예리하게 제기한다는데 바로 단편소설의 우점이 있고 그의 참다운 가치가 있다.

단편소설 《모닥불》(《조선문학》 1982년 7호로정법)이 바로 그것을 말하여준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 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앞에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속에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들은 어떻게 발동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된다.

단편소설 《모닥불》은 관리부위원장 김운상과 리당비서와의 대조되는 성격형상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되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들어가며 그들의 심장속에 어떻게 불을 지펴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관리부위원장 김운상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앞장서 밭에도 나가며 또 앓는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다 오겠다는 안해의 요구마저도 거절해버리면서 모든 농장원들을 밭으로 불러낸다.

그리고는 쫑무니에 낫가락을 차고 작업복바람으로 밭에 나와 살며 새 신발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늘 밭을 벗고 논두렁우에 서있다.

그렇다고 관리부위원장 김운상을 군중속에 깊이 들어간 일군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러면 김운상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어떻게 들어가는것을 의미하는가.

작가는 바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마음은 들어가지 않고 몸만 군중속에 들어간 김운상의 부족점을 보여주고 그와 대조되는 인물인 리당비서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그에 옳은 대답을 주고있다.

김운상은 늘 쫑무니에 낫을 차고 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쓰기 위한것이 아니라 외형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것이다.

때문에 운상은 남보다 일찍 밭에 나왔지만 풀을 베기에 준비되어있지 않은 무딘 낫으로 하여 일자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도 운상은 자기가 이신작적을 한다고 흐뭇하게만 생각한다.

그런데 리당비서는 어떤가.

비록 낫은 쫑무니에 늘 차고 다니지는 않지만 선들선들 날이 선 낫으로 더 많이 일할뿐아니라 자기의 낫을 제대군인 정남에게 바꾸어주기도 한다

김운상부위원장의 무딘 낫과 리당비서의 선들선들 날이 선 낫은 단순한 낫이 아니라 바로 두 인물의 대조되는 성격을 말하여주는 징표와 같은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모닥불을 피우는 세부에서도 볼수 있다.

비오는 날 김운상부위원장은 자기의 사업수첩장까지 모조리 떼내어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끝내 피우지 못한다.

그러나 리당비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불을 피웠으며 사람들에게 뜨끈뜨끈한 우유까지 한고뿌씩 들게 한다.

무엇이 다른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같은 지도일군이지만 김운상은 가슴에 불씨 한점 없는 재만 안고 다닌다.

이런 가슴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퍼 줄수 있겠는가?

군중의 심장속에 불을 지피자면 먼저 자기 가슴의 불부터 지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이처럼 단편소설 《모닥불》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어떻게 살며 일하여야 하는가 하는 매우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 예리하게 제기하고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해명하고있다.

단편소설에서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은 물론 오늘의 현실생활을 통하여 많이 제기되어야 하지만 이미 알려진 생활이나 의 이야기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지향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의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문제는 오늘의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의의깊게 제기하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단편소설 《덕흥나그네》(《조선문학》 1981년 5월호 정창운)에서 잘 볼수 있다.

단편소설 《덕흥나그네》는 전쟁직후 폐허로 된 조국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후퇴시기에 파묻었던 전동기를 다시 파내는 평범한 노동자인 덕흥나그네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30년전에 있는 일로서 우리가 모르고있던 그런 생활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치열한 격전의 마당이나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력사적인 사건도 아니다.

전후복구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 크지 않은 생활을 그리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전후 어려웠던 시기 당과 수령께 진심으로 충성다한것은 우리의 로동계급들이며 그들이 바로 남모르는 충성심을 땅에 바친 숨은 영웅들이라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오늘의 시대적지향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예리하게 제기하고 사람들은 바로 덕흥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단편소설 《덕흥나그네》는 비록 30년전에 있는 주인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으나 오늘날도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힘있게 떠밀어 주고있다.

단편소설 《덕흥나그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준엄한 전쟁은 또한 매 인간들의 량심도 검열하였다.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더 뜨겁게 간직하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는 시각에도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단편소설 《덕흥나그네》에 나오는 로동계급인 주인공이 다른아닌 그런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인간이었으며 객주집 주인 내외와 사리원장사군이 또 그러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 인간들이었으며 기생층들이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로 된 조국을 다시 일떠세우기 위해 전체 인민이 복구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기생층들은 국가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내었다.

그런가 하면 탄광자재인수원처럼 국가재산으로 자기 밥그릇을 높이기도 한 그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생활속에서 주인공 덕흥나그네는 사람들에게 조국을 위해 진정으로 자기 한몸을 댔듯이 바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을 다하자면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덕흥나그네는 전쟁이 끝난지 두달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후퇴시기에 파묻어 두었던 전동기를 파내기 위해 산간마을로 찾아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말없이 일한다.

그가 숙박한 객주집에는 객주업 30년 리력을 가진 주인내외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난 사람같이 않게 흰 와이샤즈에 반들거리는 토색구두를 신은 사리원장사군과 탄광의 자재인수원까지 합하여 모두 세사람이 들어있었다.

돈많은 사리원장사군은 돈많은 탓에 비단이불을 덮고 고기국에 흰쌀밥을 먹었지만 탄광자재인수원과 덕흥나그네에게는 채소국에 산나물만 차례졌다.

그후 탄광자재인수원은 주인너편네의 간사스러운 폐임에 넘어가 국가의 동발목을 가지고 선심을 써서 자기 밥그릇을 높여갔지만 덕흥나그네만은 여전히었다.

덕흥나그네도 전동기 한대만 팔면 얼마든지 밥그릇을 높이고 비단이불도 덮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아침 일찌기 객주집을 떠나서 밤늦게 돌아오며 말은 일만을 성실히 해나갔다.

이러한 덕흥나그네의 심증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 사리원장사군은 그에게 값을 후하게 줄터이니 전동기 한대만 팔라고 꼬이였다.

이에 덕흥나그네는 단마디로 말한다.

《당신은 더 늦기전에 떠나는게 좋겠소. 우리 공장

전동기때문에 당신이 섭섭해할 일이 뭔가요?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공장 전동기를 팔아먹으란말이요? 당신이 우리 로동자를 뭘루 아오.

전쟁을 겪고난 나라가 몹시 어려움을 겪는 때에 당신처럼 제살 구멍이나 찾는 로동자는 없지요.》

주인공의 이 말속에는 자기 개인의 향락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려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덕흥나그네는 이미 파낸 전동기들을 다 공장으로 보내고도 또다시 홀로 남아 채 파지 못한 마지막 전동기까지 끝내 찾아낸다.

그는 껌작을 들다가 그만 포장쇠줄에 찢리워 파상풍에 걸려 눈을 감는다. 마지막 순간 그는 탄광 자재인수원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오. 한번 꼭 말해주고싶었소. 죽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 귀담아듣소.》

얼마나 심장속깊이 파고드는 말인가. 여기에는 우리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드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충성심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참으로 이 말은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할수 없는 오직 성실한 주인공 덕흥나그네와 같은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는 말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단편소설 《덕흥나그네》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하고있는 오늘 사람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작품은 단편소설에서 사회적문제성은 비록 지나간 생활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시대적지향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문제를 의의있고 깊이있게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그 예리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에서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은 또한 아직은 누구의 눈길도 미치지 못한 새로운 생활분야,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찾아내어 그것을 의의있는 인간학적문제로 전환시켜 새롭고 독창적으로 해결할때 더 심오해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작가의 창조적탐구와 관련되는 창작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하여도 그것이 독창적으로 탐구된 새로운 예술적형상에 의하여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학의 문제로 전환되지 못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경한 사회적문제

로 남아있을뿐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단편소설에서 제기한 새롭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가 인간학적문제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더 예리화되고 더 큰 감동을 줄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은 작가의 창조적탐구, 창작의 독창성과도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조선문학》 1982년 8호 백보흠)은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시사를 주고 있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생활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생활을 담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가진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풍모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문제를 새롭게 찾아내고 그것을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문학에 일정한 문제성을 던져주고있다.

사람들의 생활속에는 언제나 성과도 많지만 또한 결함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범한 결함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군한다.

사실상 사업과 생활속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함을 자기에게서 먼저 찾고 성과를 남에게 양보하는 기풍을 소유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풍모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성장하던 멀리 지나간 시절에 범한 결함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의 불찰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 그것을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는다는것은 한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생활에서 하나의 비약과정이며 새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성은 누구에게서나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남에게 해를 주고 큰 상처를 입히고도 자기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설사 느끼었다 하여도 심장속깊이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버리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범한 결함을 자기가 스스로 찾고 뉘우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인간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의 주인공 설태진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25년전 첫 로동생활에서 추위와 졸음 앞에 굴복하고 밤 기상관측시간을 어긴것으로 하여 리철원이라는 조장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육체적인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주고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칠 대신 그곳을 도망쳐 초소를 떠났었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일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다.

설태진은 과학탐구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오랜 조직생활속에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25년만에 주소를 알아가지고 조장 리철원을 찾아오게 된다.

그런가 하면 리철원도 또한 그대로 나아온 설태진에게 잘못이 접수되도록 원칙적으로 교양하고 아량있게 도와줄 대신 위협적인 욕설로 인격까지 모욕한것으로 하여 태진이가 혁명초소를 버리고 도망치는것과 같은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다.

이러한 결합으로 하여 그도 심한 가책속에 20여년을 살아왔다.

단편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태진이와 리철원은 25년전에 있던 일을 두고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자기에게서 서로 부족점을 찾고 심각히 뉘우치면서 원칙적으로 살아오고있다.

이 얼마나 량심적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보다 동지를 더 생각하는 참된 인간들인가.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늘 자기를 돌이켜보고 총화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풍모인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기에 농산기사로 과학탐구에서 큰 공적을 세우고 금별의 훈장까지 받게 되는가 하면 백산봉의 원격자동기상관측기를 완성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는것이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은 이처럼 평범한 생활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감명깊은 인간학적인 이야기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들인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숭고한 풍모를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 단편소설이 스칠수 없는 심오한 문제,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체현하고있는 작품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와 그 철학적깊이들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단편소설작가들은 전투적이며 기동성있는 단편소설의 특성을 잘 살려 문제성있는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첫 사람

리 석

동넱하늘이 휘뿔히 밝아왔다.

대동강에 서려있던 젓빛안개가 그물그물거리며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밤사이에 안개속에 가리워졌던 도시의 웅장한 자태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아름다운 수도의 보통날 이른새벽이다.

티하나 없이 깨끗한 아스팔트길위로 무케도전차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분주히 오갈뿐 아직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협의회가 있어 나는 여느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풍만한 가로수 잎사귀들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포석을 밟는 나의 얼굴에 떨어져 입귀로 흘러들었다. 달크무레한 그 맛은 상쾌한 새벽의 향취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마침 내가 정류소에 도착하자 기다린듯 전차가 와 닿았다.

《일찌기 출근하십니다.》

낮익은 처녀차장의 상냥한 목소리였다.

언젠가 탄광에 자동차부속품들과 소공구들을 싣고 지원자들과 함께 찾아와 탄부들의 청은 어길수 없다고 노래까지 불러주던 그 인상깊은 차장처녀였다.

《탄광으로 나가시는구만요.》

《예, 허허... 내가 첫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처녀의 인사말에 웃음으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아니 첫 사람이라니요?》 하면서 시원하게 생긴 두눈에 웃음을 곱게 담으며 앞자리로 얼굴을 돌리는것이였다.

누군가가 벌써 앞좌석에 앉아있었다.

《아, 손님이 있는걸 미처 몰랐구만...》

나는 즐겁게 웃으며 미안한감을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잠자코 앉아있던 손님이 뒤를 돌아보자는 깜짝 놀랐다.

《아니, 비서동무가 어떻게?! ... 신새벽부터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갑자기 물어서인지 그는 《어데로 간다고 할가?...》 하더니 《그저 빠스를 한번 타봅시다.》 하고는 빙그레 웃어버리는것이였다.

《아니, 비서동지라니요?!》

옆에 서있던 차장이 눈이 둥그래지며 나를 쳐다보았다.

《차장동문 아직 모르오? 이 전차를 만든 공장의 당비서동무요.》

《네?!》

순간 처녀의 얼굴은 이름할수 없는 반가움으로 빨개졌다.

《아이참, 이를 어찌나!》

처녀는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내가 두번다시 물어서야 처녀차장은 사연을 말하였다.

한달전부터 매일아침 련못동 빠스정류소에서 전차에 오르는 한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차에 올라서 가끔 운전사와 차장에게 전차가 소리나지 않는가, 어느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나는가, 유압계통이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묻는가 하면 어떤날에는 손님들과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차장처녀는 전차를 처음 타보는 손님이라니 생각하고 범상하게 여겨왔다.

그런데 며칠후 사업소 차장들속에서도 이 손님에 대한 말이 오고갔다.

처녀들은 그저 운수설계사업소 연구사나 설계가가 아니겠는가고 모두 제나름으로 생각하여왔다는 것이였다.

처녀차장의 말을 듣고보니 이 비서동무가 이른 새벽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는 까닭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내 짐작이 틀림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펼쳐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한달동안 전차를 타고다니면서 운전사들과 차장, 손님들로부터 받은 전차에 대한 의견들이 날자별로, 로선별로 적혀있었다.

(아, 그랬겠구나.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바라시는대로 더 좋고 편리한 전차를 만들자고 인민들의 목소리, 인민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른아침 남면저 새벽길을 걸었구나!)

참으로 수첩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는 나는 크나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자 그 언젠가 인민들의 편리를 더 잘 도모하기 위하여 새 전차선로들이 생긴것과 관련하여 전차생산대수를 갑자기 배로 늘일데 대한 과업이 떨어졌을 때 일이 떠올랐다.

전차에 들어가는 뒤차축대형치차를 프레스화 하는것은 그 결정적고리를 푸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때 비서동무는 소재직장에 사무실을 옮기고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일찌기 수도 무궤도전차화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1년 10월 이 공장 노동계급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첫 무궤도전차를 만든것을 보시고 평양사람들이 또 해택을 입어 좋게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차에 친히 오르시여 전차는 거리를 단장해줄기때문에 도시풍치에 맞게 미적으로 곱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에서 전차를 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려면 프레스화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 프레스화하지 못하고있었다. 뒤차축대형치차가 바로 그러하였다.

공장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프레스의 능력을 운운하면서 의연히 자유단조를 주장하였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500톤이상이라는 프레스의 능력만이 들어차있었지 새로 일떠서는 거리와 더 볼어 수도 시민들의 교통운수편리를 책임지는 주인다운 마음이 부족하였다.

이것을 포착한 당비서동무는 하루아침 출근길에 몇몇 일군들과 함께 봄비는 정류소줄에서 배스를 세 번씩이나 갈아타며 시내를 한바퀴 돌고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조건타발을 하던 일부 일군들은 하루빨리 전차의 대수를 늘이여 정류소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겠다는것을 절박히 느끼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협의회에서 더는 조건타발을 할수 없게 되였다.

다음날 비서동무는 일찌감치 단조작업장에 나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벌써 몇몇 일군들이 단조공들과 이마를 마주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며칠만에 드디어 새로운 형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프레스의 능력을 전보다 200톤이나 더 높였다.

마침내 프레스에서 뒤차축치차, 유섬치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치차들을 보기좋게 찍어내게 되었고 생산의 걸린 고리가 풀리였다. 전차생산이 종전의 거의 2배로 뛰여올랐다.

이른새벽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공의 희열을 가슴 뿌듯이 느끼며 남먼저 아침노을을 바라 보는 당비서동무의 기쁨, 긍지와 보람은 컸다.

하지만 언제나 첫 사람으로 수도의 출근길을 걸어야 하는 그 걸음은 조련치 않았을것이다.

생각을 더듬던 나는 처녀차장을 조용히 손짓하여 불렀다.

《차장동무, 자 이 수첩을 보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바라시는데로 더 좋은 전차를 만들기 위한 방도가 다 있소.》

속삭이듯 말하며 나는 차장에게 수첩을 넘겨주었다.

수첩의 갈피를 눈여겨보던 처녀차장 역시 크나큰 충격에 흥분을 억제하지 못한채 이렇게 말하였다.

《사철 전차를 타고다니며 인민들에게 봉사하면서도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에 다 적혀있군요.》

저는 그저 부지런히 출근하는 우리 전차의 첫 사람으로 평범하게 생각했을뿐이요. 그러니 초급당 비서동지가 새벽길인들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누가 보건말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새벽길을 말없이 걷고걸는 첫 사람!

참으로 수첩의 갈피갈피에 적어넣은 글자들은 마치 묵묵히 바쳐온 충성의 발자국처럼 나에게 느껴졌다.

하기에 내가 받은 이 크나큰 충격을 나혼자의 마음속에만 가둘수 없는 심정이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싶었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여, 조국의 이 아침을 새로운 시간으로만 생각지 마시라.

오늘의 하루도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자기의 충성을 말없이 묵묵히 바쳐가는 우리 당일군들의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잊지 마시라.

강토가 갈라지는곳에서

리정기

조국의 한끝은 남해가인데
백두산에서 시작된 조국기행의 길은
에서 끝나야만 하는가
내 취재의 발걸음 가로막는
원한의 군사분계선

더 못가는 안타까움을 두고
높이 올라선 둔덕우에서
내 쌍안경으로 멀리 바라볼 때면
남녘으로는 무성한 갈대숲의 노한 파도
북녘으로는 풍만한 벼이삭의 흥겨운 파도
가로놓인 콘크리트장벽을 사이두고
여기서 북과 남이 갈라졌구나

지척이어도 만나지 못하는 얼굴들이
서로 원한의 장벽너머로
애타는 마음의 눈길 끝없이 보내는
북과 남이
예로부터 하나의 지맥이었거니

꽃나이지절에 헤어진 언니와 동생이
젊은 시절에 갈라진 안해와 남편이
서로 목메여 부르는 세월속에
날이 가고 해가 바뀐다
미제와 파쑈도당의 총칼에 짓밟히는
조국의 남녘땅을 두고
둘로 갈라질수 없는 민족의 운명을 두고
온 겨레가 잠 못이룬다.

광활한 세계판도 그 어데나 가닿는
내 신성한 기자의 발걸음이건만
강토가 갈라지는 여기서처럼
터지는 아픔과 분노의 글을 써야 하는
본의아닌 민족분렬의 비극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또 있단말인가

말하라 세계의 양심이어
이 땅에 미제침략자들이 남아있는한
가서지지 않는 민족분렬의 고통이
끝장나야 할 인류의 고통으로
여기서 시작되는것이 아닌가

통일을 부르는 시대의 절박한 웨침인양
가시철조망에 세차게 맞부딪치는
무성한 갈대숲의 노한 파도여
탐스런 벼이삭의 끝없는 설레임이어
원한의 콘크리트장벽을 무너뜨리며
끊어진 남북강토와 혈맥이 이어지는
력사의 장엄한 화폭을 펼치라

강토가 갈라진 여기서
강토가 이어질 여기서
세차게 밀려가라, 풍만한 황금물결이어
갈대숲의 파도를 밀어제끼며
넘치는 행복으로, 웃음으로
온 남녘의 대지로 물결쳐가라

아, 통일의 광장에 어버이수령님 모시는
만세의 환호성에 삼천리가 동할 때
남북형제들이 얼싸 부둥켜안는
민족의 대경사를 새겨갈 필봉엔
영원히 하나인
조선의 목소리 꽃피여날것이니

강토가 둘로 갈라진곳에서
고통과 분노의 절정을 썼던 내
강토가 하나로 이어지는곳에서
행복과 기쁨의 절정을
온 세계를 향해 맘껏 쓰리라